

2022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2022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차례

[2022 이슈페이퍼 모음집]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KICCE(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ART 01

유치원·어린이집

- ◆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실태에 기반한 교사 지원 방안 3
- ◆ 교사 인식조사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실행 방안 25
-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 53

PART 02

가정·직장의 양육 지원

- ◆ 가정에서의 육아문화 진단 및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77
- ◆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진단 및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97
- ◆ 동아시아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 비교
- 한·중·일 전문가 인식을 기반으로 - 121

PART 03

포용적 육아 지원

- ◆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 영향 요인 및 지원 방안 147
- ◆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양육환경 실태와 개선과제 167
- ◆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 191

PART 04

패널 및 데이터

-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개요 및 정책적 기대효과 217
- ◆ 육아정책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과 연구자료 활용성 확대를 위한 제고 방안 239

PART

01

유치원·어린이집

- ▮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실태에 기반한 교사 지원 방안
김은영
- ▮ 교사 인식조사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실행 방안
최은영
-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
유해미

| 이슈페이퍼 2022-06 |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실태에 기반한 교사 지원 방안

김은영

1. 배경 및 문제 제기
 2.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행
 3. 정책제언
- 참고문헌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실태에 기반한 교사 지원 방안*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교사는 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유아·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서 전문적인 역량이 더 필요함.
- 2021년 교사의 91.2%가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연수를 이수하고, 36.0%가 장학 및 컨설팅을 받음. 2021년 교사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율장학을 가장 많이 하였고,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타 기관 참관이 가장 많았음.
- 누리과정 일과 운영시간은 유치원은 4시간 51분, 어린이집은 7시간 30분으로 나타남.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작성하는 계획안은 주간계획안이 가장 많았으며,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해 활용하는 놀이자료는 재활용품이 가장 많았고, 유아 평가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관찰기록임.
- 개정 누리과정 운영 내용 중 교수·학습에 대한 실천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3.41~3.54점으로 평정하여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함.
-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변화는 계획안, 평가양식 등 문서의 변화정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교사의 변화 정도는 교사 역할이 가장 높았고, 유아의 변화는 주도성 증대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개정 누리과정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과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적 요구 1순위는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었으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현장지원 자료 제작 및 보급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이상의 결과에 따라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지원방안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 하향화, 교사의 자율연수 기반 마련 및 내실화, 현장지원자료 개발, 지원인력 배치를 제안함.

* 본고의 내용은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반과제인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 2021)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추가함.

1 배경 및 문제 제기

가. 누리과정 개정의 배경 및 중점 사항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0번에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정’을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국정 방향에 따라 교육부는 2017년 12월에 발표한 ‘유아교육혁신방안’에 유아 중심, 놀이 중심¹⁾ 누리과정 개정 방향을 제시함.
- 정부의 국정과제와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에 따라 2019년 7월에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사의 자율성 강화의 방향으로 개정된 「2019 개정 누리과정」¹⁾이 고시되었고, 2020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되고 있음.
-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이라는 유아교육 혁신 방향에 맞추어 개정된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어 유아에게 놀이권과 행복권을 돌려줄 필요가 있음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 2020: 27).

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 교육의 질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역량임.
- 유아·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기본적인 역량에 더하여 전문적인 역량이 더 필요함.
 - ◆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과정 문해력(curriculum literacy)을 확보해야 함(정광순, 2012: 111).
 - ◆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의 놀이지원 역량은 유아의 놀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놀이를 활성화하는 방법 또는 기술, 놀이 상황에서의 태도 및 성향을 말함 (조운주, 2020: 86)
 - ◆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판적 사유와 윤리적 실천 역량이 필요함(이경화, 2019: 7)

1) 이하 개정 누리과정으로 기술함.

-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핵심적 역량으로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를 읽어낼 수 있는 관찰력,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역량, 빠른 판단력, 적절히 발문할 수 있는 능력, 유연성, 민감성, 주도성, 창의성, 분석적 사고력 등을 언급함(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 2021: 246-247, 295)
-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교사를 통해 누리과정 운영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개정 누리과정 운영 실태와 인식,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및 지원 요구를 살펴보고,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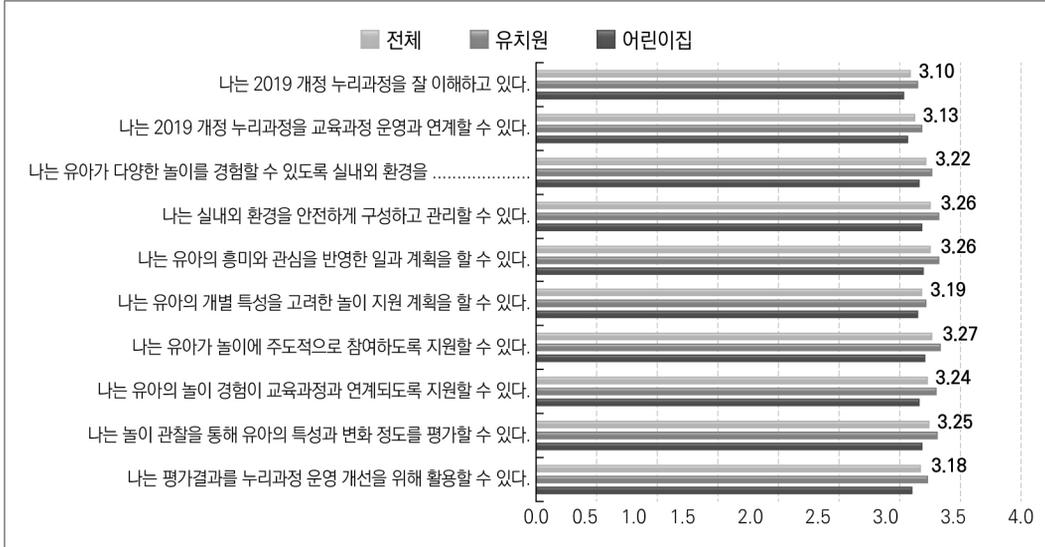
- 본 장에서는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행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함.
 - ◆ 조사대상은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각 500명씩 총 1,000명임.
 - ◆ 조사내용은 누리과정 운영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개정 누리과정 운영 실태 및 인식, 교사의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및 지원 요구 등이며 온라인을 통해 조사함.

가. 누리과정 운영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누리과정 운영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3.10~3.27점으로 전문성이 있는 편으로 평정함.
 - ◆ ‘나는 유아가 놀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항목이 3.27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음.
 - ◆ ‘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항목이 3.1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 ◆ 모든 항목에서 유치원 교사의 점수가 어린이집 교사의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1] 누리과정 운영 전문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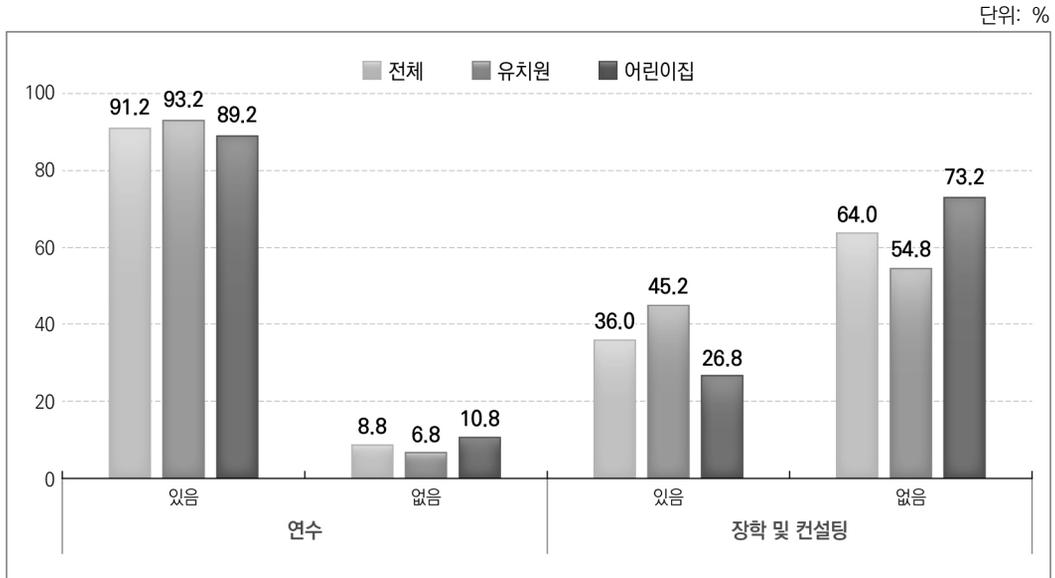
단위: 점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30. <표 IV-1-7>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 2021년 교사의 91.2%가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연수를 이수하고, 36.0%가 장학 및 컨설팅을 받음.
 - ◆ 연수와 장학 및 컨설팅 경험은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 유치원은 공립단설, 공립병설, 사립개인, 사립법인 교사 순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직장,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민간 교사 순으로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100인 이상 규모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장학이나 컨설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그림 2] 연수, 장학 및 컨설팅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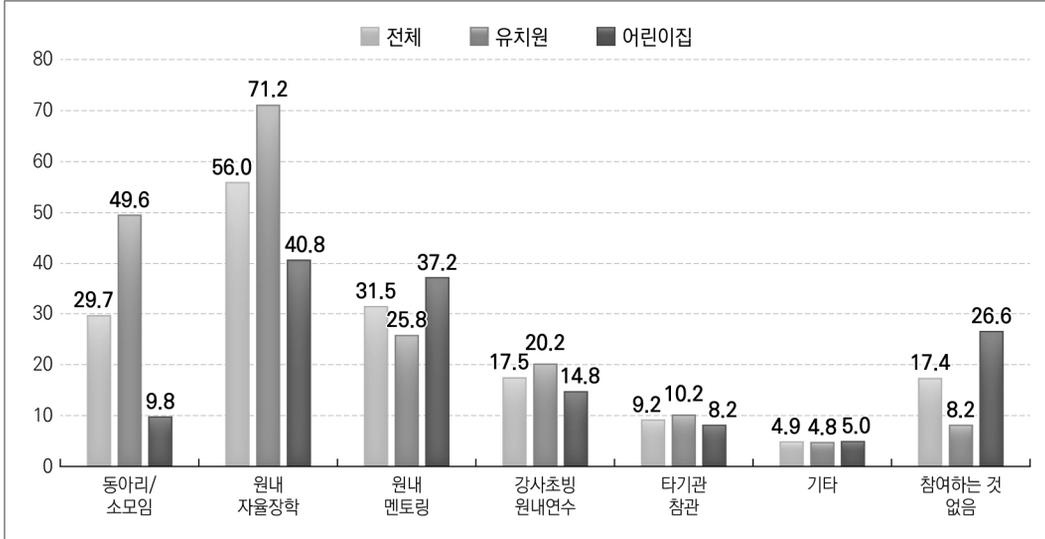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41. (표 IV-2-11), p. 152~153 (표 IV-2-22)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 2021년 교사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율장학을 가장 많이 하였고,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타 기관 참관이 가장 많았음.

- ◆ 교사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는 활동은 원내 자율장학이 5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원내 멘토링 31.5%, 동아리나 소모임 29.7%, 강사 초빙 원내 연수 17.5%, 타기관 참관 9.2% 등의 순임.
- ◆ 원내 멘토링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치원 교사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동아리나 소모임, 원내 자율장학의 경우 유치원 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음.
- ◆ 참여하는 것 없다는 응답은 유치원 교사는 8.2%인 데 비해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는 26.6%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 교사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타 기관 참관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사초빙 원내연수 27.9%, 동아리나 소모임 21.8%, 원내 멘토링 7.3% 순이었으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6%로 나타남.

[그림 3]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는 활동(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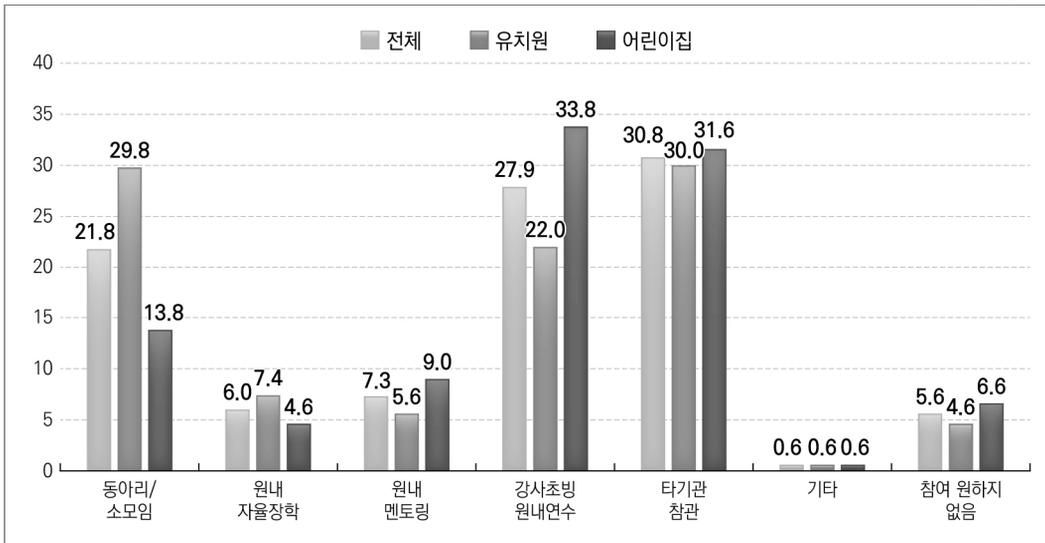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57. <표 IV-2-27>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그림 4]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고 싶은 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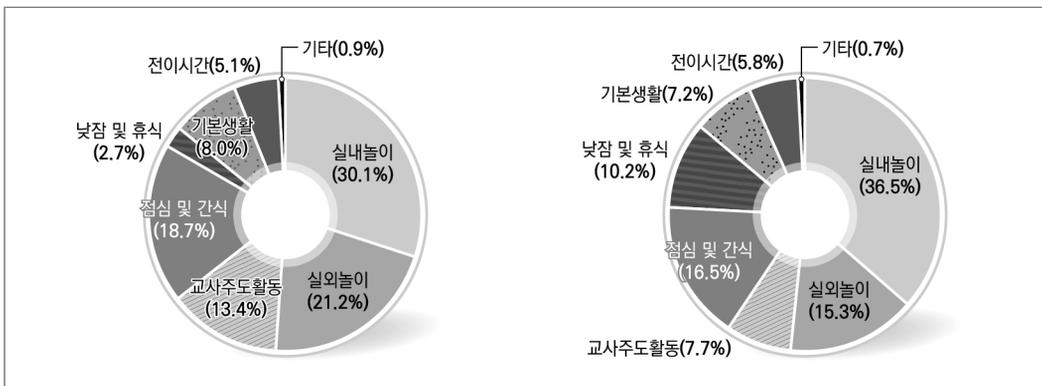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57. <표 IV-2-28>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나. 교사의 개정 누리과정 운영 실태 및 인식

- 누리과정 일과 운영시간은 유치원은 4시간 51분, 어린이집은 7시간 30분으로 나타남.
 - ◆ 교육시간은 전체적으로 3시간 48분으로 유치원 3시간 8분(일과시간의 64.7%), 어린이집 4시간 28분(일과시간의 59.6%)이었음
 - ◆ 실내놀이는 유치원 1시간 28분(일과시간의 30.1%), 어린이집 2시간 44분(일과시간의 36.5%)이었고, 실외놀이는 유치원 1시간 2분(일과시간의 21.2%), 어린이집 1시간 9분(일과시간의 15.3%)임.
 - ◆ 교사주도 활동의 경우 유치원 39분(일과시간의 13.4%), 어린이집 35분(일과시간의 7.7%)으로 교사주도 활동 시간만 유치원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 일상생활시간은 1시간 59분이었으며, 유치원 1시간 26분(일과시간의 29.4%), 어린이집 2시간 33분(일과시간의 33.9%)임.

[그림 5] 누리과정 일과 운영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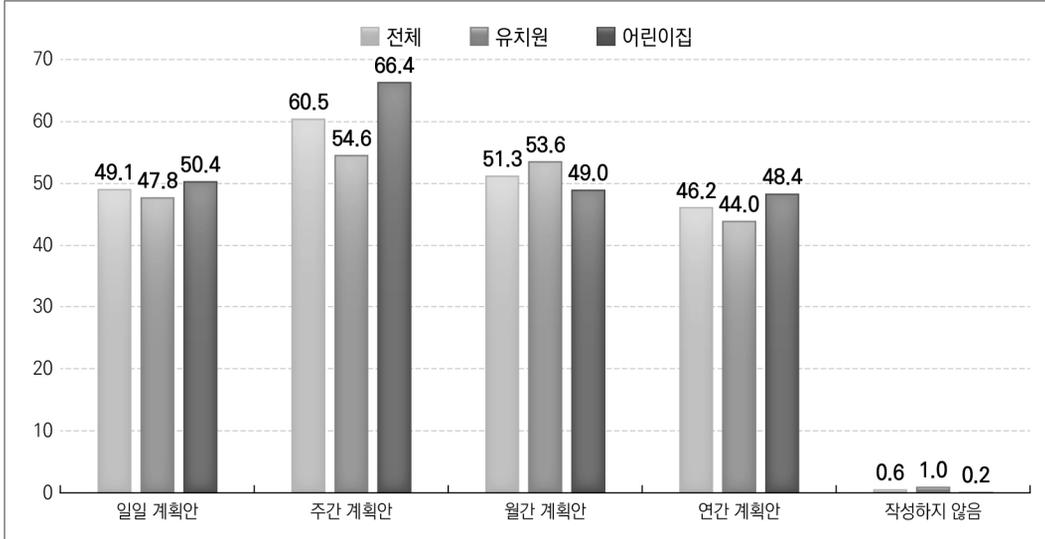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59. <표 IV-3-1>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작성하는 계획안은 주간계획안이 60.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월간계획안, 일일계획안, 연간계획안 순이었음.
 - ◆ 유치원의 경우 주간, 월간, 일일, 연간 계획안 순으로, 어린이집의 경우는 주간, 일일, 월간, 연간계획안 순으로 많이 작성함.

[그림 6]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작성하는 계획안(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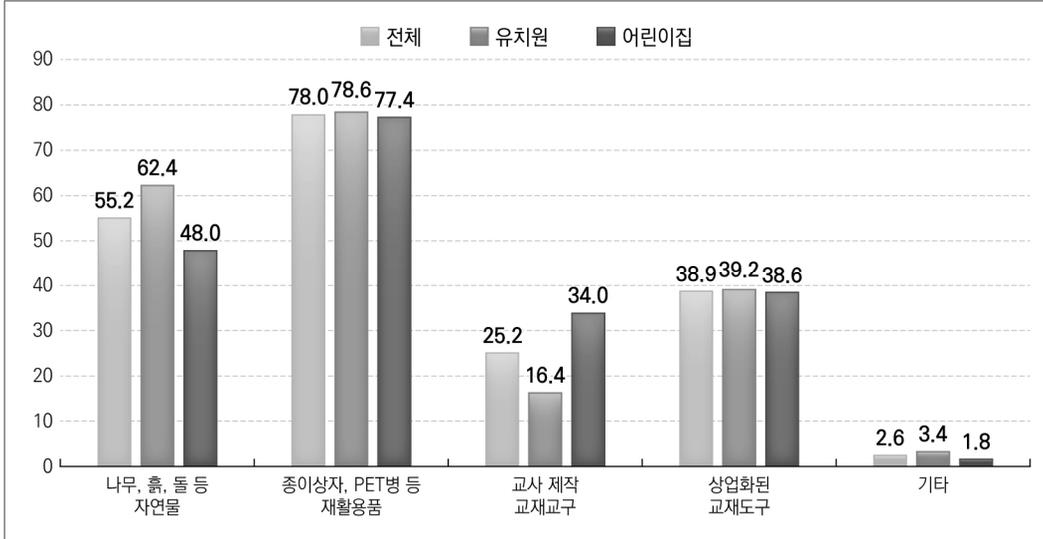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75. <표 IV-3-13>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해 활용하는 놀이자료는 재활용품이 7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연물, 상업화된 교재교구, 교사 제작 교재교구 순이었음(그림 7 참고).
 - ◆ 나무, 흙, 돌 등 자연물은 유치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교사 제작 교재교구를 활용하는 비율은 어린이집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하는 내용은 유아 놀이가 82.4%로 두드러지게 높았음. 유아 평가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의 1순위와 2순위 결과를 합하면 관찰기록이 9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놀이결과물이나 작품, 사진과 동영상, 체크리스트나 평정척도 순이었음(그림 8 참고).
 - ◆ 놀이결과물이나 작품, 체크리스트나 평정척도는 어린이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진과 동영상은 유치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해 활용하는 놀이자료(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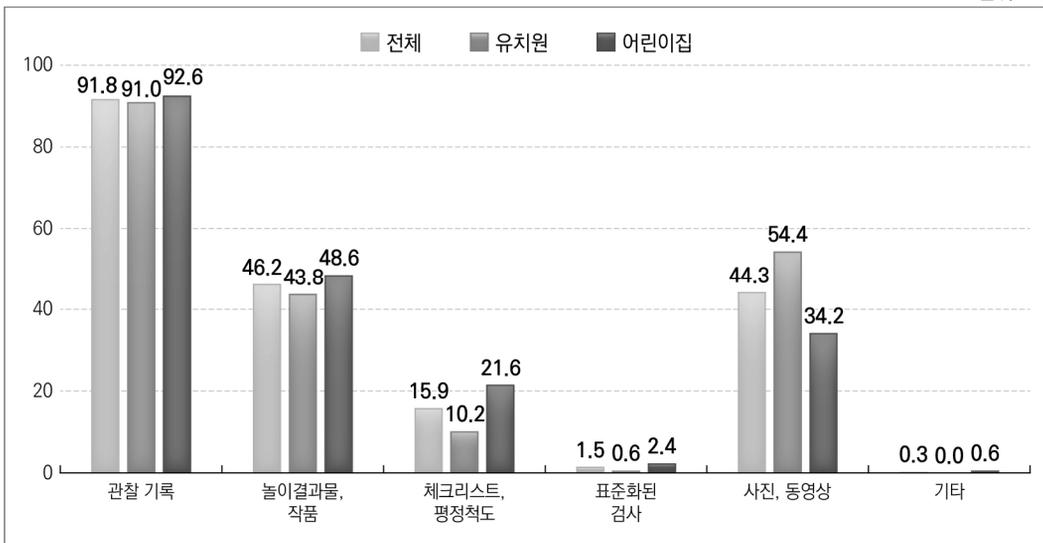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75. <표 IV-3-14>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그림 8]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서 유아 평가 방법(1순위+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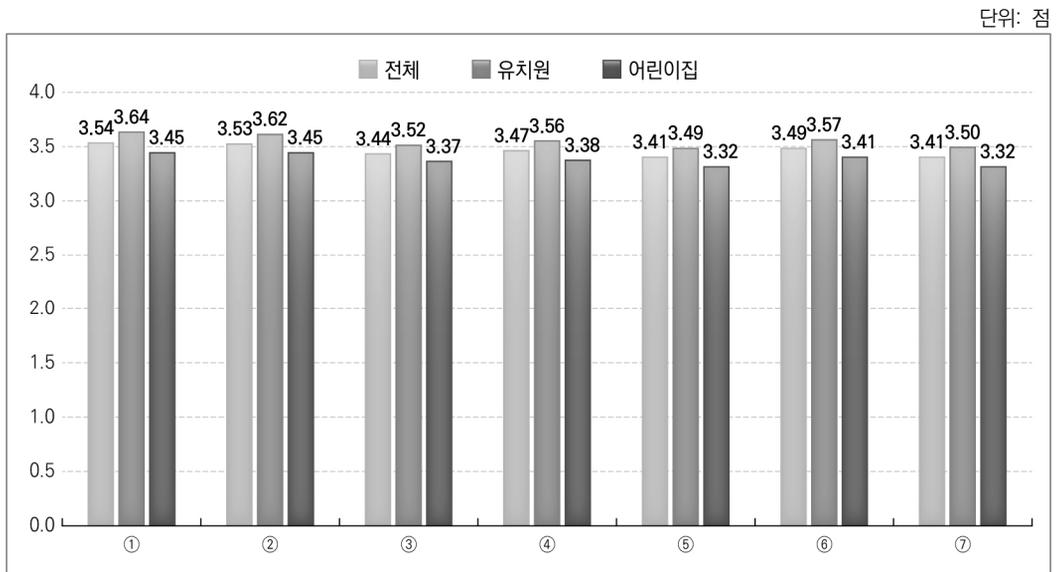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77-178. <표 IV-3-17>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 개정 누리과정 운영 내용 중 교수·학습에 대한 실천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3.41~3.54점으로 평정하여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함.

- ◆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는 가장 높고,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 ◆ 모든 항목에서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의 평정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개정 누리과정 교수·학습 내용의 실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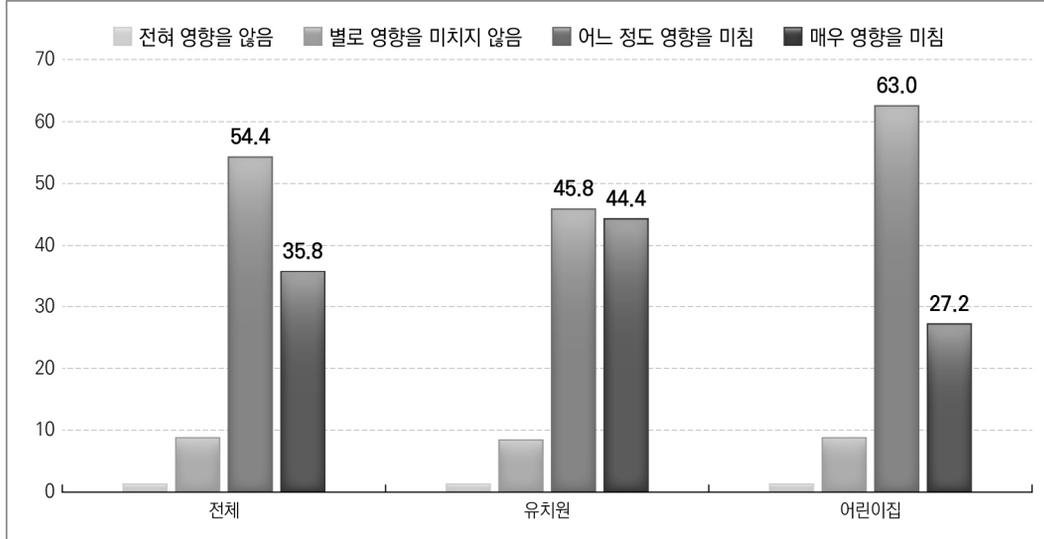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66. <표 IV-3-4>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 COVID-19가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90.2%에 달함.

- ◆ 매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교사보다는 유치원 교사에게서 많이 나타남.
- ◆ 영향을 미친 정도는 4점 만점 기준 3.25점으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정 점수 또한 유치원 교사의 점수(3.33점)가 어린이집 교사(3.16점)보다 높았음.

[그림 10] COVID-19가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미친 영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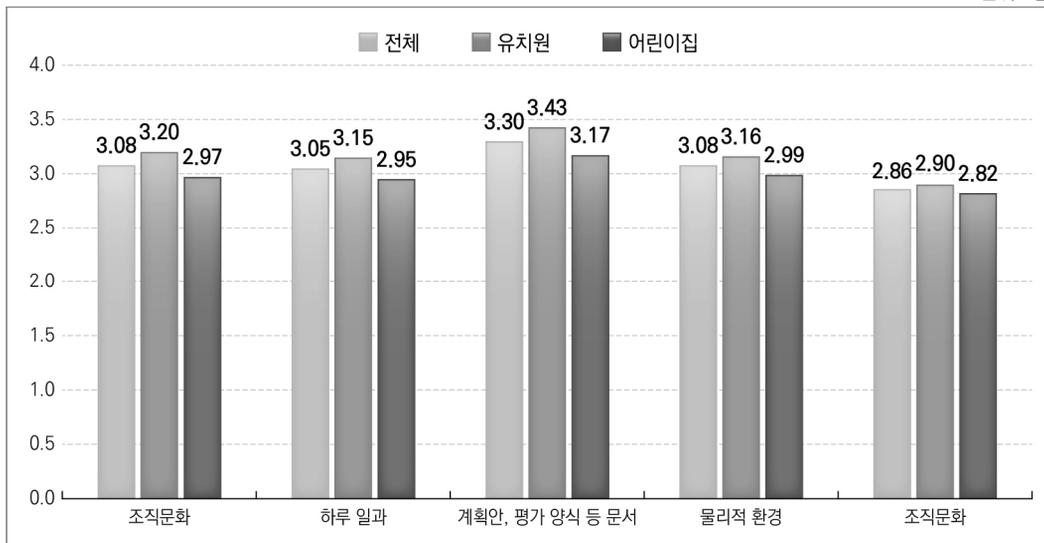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78. <표 IV-3-18>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그림 11]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기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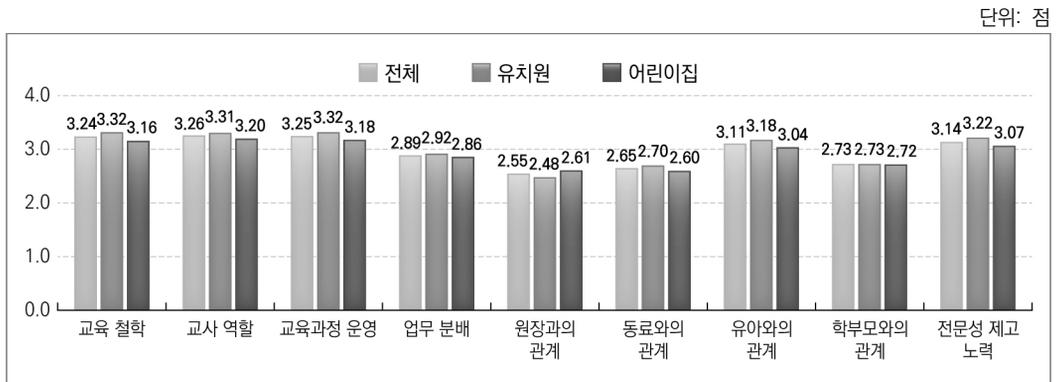
단위: 점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84-185. <표 IV-4-3>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변화는 계획안, 평가양식 등 문서의 변화정도를 3.30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물리적 환경, 하루 일과, 조직문화 순이었음 (그림 11 참고).
 - ◆ 모든 항목에서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보다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기관을 변화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교사의 변화 정도는 교사 역할이 3.2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 교육철학, 전문성 제고 노력, 유아와의 관계, 업무 분배,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거의 모든 항목에서 유치원 교사의 변화 정도 인식이 높았음. 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변화 인식만 어린이집 교사가 높았음.

[그림 12]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교사 자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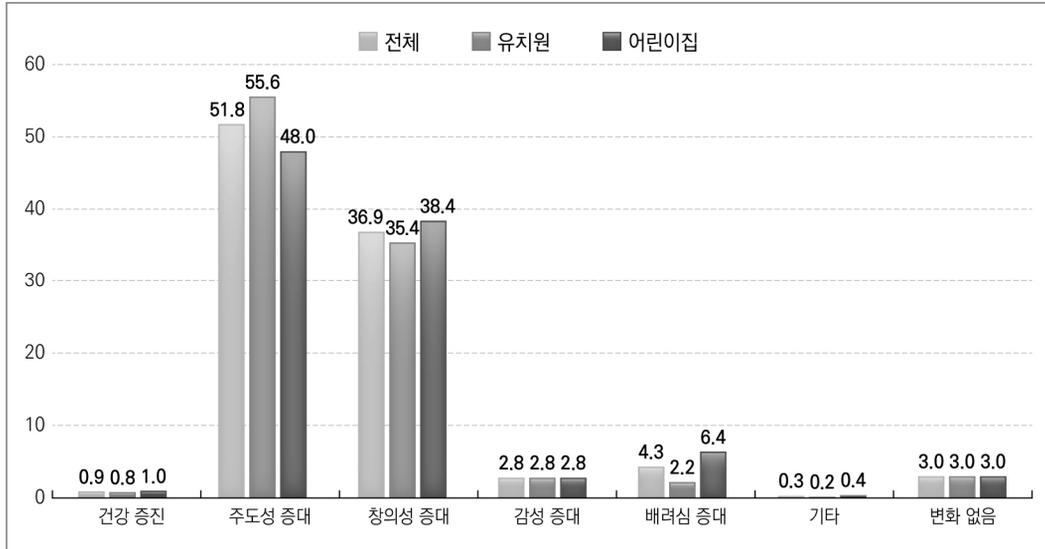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87. <표 IV-4-5>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해 유아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주도성 증대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창의성 증대임.
 - ◆ 주도성 증대는 유치원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으며, 창의성 증대와 배려심 증대는 어린이집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함.

[그림 13]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유아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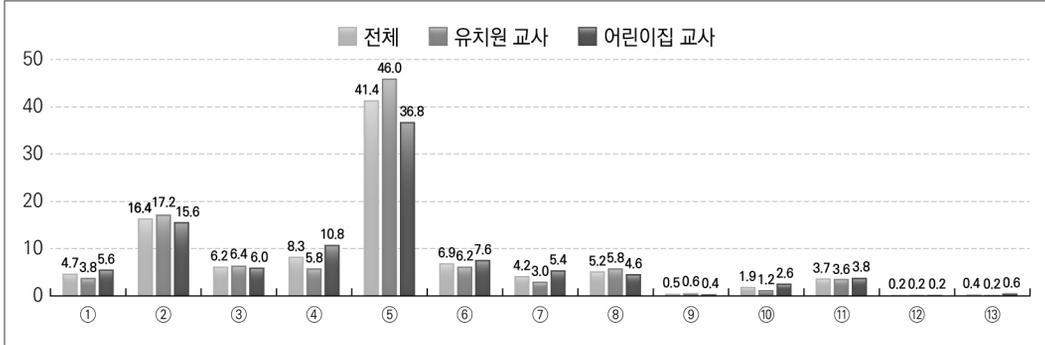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84-185. <표 IV-4-3>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다. 교사의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및 지원 요구

- 개정 누리과정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놀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이었으며, 2가지 모두 유치원 교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그림 14 참고).
 - ◆ 어린이집 교사는 물리적 환경의 열악함,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문서 작성 및 관리, 참고자료 부족,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에서 유치원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교사는 현장지원 자료 제작 및 보급이 29.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심화 연수 제공, 학습 공동체 지원 순임(그림 15 참고).
 - ◆ 어린이집 교사는 상대적으로 심화 연수 제공, 컨설팅 확대, 현장지원자료 제작 및 보급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그림 14]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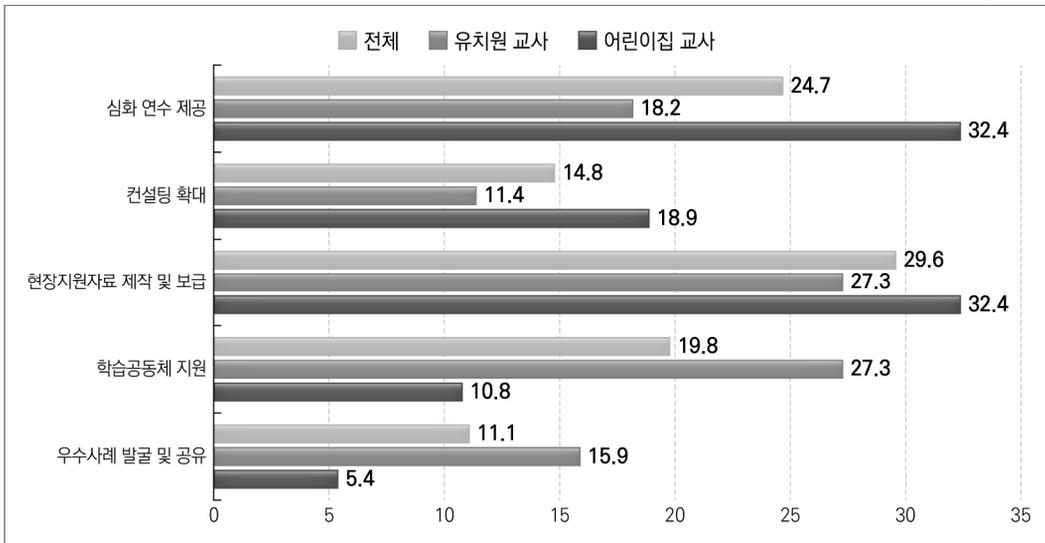


주: ①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② 놀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③ 기관 고유 프로그램과의 조화 ④ 물리적 환경이 열악함 ⑤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 ⑥ 계획안과 평가 등 문서 작성 및 관리 ⑦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 부족 ⑧ 부가적인 업무 부담 및 시간 부족 ⑨ 기관평가 대비 ⑩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⑪ 학부모의 이해 부족(학습에 대한 요구 등) ⑫ 기타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94. <표 IV-5-1>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그림 15]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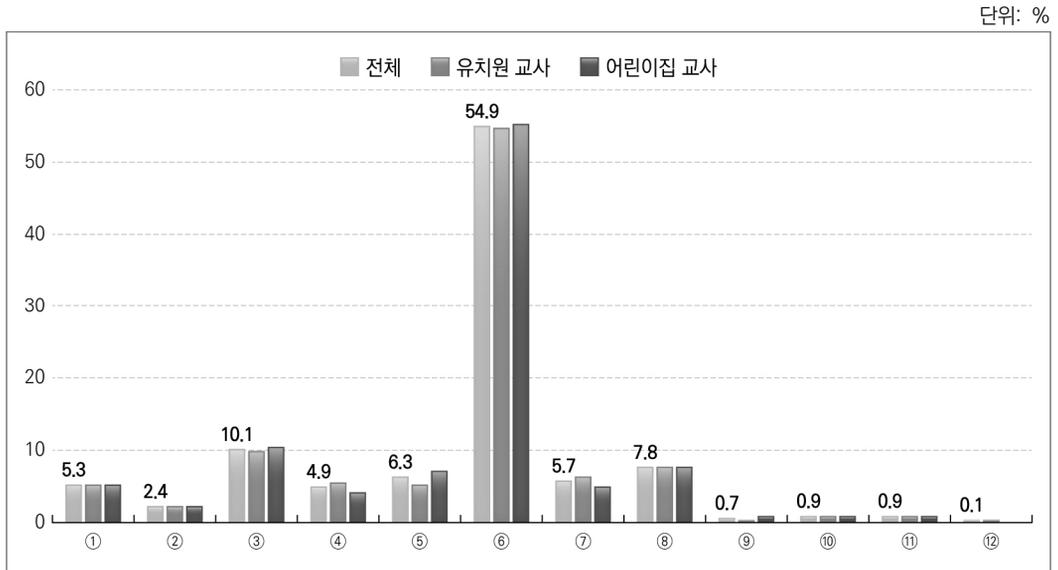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97. <표 IV-5-4>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적 요구에 대한 1순위는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 5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실내외 환경 개선 지원, 문서 등 행정관리 간소화, 관련자료 개발 및 보급 순임.

[그림 16]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1순위)



주: ① 교사 교육 강화 ② 원장 리더십 연수 제공 ③ 실내외 환경 개선 지원 ④ 「2019 개정 누리과정」 홍보 강화 ⑤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⑥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⑦ 보조인력 지원 ⑧ 문서 등 행정관리 간소화 ⑨ 기관 평가 지표 및 방법 개선 ⑩ 누리과정포털(i-누리) 활성화 ⑪ 교사 전문성 제고 활동을 위한 비용지원 ⑫ 기타

출처: 김은영 외(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98. <표 IV-5-5> 데이터 일부를 그래프로 구성함.

3

정책제언

가. 교사 대 유아 비율 하향화

- 개정 누리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유아 비율 하향화가 필요함.
 - ◆ 본 연구 결과,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가장 큰 어려움과 안착을 위한 제1순위 요구는 교사 대 유아 비율 하향화임.
 - ◆ 전국의 교사 대 유아 비율은 13명대로 OECD 평균과 유사하지만, 설립유형과 지역에 따른 격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큰 틀 안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 안에서 배경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차이를 둘 수 있음.
 - ◆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당 유아수는 시도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학급당 최대 인원수와 교사 대 유아 비율 최대치를 정하여 이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시도별 상황에 따라 최대치 안에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음.
 - ◆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 대 유아 비율 하향 조정은 곧 기관 운영비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학급당 최대 인원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할 때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보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나. 교사의 자율연수 기반 마련 및 내실화

- 교사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는 전문성 제고 활동들을 의무연수로 인정해주거나 학점이나 인센티브로 연계해주는 자율연구 기반 마련이 필요함.
 - ◆ 개정누리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실천적 지식과 가치를 통해 스스로 교육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인 장학이나 연수, 보수교육보다는 멘토링이나 맞춤형 컨설팅 형태의 지원, 교사 스스로 주도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의 방법이 더 유용함.
 - ◆ 교사의 자율연수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사의 자율연수를 하나의 체계로 모아 점수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연수은행제 시행을 제안함.

- ◆ 자율연수는 누리과정포털인 i-누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시도연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등 지역 연수기관과 협력하고, 누리과정포털 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나이스를 활용하여 교사의 연수 이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 자율연수와 병행하여 교사의 성장주기에 맞추어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하는 교육과정 관련 의무연수제도 도입이 필요함.
 - ◆ 의무연수를 위한 시간 보장과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의무연수 이외에 자율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추가 노력을 했을 경우 포상이나 직무점수 등 이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함.
 - ◆ 연수시간 공백을 위한 순회교사와 행정 지원인력 배치 등 교사의 자율연수를 위한 여건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일과시간이 길어서 교사의 자기연수를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오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배치와 함께 대체교사 지원 등을 통해 실제적인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개정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기관과 구성원 특성과 맥락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요구에 맞는 심화연수와 각 기관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 현장 여건 등으로 심화연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연수나 찾아가는 연수 등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야 함.
 - ◆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컨설턴트 전문 인력을 양산해 넘으로써 실제로 컨설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다. 현장지원자료 개발

- 개정 누리과정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현장의 상황과 맥락이 다양하여 현장지원자료 개발과 보급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 정부는 2020년부터 해설서,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를 비롯하여 다양한 놀이사례집 등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현장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2021년에도 여전히 현장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 이러한 맥락에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질의 자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라. 지원인력 배치

-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고 다른 교사와 협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지원인력 배치가 필요함.
 - ◆ 담임교사 외에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수석교사, 비담임교사, 순회교사, 대체교사 등의 인력과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인력, 행정인력 등 다양한 인력 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 사립유치원에는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행정인력에게 겸임수당을 주고 유치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유치원 교사의 업무가 되므로 사립유치원의 행정인력 배치와 병설유치원 전담 행정인력 배치가 필요함.
 - ◆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반에 배정된 것이 아니므로 보조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고, 비담임교사 등 추가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 지원뿐 아니라, 교사들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I 참고문헌 I

-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구자연·김혜진·전홍주·최명희(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 이경화(2019).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과 그 실천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량 탐색. *어린이 교육비평*, 9(2), 5-33. 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
- 정광순(2021).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 *통합교육과정연구*, 6(2), 109-132,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 조운주(2020).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 내용개발. *육아지원연구*, 15(4), 83-102, 한국육아지원학회.

| 이슈페이퍼 2022-09 |

교사 인식조사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실행 방안

최은영

1. 배경
 2.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3.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4. 논의 및 제언
 5. 기대 효과
- 참고문헌

교사 인식조사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실행 방안*

최은영 연구위원

◆◆ 요약 ◆◆

- ESD, SDGs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행 대상에서 영유아기는 그 동안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음. 본 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 실행 정도를 분석을 통해 ESD와 SDGs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영유아 부문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에 대한 인지 정도는 지속가능발전(S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용어는 지속가능발전이 가장 높았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가장 낮게 나타남. 한편 용어를 인지하게 된 주경로는 연수(연수자료)였으며, 다음으로 미디어, 양성과정이 높았음.
-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의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활용자료가 부족해서였고, 다음으로 정보/지식이 부족해서, 개정된 교육·보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연수 경험이 부족해서 순으로 나타남.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별 적용 정도는 안전이 가장 높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영유아기 경험과의 연계와 관련이 있음. ESDGs(Education for SDGs)의 실천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의 반영,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의 개발과 연계되어야 함.
-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홍보 및 지원 강화,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실행력 제고를 제안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0년 기본과제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방안(최은영·도남희·김은정·장혜진·김민주·이솔미, 2020)」를 기반으로 작성됨.

1 배경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혜택을 받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를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임(UNESCO, 2005).
 - ◆ 유엔은 2002년에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을 선포하였으며(UNESCO, 2004),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출발점이 유아기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2008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예테보리 권고안(The Gothenburg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명시됨으로 인하여 공고해짐(지옥정, 허미화, 백은주, 정미라, 2015: 24).
-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은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가치, 시행 방침을 모든 학습 과정에 통합시키는 것이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방향으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합의에 기반을 둠(UNESCO, 2004).
 - ◆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삶의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원칙을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Hedefalk, Almqvist & Ostman, 2013).
 - ◆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태다양성의 손실, 빈곤, 불평등과 같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교육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번의 통합적 요소이자, 모든 SDGs에 직접 관여됨(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2022. 8. 2. 인출).
-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임.
 -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함(지속가능발전포털, 2022. 8. 2. 인출).

[그림 1] 17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료: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app/index.do>)에서 2022. 8. 2 인출

- K-SDGs 체계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에 의해 수립되어 4대 전략,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로 구성됨.
 -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기후변화 등의 위협 속에서 미래 한국의 지속가능성 성장을 추동할 핵심 가치로 ‘혁신’을 반영하여 기존의 기존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였던 비전을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국가 실현”으로 변경함(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2022).
 - ◆ 영유아기와 직접 관련 있는 목표는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4-1(변경)의 지표1, 4-2의 지표 1~4에 해당함.

[그림 2] K-SDGs 체계



자료: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2022). 2022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p. 9.

-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E)의 후속조치로 ESD 국제실천프로그램(GAP: Global Action Programme on ESD, 2014-2019)을 마련, 모든 영역의 교육과 학습에서 ESD를 강화함.
 - ◆ 2018년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실천프로그램(GAP)이 만료 1년 전임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ESD는 2015년에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하여 SDGs 이행에 주안점을 두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하고, ESDGs (Education for SDGs)를 주창함.

- ◆ ESDGs는 SDG 4뿐만 아니라 SDGs 전체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교육의 질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함. 따라서 SDGs 맥락에서 ESD는 환경교육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교육 전반의 노력으로 정의됨(문무경, 박원순, 김영민, 2019: 115).

[그림 3] 한 눈에 보는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로드맵, p. 54.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한 법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 2008년 녹색성장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녹색성장교육으로 개념이 전환되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범위가 환경교육 혹은 녹색성장교육으로 축소되거나 혼용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유영의, 김은정, 신은수, 박은혜, 2013: 78).
-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전 속도는 초·중등교육에 비해 더딘 것으로 보고됨(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4).
 -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방법과 실태 조사(지옥정 외, 2015)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김숙자, 홍희주, 김현정, 한미선, 2014; 유영의 외, 2013), 교사의 인식 조사 및 교육과정의 방향(백은주, 정미라, 허미화, 지옥정, 2014; 신은수, 박은혜, 2012) 등이 수행됨.
-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지승현, 남영숙, 2007).
 - ◆ 서현정과 조부경(2015)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 배경 등에 대한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이해 없이 현장 적용을 서둘러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용어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합의가 부족하고, 개념에 대한 불명확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함.
 - ◆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사회·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에 대한 이해와 가치 및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 본 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 실행 정도를 분석함.
 - ◆ ESD, SDGs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행 대상에서 영유아기는 그 동안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음. 이를 통해 ESD와 SDGs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영유아 부문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¹⁾

가. 관련 용어에 대한 인지

■ 지속가능발전(SD) 용어 인지

- ◆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 중, 지속가능발전(SD)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N=1,280)의 약 80%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83.3%,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94.2%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 국공립 교사의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국공립 교사들은 주로 관련 연수를 통해서 용어를 접한 것으로 해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지도로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 지속가능발전(SD) 용어 인지 여부

구분	예	아니오	계	사례 수
전체	80.7	19.3	100.0	(1,280)
어린이집				
국공립	83.3	16.8	100.0	(400)
국공립 외	72.3	27.8	100.0	(400)
$\chi^2(df)$		13.989(1)***		
유치원				
국공립	94.2	5.8	100.0	(240)
사립	77.1	22.9	100.0	(240)
$\chi^2(df)$		28.452(1)***		

단위 : %(명)

*** $p < .001$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용어 인지

-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5%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57%,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61.7%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1) 유치원 교사 480명, 어린이집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인지도로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가능발전(SD)과 유사하게 공립 교사들의 인지도가 높았으나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인지도는 약 59%로 높게 나타남.

〈표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용어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사례 수
전체	54.8	45.2	100.0	(1,280)
어린이집				
국공립	57.0	43.0	100.0	(400)
국공립 외	46.3	53.8	100.0	(400)
$\chi^2(df)$		9.255(1)**		
유치원				
국공립	61.7	38.3	100.0	(240)
사립	58.8	41.3	100.0	(240)
$\chi^2(df)$		0.426(1)		

** $p < .01$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용어 인지

- ◆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해서는 65.9%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62.8%,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88.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한 인지도 공립 교사들이 높았으며, 특히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인지도는 약 90%로 높게 나타남

〈표 3〉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용어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사례 수
전체	65.9	34.1	100.0	(1,280)
어린이집				
국공립	62.8	37.3	100.0	(400)
국공립 외	55.8	44.3	100.0	(400)
$\chi^2(df)$		4.0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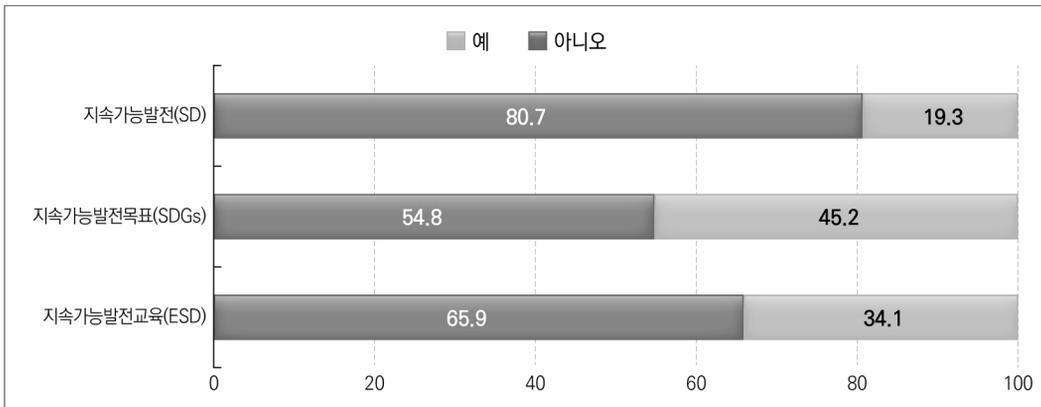
구분	예	아니오	계	사례 수
유치원				
국공립	88.8	11.3	100.0	(240)
사립	65.4	34.6	100.0	(240)
$\chi^2(df)$		36.985(1)***		

* $p < .05$, *** $p < .001$

■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 인지

- ◆ 지속가능발전(S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속가능발전이 8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65.9%, 지속가능발전목표가 54.8%로 나타남.

[그림 4]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 인지 여부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지

- ◆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에 대해서는 성평등이 65.2%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시설 기반 및 R&D가 21.1%로 가장 낮았음. 한편, 응답자의 50%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목표는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관리,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인권/정의/평화로 나타남.

〈표 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정확히 알지 못함	모름	계	사례 수
①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38.6	48.2	13.2	100.0	(1,280)
② 기아 종식	34.8	47.9	17.3	100.0	(1,280)
③ 건강과 웰빙	57.9	32.7	9.4	100.0	(1,280)
④ 양질의 교육	57.7	33.7	8.7	100.0	(1,280)
⑤ 성평등	65.2	27.3	7.5	100.0	(1,280)
⑥ 깨끗한 물관리	56.9	34.5	8.6	100.0	(1,280)
⑦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57.7	33.5	8.8	100.0	(1,280)
⑧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49.8	39.7	10.5	100.0	(1,280)
⑨ 사회시설 기반 및 R&D	21.1	52.7	26.3	100.0	(1,280)
⑩ 불평등 해소	51.6	37.7	10.7	100.0	(1,280)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32.3	48.9	18.8	100.0	(1,280)
⑫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43.5	43.2	13.3	100.0	(1,280)
⑬ 기후변화 대응	55.3	34.6	10.1	100.0	(1,280)
⑭ 해양생태계 보전	45.6	41.6	12.8	100.0	(1,280)
⑮ 육상생태계 보전	35.6	46.3	18.0	100.0	(1,280)
⑯ 인권, 정의, 평화	54.7	36.2	9.1	100.0	(1,280)
⑰ 지구촌 협력 강화	43.4	43.3	13.4	100.0	(1,28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중요도

- ◆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시설 기반 및 R&D를 제외한 16개 목표에 대해서 평균 4점(5점 척도) 이상으로 나타났고, 중요하다(대체로+매우)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70%로 나타남. 한편, 사회시설 기반 및 R&D가 중요하다(대체로+매우)고 응답한 비율은 69.5%로 가장 낮았음.

〈표 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요 정도							중요 하지 않음	평균 (점)	사례 수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①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0.8	2.1	18.4	35.8	43.0	78.8	18.4	2.9	4.18	(1,280)
② 기아 종식	0.8	1.6	23.7	37.1	36.8	73.9	23.7	2.4	4.08	(1,280)
③ 건강과 웰빙	0.5	0.7	12.2	33.4	53.2	86.6	12.2	1.3	4.38	(1,280)
④ 양질의 교육	0.6	0.9	8.4	27.6	62.4	90.0	8.4	1.6	4.50	(1,280)
⑤ 성평등	0.8	0.2	8.7	28.4	61.9	90.3	8.7	1.0	4.50	(1,280)
⑥ 깨끗한 물관리	0.7	0.6	9.4	27.3	62.0	89.3	9.4	1.3	4.49	(1,280)
⑦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0.7	0.7	11.4	29.8	57.3	87.2	11.4	1.4	4.42	(1,280)
⑧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1.6	4.3	20.2	34.2	39.7	73.9	20.2	5.9	4.06	(1,280)
⑨ 사회시설 기반 및 R&D	1.2	3.5	25.9	38.5	30.9	69.5	25.9	4.7	3.95	(1,280)
⑩ 불평등 해소	0.5	1.6	13.5	33.0	51.3	84.3	13.5	2.2	4.33	(1,280)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2	3.0	21.2	39.1	35.5	74.6	21.2	4.2	4.05	(1,280)
⑫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1.0	2.7	21.1	38.4	36.8	75.2	21.1	3.8	4.07	(1,280)
⑬ 기후변화 대응	0.5	1.3	11.5	30.9	55.9	86.8	11.5	1.7	4.40	(1,280)
⑭ 해양생태계 보전	0.5	2.0	15.0	33.8	48.6	82.4	15.0	2.6	4.28	(1,280)
⑮ 육상생태계 보전	0.9	1.2	15.9	33.7	48.4	82.0	15.9	2.0	4.28	(1,280)
⑯ 인권, 정의, 평화	0.5	0.6	10.5	31.6	56.7	88.3	10.5	1.2	4.43	(1,280)
⑰ 지구촌 협력 강화	0.5	1.7	17.9	39.4	40.5	79.9	17.9	2.2	4.18	(1,280)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내용별 필요성

-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계/국가적 책임과 천연자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4점 이상(5점 척도)으로 필요하다고 응답됨. 평화와 문화다양성이 4.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세계/국제적 책임이 3.8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4점 이상은 인권, 안전, 문화 다양성, 건강과 식품, 양성평등, 환경문제, 교통임.

〈표 6〉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내용별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지속가능발전교육 필요성							필요 하지 않음	평균 (점)	사례 수
	전혀 필요 하지 않음	별로 필요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인권	0.2	1.6	15.5	33.4	49.2	82.7	15.5	1.8	4.30	(1,280)
평화	0.1	0.6	9.1	21.9	68.4	90.2	9.1	0.7	4.58	(1,280)
안전	0.0	0.8	12.1	29.9	57.2	87.1	12.1	0.8	4.44	(1,280)
문화 다양성	0.0	0.9	8.7	22.3	68.0	90.4	8.7	0.9	4.58	(1,280)
사회정의	0.1	0.6	9.7	29.8	59.8	89.6	9.7	0.7	4.49	(1,280)
건강과 식품	0.2	0.8	12.2	30.6	56.2	86.8	12.2	1.0	4.42	(1,280)
양성평등	0.0	0.5	9.8	29.8	59.8	89.7	9.8	0.5	4.49	(1,280)
시민참여	0.2	0.4	12.6	27.9	58.9	86.8	12.6	0.6	4.45	(1,280)
소양	0.1	1.3	13.9	33.4	51.3	84.7	13.9	1.4	4.34	(1,280)
세계, 국제적 책임	0.5	4.2	27.4	41.0	26.8	67.8	27.4	4.8	3.89	(1,280)
천연자원	0.3	4.3	25.6	41.3	28.5	69.8	25.6	4.6	3.93	(1,280)
에너지	0.2	1.3	12.1	33.7	52.7	86.4	12.1	1.5	4.38	(1,280)
기후변화	0.4	1.4	15.6	39.2	43.4	82.6	15.6	1.8	4.24	(1,280)
생물 다양성	0.0	1.1	13.4	30.3	55.2	85.5	13.4	1.1	4.40	(1,280)
환경문제	0.0	1.0	13.4	35.2	50.3	85.5	13.4	1.0	4.35	(1,280)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0.1	0.5	9.8	24.5	65.2	89.7	9.8	0.5	4.54	(1,280)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0.2	0.9	16.3	37.7	44.8	82.6	16.3	1.1	4.26	(1,280)
재해예방 및 감소	0.1	0.6	13.1	37.6	48.6	86.2	13.1	0.7	4.34	(1,280)
교통	0.2	1.4	14.5	33.5	50.3	83.8	14.5	1.6	4.32	(1,280)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0.0	0.5	10.8	31.2	57.5	88.7	10.8	0.5	4.46	(1,280)
시장 경제	0.3	1.9	20.2	37.8	39.8	77.7	20.2	2.2	4.15	(1,280)
빈부격차 완화	0.1	2.0	19.1	44.8	34.0	78.8	19.1	2.1	4.11	(1,280)
기업의 지속가능성	0.3	2.7	24.9	39.7	32.3	72.0	24.9	3.0	4.01	(1,280)

3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실행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내용별 적용 정도

-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별 적용 정도는 안전이 4.21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3.03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7〉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내용별 적용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정도						적용 보통	적용 하지 않음	평균 (점)	사례 수
	전혀 적용 하지 않음	별로 적용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적용함	매우 적용함	적용				
인권	0.2	1.8	19.5	35.9	42.7	78.6	19.5	2.0	4.19	(1,280)
평화	0.3	3.9	25.9	38.6	31.3	69.9	25.9	4.2	3.97	(1,280)
안전	0.0	1.9	18.6	36.6	42.9	79.5	18.6	1.9	4.21	(1,280)
문화 다양성	0.1	2.9	23.0	41.1	33.0	74.1	23.0	3.0	4.04	(1,280)
사회정의	0.5	4.2	24.9	41.2	29.1	70.3	24.9	4.8	3.94	(1,280)
건강과 식품	0.2	2.6	19.7	40.9	36.6	77.5	19.7	2.8	4.11	(1,280)
양성평등	0.5	2.5	23.7	37.0	36.3	73.3	23.7	3.0	4.06	(1,280)
시민참여	0.4	5.9	30.9	39.4	23.4	62.7	30.9	6.3	3.79	(1,280)
소양	2.9	10.8	41.3	34.1	10.9	45.1	41.3	13.7	3.39	(1,280)
세계, 국제적 책임	3.0	15.9	43.4	27.7	10.0	37.7	43.4	19.0	3.26	(1,280)
천연자원	0.9	7.0	30.5	38.4	23.3	61.6	30.5	7.8	3.76	(1,280)
에너지	1.6	9.0	35.1	37.7	16.6	54.3	35.1	10.6	3.59	(1,280)
기후변화	0.9	5.7	29.7	39.6	24.1	63.8	29.7	6.6	3.80	(1,280)
생물 다양성	0.9	5.9	31.2	38.4	23.6	62.0	31.2	6.8	3.78	(1,280)
환경문제	0.1	3.3	21.8	39.4	35.5	74.8	21.8	3.4	4.07	(1,280)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1.4	9.6	33.8	34.9	20.3	55.2	33.8	11.0	3.63	(1,280)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0.5	4.7	27.0	42.0	25.9	67.9	27.0	5.2	3.88	(1,280)
재해예방 및 감소	0.5	5.5	27.8	38.8	27.3	66.2	27.8	6.0	3.87	(1,280)
교통	0.2	2.3	20.1	39.1	38.4	77.5	20.1	2.4	4.13	(1,280)

구분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정도							적용 하지 않음	평균 (점)	사례 수
	전혀 적용 하지 않음	별로 적용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적용함	매우 적용함	적용	보통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6	9.8	37.7	34.4	16.6	50.9	37.7	11.4	3.54	(1,280)
시장 경제	1.0	8.4	39.5	35.2	15.8	51.0	39.5	9.5	3.56	(1,280)
빈부격차 완화	3.1	14.8	43.3	28.8	10.0	38.8	43.3	18.0	3.28	(1,280)
기업의 지속가능성	7.7	21.4	39.4	23.2	8.4	31.6	39.4	29.1	3.03	(1,280)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내용별 활동 수

-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내용별 해당하는 활동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은 인권이 1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0.2%로 가장 낮았음.
-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인권, 평화, 안전, 문화 다양성, 건강과 식품, 환경문제, 교통이었으며, 빈부격차 완화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1% 이하로 나타남.

〈표 8〉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내용별 적용 활동 수(오픈응답): 어린이집

단위: 회(%)

구분	만1세 (0~1세) 이하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계	비율
전체	482	518	486	496	508	2,490	(100.0)
① 인권	80	76	83	72	89	400	(16.1)
② 평화	29	36	37	42	35	179	(7.2)
③ 안전	56	55	64	46	44	265	(10.6)
④ 문화 다양성	28	36	34	38	40	176	(7.1)
⑤ 사회정의	18	14	24	16	16	88	(3.5)
⑥ 건강과 식품	42	54	40	46	36	218	(8.8)
⑦ 양성평등	22	25	18	15	20	100	(4.0)
⑧ 시민참여	13	11	7	11	18	60	(2.4)
⑨ 소양	6	2	6	6	8	28	(1.1)
⑩ 세계, 국제적 책임	4	8	3	6	8	29	(1.2)
⑪ 천연자원	21	28	17	24	21	111	(4.5)
⑫ 에너지	16	11	5	15	9	56	(2.2)

구분	만1세 (0~1세) 이하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계	비율
⑬ 기후변화	22	16	17	23	30	108	(4.3)
⑭ 생물 다양성	13	14	12	15	16	70	(2.8)
⑮ 환경문제	25	33	28	34	37	157	(6.3)
⑯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8	16	15	12	9	60	(2.4)
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16	21	22	12	7	78	(3.1)
⑱ 재해예방 및 감소	12	10	12	15	10	59	(2.4)
⑲ 교통	34	27	27	30	27	145	(5.8)
⑳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5	10	2	5	6	28	(1.1)
㉑ 시장 경제	6	8	7	11	15	47	(1.9)
㉒ 빈부격차 완화	5	5	5	2	6	23	(0.9)
㉓ 기업의 지속가능성	1	2	1	0	1	5	(0.2)

- ◆ 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인권이 1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0.3%로 가장 낮음.
-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권, 평화, 안전, 문화 다양성, 건강과 식품, 기후 변화, 환경문제, 교통이었으며, 소양,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1% 이하로 나타남.

〈표 9〉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내용별 적용 활동 수(오픈응답): 유치원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비율
전체	436	470	579	1,485	(100.0)
① 인권	67	69	85	221	(14.9)
② 평화	33	33	42	108	(7.3)
③ 안전	47	43	48	138	(9.3)
④ 문화 다양성	30	36	53	119	(8.0)
⑤ 사회정의	13	17	23	53	(3.6)
⑥ 건강과 식품	21	26	33	80	(5.4)
⑦ 양성평등	17	27	23	67	(4.5)
⑧ 시민참여	13	9	16	38	(2.6)
⑨ 소양	4	4	3	11	(0.7)
⑩ 세계, 국제적 책임	4	2	14	20	(1.3)
⑪ 천연자원	21	18	24	63	(4.2)
⑫ 에너지	14	19	25	58	(3.9)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비율
⑬ 기후변화	22	24	29	75	(5.1)
⑭ 생물 다양성	10	13	16	39	(2.6)
⑮ 환경문제	37	53	48	138	(9.3)
⑯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7	11	15	33	(2.2)
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13	6	15	34	(2.3)
⑱ 재해예방 및 감소	10	10	7	27	(1.8)
⑲ 교통	27	26	32	85	(5.7)
⑳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7	6	4	17	(1.1)
㉑ 시장 경제	12	12	15	39	(2.6)
㉒ 빈부격차 완화	4	5	8	17	(1.1)
㉓ 기업의 지속가능성	3	1	1	5	(0.3)

■ 개정된 교육·보육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개정된 교육·보육과정(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적용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8%임. 한편,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로 나타났으며, 평균 3.56점(5점 척도)임. ESD 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의 어려움은 차이가 있음.

〈표 10〉 개정된 교육·보육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적용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어려움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평균 (점)	사례 수	F/t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3.5	41.3	34.5	9.1	1.6	10.7	34.5	54.8	3.56	(1,280)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0~1세)이하	13.8	45.0	31.9	8.1	1.3	9.4	31.9	58.8	3.62	(160)		
만2세	17.5	42.5	23.8	13.1	3.1	16.3	23.8	60.0	3.58	(160)		
만3세	15.0	39.4	34.4	10.0	1.3	11.3	34.4	54.4	3.57	(160)	0.668	
만4세	14.4	46.3	31.9	6.9	0.6	7.5	31.9	60.6	3.67	(160)		
만5세	12.5	36.3	43.1	6.3	1.9	8.1	43.1	48.8	3.51	(160)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10.6	40.6	40.6	6.3	1.9	8.1	40.6	51.3	3.52	(160)		
만4세	8.8	38.1	38.8	13.1	1.3	14.4	38.8	46.9	3.40	(160)	2.363	
만5세	15.6	42.5	31.3	8.8	1.9	10.6	31.3	58.1	3.61	(160)		

구분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어려움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평균 (점)	사례 수	F/t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8.5	41.2	41.7	8.1	0.5	8.5	41.7	49.8	3.49	(211)	0.511
3~5년 미만	14.7	39.5	36.1	9.2	0.4	9.7	36.1	54.2	3.59	(238)	
5~10년 미만	12.2	43.7	34.6	7.5	2.0	9.5	34.6	55.9	3.57	(451)	
10년 이상	17.1	39.7	29.2	11.3	2.6	13.9	29.2	56.8	3.57	(380)	
ESD 인지 여부											
예	12.3	42.2	32.9	10.4	2.1	12.6	32.9	54.5	3.52	(844)	2.168*
아니오	15.8	39.7	37.4	6.4	0.7	7.1	37.4	55.5	3.64	(436)	

* $p < .05$

- ◆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이 어렵다고 응답한(N=702) 경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활용자료가 부족해서가 28.3%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정보/지식이 부족해서 26.8%, 개정된 교육·보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18.7%, 연수경험이 부족해서 10.5%, 시간이 부족해서 8.8%, 관심이 없어서 3.7%로 순으로 나타남.

〈표 1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적용이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구분	활용 자료 부족	정보 /지식 부족	개정된 교육·보육 과정 미반영	연수경험 부족	시간 부족 (활동 준비 시간 등)	관심부족	기타	계	사례 수
전체	28.3	26.8	18.7	10.5	8.8	3.7	3.1	100.0	(702)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0~1세)이하	25.5	34.0	17.0	14.9	3.2	2.1	3.2	100.0	(94)
만2세	29.2	26.0	21.9	9.4	6.3	4.2	3.1	100.0	(96)
만3세	32.2	19.5	21.8	5.7	9.2	9.2	2.3	100.0	(87)
만4세	30.9	22.7	17.5	18.6	7.2	1.0	2.1	100.0	(97)
만5세	32.1	28.2	14.1	10.3	7.7	3.8	3.8	100.0	(78)
$\chi^2(df)$	27.282(24)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18.3	40.2	20.7	3.7	12.2	1.2	3.7	100.0	(82)
만4세	28.0	24.0	22.7	8.0	12.0	2.7	2.7	100.0	(75)

구분	활용 자료 부족	정보 /지식 부족	개정된 교육·보육 과정 미반영	연수경험 부족	시간 부족 (활동 준비 시간 등)	관심부족	기타	계	사례 수
만5세	30.1	20.4	14.0	11.8	14.0	5.4	4.3	100.0	(93)
$\chi^2(df)$	17.803(12)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18.1	29.5	20.0	14.3	14.3	2.9	1.0	100.0	(105)
3~5년 미만	29.5	28.7	17.1	10.1	9.3	1.6	3.9	100.0	(129)
5~10년 미만	30.2	24.6	19.0	9.9	7.9	4.8	3.6	100.0	(252)
10년 이상	30.6	26.9	18.5	9.7	6.9	4.2	3.2	100.0	(216)
$\chi^2(df)$	16.839(18)								
ESD 인지 여부									
예	29.8	24.8	18.5	11.7	9.1	3.3	2.8	100.0	(460)
아니오	25.6	30.6	19.0	8.3	8.3	4.5	3.7	100.0	(242)
$\chi^2(df)$	6.043(6)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적용을 위한 지원 방식

-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적용을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방식으로는 동영상 자료 보급이 39.6%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연수가 18%, 관련 책자 배포 16.5%, 사례공유 워크숍이 14.8%, 학습공동체 6.6%, 동료 멘토링 3.9% 순으로 나타남.

〈표 12〉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적용을 위해 도움이 되는 지원 방식

단위 : %(명)

구분	동영상 자료 보급	연수	관련 책자 배포	사례공유 워크숍	학습 공동체	동료 멘토링	기타	계	사례 수
전체	39.6	18.0	16.5	14.8	6.6	3.9	0.6	100.0	(1,280)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0~1세)이하	28.1	26.9	18.8	13.8	7.5	5.0	0.0	100.0	(160)
만2세	31.9	18.1	24.4	18.1	3.1	4.4	0.0	100.0	(160)
만3세	34.4	16.9	21.3	11.9	8.1	6.9	0.6	100.0	(160)
만4세	39.4	17.5	15.6	11.9	8.8	5.0	1.9	100.0	(160)
만5세	43.8	21.9	13.1	12.5	6.3	1.9	0.6	100.0	(160)
$\chi^2(df)$	37.619(24)*								

구분	동영상 자료 보급	연수	관련 책자 배포	사례공유 워크숍	학습 공동체	동료 멘토링	기타	계	사례 수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38.1	13.8	16.3	16.3	9.4	5.0	1.3	100.0	(160)
만4세	50.6	13.1	14.4	13.1	5.6	3.1	0.0	100.0	(160)
만5세	50.6	16.3	8.1	20.6	3.8	0.0	0.6	100.0	(160)
$\chi^2(df)$	25.143(12)*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36.5	15.2	18.5	15.6	7.6	6.2	0.5	100.0	(211)
3~5년 미만	37.0	16.8	21.0	13.9	6.3	3.4	1.7	100.0	(238)
5~10년 미만	42.6	18.0	16.4	12.0	7.1	3.5	0.4	100.0	(451)
10년 이상	39.5	20.5	12.6	18.2	5.5	3.4	0.3	100.0	(380)
$\chi^2(df)$	26.714(18)								
ESD 인지 여부									
예	39.5	17.4	15.9	16.0	6.3	4.1	0.8	100.0	(844)
아니오	39.9	19.3	17.7	12.4	7.1	3.4	0.2	100.0	(436)
$\chi^2(df)$	5.977(6)								

* $p < .05$

4 논의 및 제언

-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홍보 강화
 -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에 대한 인지 정도는 지속가능발전(S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용어는 지속가능발전이 가장 높았으며,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가장 낮게 나타남. 한편 용어를 인지하게 된 주경로는 연수(연수자료)였으며, 다음으로 미디어, 양성과정이 높았음.
 - ◆ 또한 ESD 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의 어려움은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용어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근간이 될 수 있음.

-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나 관점을 고려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관련 용어의 주인지 경로가 연수(연수자료), 미디어의 응답 비율을 고려하여 홍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정보와 자료 개발 및 보급
 - ◆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의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활용자료가 부족해서였고, 다음으로 정보/지식이 부족해서, 개정된 교육·보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연수 경험이 부족해서 순으로 나타남.
 - ◆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들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의 정보와 자료가 개발·보급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보육과정에서의 적극적 반영, 연수자료 개발 및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함.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의 연계 강화
 -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별 적용 정도는 안전이 가장 높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영유아기 경험과의 연계와 관련이 있음. ESDGs(Education for SDGs)의 실천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의 반영,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의 계발과 연계되어야 함.
 - ◆ 유엔 총회 결의안 74/233(2019)에서는 국가들에게 자국 내 ESD 이행 강화를 촉구할 것을 강조한 반면, 유엔 총회 결의안 72/222(2017)는 ESD를 'SDG 4번 목표의 필수 요소이자 다른 모든 SDGs의 핵심원동력'으로 명시하고, ESD는 다음의 목표들을 위해 지식, 인식 및 행동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그림 5] 2030을 위한 ESD



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로드맵. p. 17.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목표의 평가와 모니터링과 연계한 실행력 제고 지원
 -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점검 및 지표평가 결과에 의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비율’, ‘특수 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초중등 전문 상담교사 배치 비율’이 모두 2040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2022).

〈표 13〉 K-SDGs 목표별 세부목표 및 지표: 목표4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4-1 (변경)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1) 취학률	신설
		(2)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2-6수준 학생 비율)	수정
		(3) 국가수준 학습성과지표 산출	유지 (단순지표명수정)

번호	세부목표	지표	비고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유지
		(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유지
		(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유지
		(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자료: 관계부처합동(2022).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p. 48. 지속가능발전포털(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2022. 9. 19 인출.

- ◆ 영유아 관련 지표들 중 취학률은 2021년 기준, 50.6%(유치원만 해당)로 2017년 이후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50% 내외를 유지함. 한편 0-5세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 수준은 4점 만점에 2.14~2.32점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아의 취원율은 2020년 기준 92.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됨.
-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5 기대 효과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제는 초기 환경 문제에 치중하였지만 현재는 환경적 영역(자연 및 인공자원과 생태적 시스템 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인권, 성 평등, 평화, 안전, 고용 등), 경제적 영역(책무성, 빈곤 감소, 협력적 책임감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Somerville & Williams, 2015).
- ◆ 다양한 주제는 유아의 일상적 삶에 통합되어 유아가 경험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기관이나 교사 주도의 활동이 아니라 계획에서부터 유아가 참여하고, 유아의 의견을 계속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이벤트식의 활동 체험이 아닌 긴 호흡의 활동이 이루어짐.

- ◆ 활동의 과정에 유아가 계속 참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일상적인 수준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방향과 이해에 기반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이며, 윤리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 ◆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자신에 대한 이해, 이웃이나 사회와의 연결, 간학문적 사고, 민주적·통합적 사회적 과정, 주도적 학습,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지역사회와의 연결, 미래지향, 행동 실천 등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교사의 근본적인 사고체제가 변하는 것이 중요함.
 - ◆ 이러한 사고의 토대 없이는 단순히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제시하는 예시를 반복하거나 교육과정에 맞추어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지식과 실천 방식을 이해하여 유아의 맥락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함.

Ⅰ 참고 문헌 Ⅰ

- 관계부처합동(2022).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p. 48. 지속가능발전포털(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2022. 9. 19 인출.
- 김숙자, 홍희주, 김현정, 한미선(2014).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의 공존지향적 유아교육에서의 교육 내용 분석: 만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8(5), 527-540.
- 문무경, 박원순, 김영민(2019). 지속가능발전 SDG 4.2 국내 이행 전략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백은주, 정미라, 허미화, 지옥정(2014).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교사의 물교육 실태, 인식 및 요구. 어린이미디어연구, 13(1), 191-221.
- 서현정, 조부경(2015).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35(6), 241-269.
- 신은수, 박은혜(2012).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과정의 재방향 설정. 육아지원연구, 7(1), 27-50.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로드맵.
- 유영의, 김은정, 신은수, 박은혜(2013).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한국의 교육정책 및 현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3), 319-341.
- 지승현, 남영숙(2007).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방향 탐색. 환경교육, 20(1), 62-72.
- 지옥정, 허미화, 백은주, 정미라(2015). 우리나라 유치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실태 조사. 한국영유아보육학, 90, 23-52.
-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2022). 2022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점검 및 지표평가 결과 -.
- Hedefalk, M., Almqvist, J., & Östman, L. (2013).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21(7), 975-990.
- Somerville, M., & Williams, C. (2015). Sustainability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An updated review of research in the field. *Contemporary Issues in Early Childhood*, 16(2), 102-117.

UNESCO (2005).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 Paris, France: UNESCO.

<웹사이트>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app/index.do>)에서 2022. 8. 2. 인출

| 이슈페이퍼 2022-10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

유해미

1. 배경 및 문제점
 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과 지원요구
 3. 정책 제언
 4. 기대효과
- 참고문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필요한 돌봄시간보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이고, 영유아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2%로 조사되어 이들 가구의 돌봄 공백이 우려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주요 대상은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 후과정의 접근성 보장에도 불구하고 자녀돌봄의 공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가구이며, 이외에도 자녀가 아픈 경우, 야간 및 주말에 근로하는 맞벌이 가구 등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를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제고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인계 등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원화가 요구되며, 관할부처는 물론, 시·도 및 시·군·구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협업체계 구축이 요구됨.

1

배경 및 문제점

-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 유치원에서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서비스의 공급만으로 돌봄 공백을 온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 ◆ 어린이집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이른 하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여 16시까지 운영되는 기본보육 이후에 19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지원하고 있음.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기본과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 방안 연구(유해미·박진아·엄지원, 2021)」를 기반으로 작성됨.

- ◆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 이후에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유아교육법」 제12조, 제13조), 세부 운영기준 등은 시·도교육청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정부에서는 촘촘한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제시함.
 - ◆ 아이돌봄서비스는 제도 도입 당시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즉,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양육 공백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이후 영아자녀의 가정내보육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등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함(여성가족부, 2022: 8).
 - ◆ 특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시설이용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등원하기 힘든 경우에 긴급하게 지원되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지원이 증가¹⁾함(여성가족부, 2019. 10. 1).
- 이 같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만함.

1) 2019년 1월 기준으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건수가 28,994건으로 전년 동기 14,209건 대비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여성가족부, 2019. 10. 1).

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과 지원요구²⁾

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및 수요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가 주중에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6%이고, 맞벌이 가구의 해당 비율은 35.5%로 상대적으로 높음.
- ◆ 주중에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기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공히 31.1%로 조사되어 해당 서비스의 공급만으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 주말에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1%로 주중보다 높게 나타나서 주말의 돌봄 공백이 더욱 우려됨.

〈표 1〉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단위: %(명)

구분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계(수)
	부족하게 이용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	더 길게 이용	
전체	30.6	66.3	3.1	100.0 (1,6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5.5	60.7	3.8	100.0 (1,092)
홀벌이 가구	20.4	77.8	1.8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23.1	76.9	0.0	100.0 (26)
$\chi^2(df)$	47.191(4)***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31.1	63.4	5.4	100.0 (514)
연장보육 미이용	28.8	69.2	2.0	100.0 (607)

2) 이하 내용은 2021년에 수행한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 방안 연구”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며, 어린이집 이용가구 1,121사례와 유치원 이용가구 502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구분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계(수)
	부족하게 이용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	더 길게 이용	
방과후과정 이용	31.1	67.5	1.3	100.0 (302)
방과후과정 미이용	34.0	63.0	3.0	100.0 (200)
$\chi^2(df)$	18.031(6)**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34~135 재구성.

** $p < .01$, *** $p < .001$.

〈표 2〉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단위: %(명)

구분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계(수)
	부족하게 이용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	더 길게 이용	
전체	41.1	54.8	4.2	100.0 (168)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42.1	54.3	3.6	100.0 (140)
홀벌이 가구	35.7	57.1	7.1	100.0 (28)
모두 근로 안함	-	-	-	- -
$\chi^2(df)$	0.984(2)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43.0	53.8	3.2	100.0 (93)
연장보육 미이용	37.8	59.5	2.7	100.0 (37)
방과후과정 이용	40.0	60.0	0.0	100.0 (30)
방과후과정 미이용	37.5	25.0	37.5	100.0 (8)
$\chi^2(df)$	24.794(6)***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38~139 재구성.

*** $p < .001$.

- 필요한 시간보다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이유로는 1순위와 2순위 응답률을 합하여 ‘기관의 운영시간이 퇴근시각이 맞지 않아서’ 54.7%, ‘기관에 아이가 홀로 남겨지는 것이 염려되어서’ 50.4%, ‘장기간 보육이 발달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37.5%, ‘기관의 운영시간이 출근시각과 맞지 않아서’ 33.6% 순으로 조사됨.
 - ◆ 단, ‘장시간보육에 대한 우려’는 이용기관의 운영시간이 보육 수요에 충족한다고 해도

이른 시각의 하원이 지속될 것이므로 이들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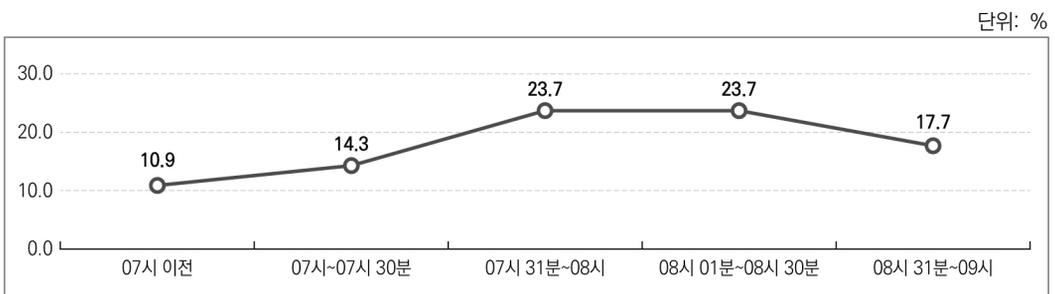
〈표 3〉 주중 수요 보다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이유

구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기관 운영시간이 퇴근 시각과 맞지 않아서	30.4	54.7
기관 운영시간이 출근 시각과 맞지 않아서	26.9	33.6
기관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이 아이 발달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19.0	37.5
기관에 아이가 홀로 남겨질까봐 우려되어서	17.6	50.4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신뢰되지 않아서	1.0	10.7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신뢰되지 않아서	1.4	3.4
기관이 주말(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아서	3.0	8.1
기타	0.8	1.6
계(수)	100.0(506)	(506)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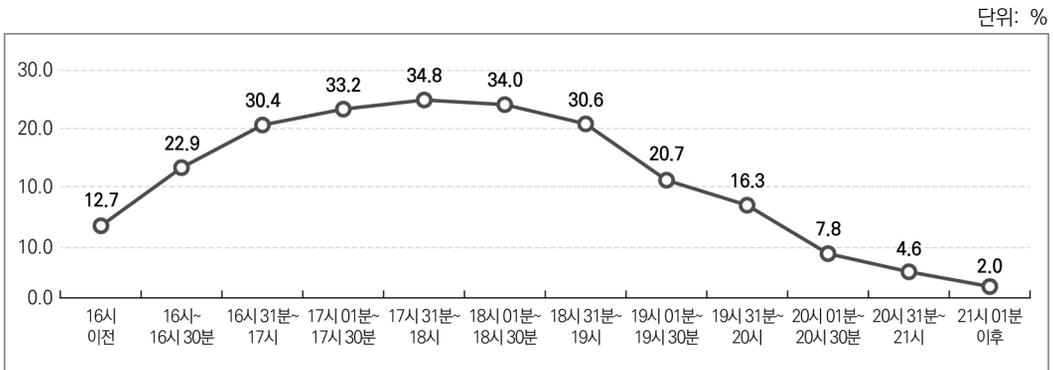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주중에 추가보육이 필요한 시간대는 오전 7시 30분 이전이 25.2%, 오후 7시 30분 이후가 30.7%로 나타나 해당 시간대의 돌봄 공백이 우려됨.

[그림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오전시간대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6.

[그림 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오후시간대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6.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 중에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2%로 절반이 넘고, 영아자녀와 맞벌이 가구의 해당 비율은 각각 62.4%와 65.7%로 더 높게 나타남.
- ◆ 서비스 이용기관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돌봄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71.2%와 64.6%로 높게 나타남.

〈표 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여부

단위: %(명)

구분	자녀돌봄 공백 경험 여부		계(수)
	있음	없음	
전체	59.2	40.8	100.0 (1,623)
자녀연령2			
영아	62.4	37.6	100.0 (625)
유아	57.2	42.8	100.0 (998)
$\chi^2(df)$	4.279(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65.7	34.3	100.0 (1,092)
홀벌이 가구	45.9	54.1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46.2	53.8	100.0 (26)
$\chi^2(df)$	57.459(2)***		

구분	자녀돌봄 공백 경험 여부		계(수)
	있음	없음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71.2	28.8	100.0 (514)
연장보육 미이용	50.1	49.9	100.0 (607)
방과후과정 이용	64.6	35.4	100.0 (302)
방과후과정 미이용	48.0	52.0	100.0 (200)
$\chi^2(df)$	65.565(3)***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67, 169.
 * $p < .05$, *** $p < .001$.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자녀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자녀가 아플 때’ 46.9%,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기관이 휴원한 경우’ 41.7%, ‘직장에서 연장근로 해야 할 때’ 39.2%, ‘부모가 아프거나 병원진료를 받아야 할 때’ 36.0% 순으로 조사됨.
- ◆ 자녀가 아파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은 맞벌이 가구에서 50.5% 약 절반이 경험하였으며, 이른 출근과 주말근로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제기됨.

〈표 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상황(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아플 때	직장에서 연장근로를 해야 할 때	기관이 문 열기 이전에 출근해야 할 때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기관이 휴원할 때	귀하 또는 배우자가 아프거나 병원진료가 있을 때	이용기관 자체 휴원	기타	(수)
전체	46.9	39.2	24.2	24.0	41.7	36.0	5.1	0.8	(1,6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0.5	47.8	28.6	26.3	43.2	27.7	5.5	0.7	(1,092)
홀벌이 가구	40.2	22.4	15.6	19.8	40.0	52.9	4.4	0.8	(505)
모두 근로 안함	26.9	7.7	7.7	11.5	11.5	61.5	0.0	3.8	(26)
$\chi^2(df)$	288.565(16)***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73-174.
 *** $p < .001$.

- 이상의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병행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2%이고, 해당 서비스는 부모 및 친인척 72.9%, 민간 육아도우미 21.3%, 아이돌보미 16.5% 순으로 조사됨.
- ◆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16.0%로 홑벌이 가구 보다 낮아 서비스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자녀수가 많고,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가구의 수요에 주목할 만함.

〈표 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조부모 /친인척	민간 베이비시터	아이 돌보미	이웃	기타	(수)
전체	72.9	21.3	16.5	3.0	1.0	(668)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74.1	22.0	16.0	2.8	0.7	(576)
홑벌이 가구	65.9	17.0	20.5	4.5	1.1	(88)
모두 근로 안함	50.0	-	-	-	50.0	(4)
$\chi^2(df)$			101.903(10)***			
출생순위						
첫째	79.3	17.5	13.9	2.3	1.0	(309)
둘째	68.1	25.0	17.5	3.8	0.9	(320)
셋째 이상	61.5	20.5	28.2	2.6	2.6	(39)
$\chi^2(df)$			25.712(10)**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64.8	31.8	25.8	3.9	0.4	(233)
연장보육 미이용	82.5	11.7	10.2	1.9	0.5	(206)
방과후과정 이용	69.7	20.6	13.9	4.2	2.4	(165)
방과후과정 미이용	79.7	15.6	9.4	0.0	1.6	(64)
$\chi^2(df)$			80.21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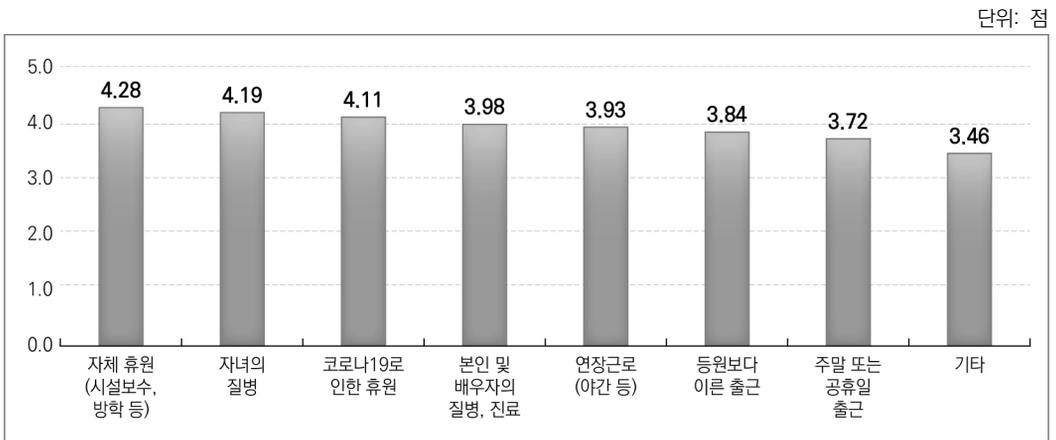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80, 181.
 ** $p < .01$, *** $p < .001$.

- 자녀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정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이용 중인 기관이 시설보수 등으로 자체적으로 휴원할 때’ 평균 4.28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아

플 때' 4.19점,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기관이 휴원할 때' 4.11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병원 진료' 3.98점, '직장에서 연장근로(야근 등)해야 할 때' 3.93점, '기관이 문 열기 전에 출근해야 할 때' 3.84점 순으로 조사됨.

- ◆ 맞벌이 가구 중에서 '매주 주말에 근로하는 가구'의 경우는 자녀가 아픈 경우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정도가 평균 4.52점(만점 5점)에 달하여 시급한 대응이 요구됨.

[그림 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의 우려 정도(5점 척도)



주1: 5점 평균은 '우려 정도 낮음' 1점 ~ '우려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2: 기타는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자녀 육아로 바쁠 때', '배우자의 휴가', '아이의 하원이 빠른 경우' 등임.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05.

<표 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우려 정도: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별

구분	전체	주말근로 여부				F	(수)
		주말근로 안함	비정기적 주말근로	정기적 주말근로	매주 주말		
자녀가 아플 때	4.19	4.17	4.10	4.26	4.52	4.510**	(761)
직장에서 연장근로(야간 등)를 해야 할 때	3.93	3.80	3.97	3.91	4.14	2.215	(637)
기관이 문 열기 이전 직장에 출근해야 할 때	3.84	3.84	3.85	3.80	3.92	0.163	(393)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3.72	3.41	3.78	3.69	3.92	2.772*	(390)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중인 기관이 휴원할 때	4.11	4.17	4.11	4.06	4.10	0.448	(677)

구분	전체	주말근로 여부				F	(수)
		주말근로 안함	비정기적 주말근로	정기적 주말근로	매주 주말		
본인 배우자가 아프거나 병원진료가 있을 때	3.98	3.96	3.98	4.04	4.06	0.297	(585)
이용 중인 기관이 기관 사정으로 자체 휴원할 때	4.28	4.29	4.34	4.18	4.23	0.219	(82)

주1: 비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비정기적 한명이 비정기적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며, 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한명이 정기적 (당직 등)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고, 매주 주말근로에는 부모 중 한명이 매주 주말근로하고, 한명이 정기적 주말근로하는 가구가 포함됨.

주2: 5점 평균은 '우려 정도 낮음' 1점 ~ '우려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07.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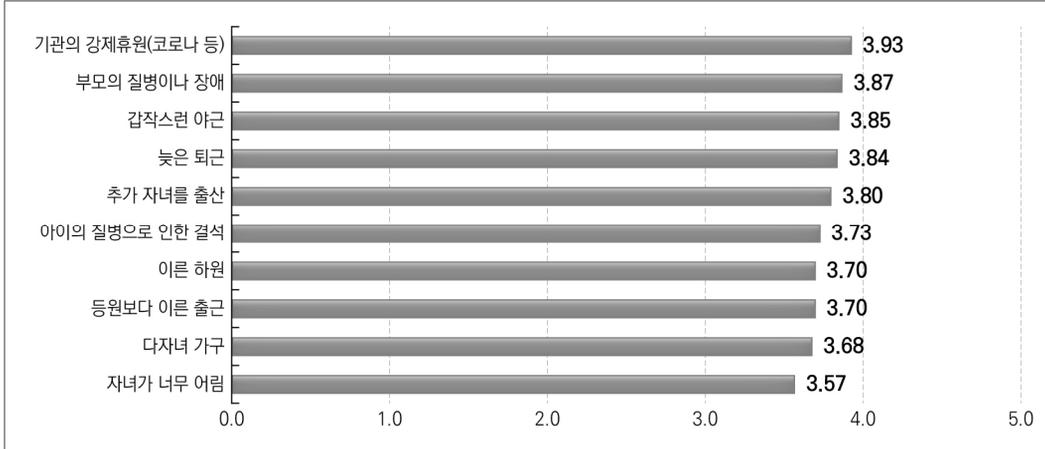
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과 지원요구

1) 돌봄 공백 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수요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인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의 필요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의 강제 휴원 평균 3.93점, 부모가 아픈 경우 3.87점,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 경우 3.85점, 일상적으로 늦은 퇴근 (19:30 이후) 3.84점, 추가자녀를 출산한 경우 3.80점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 일상적인 돌봄 틈새로 우려되는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를 살펴보면,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므로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됨.
 - ◆ 출근시각의 경우는 어린이집 기본보육 이전시간대인 오전 7시 31분부터 오전 9시 이전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 이전의 요구도 높은 수준을 보임.
 - ◆ 퇴근시각의 경우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후 시간대인 오후 7시 31분부터 오후 8시 까지의 요구가 평균 4.16점(만점 5점)으로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임.

[그림 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5점 척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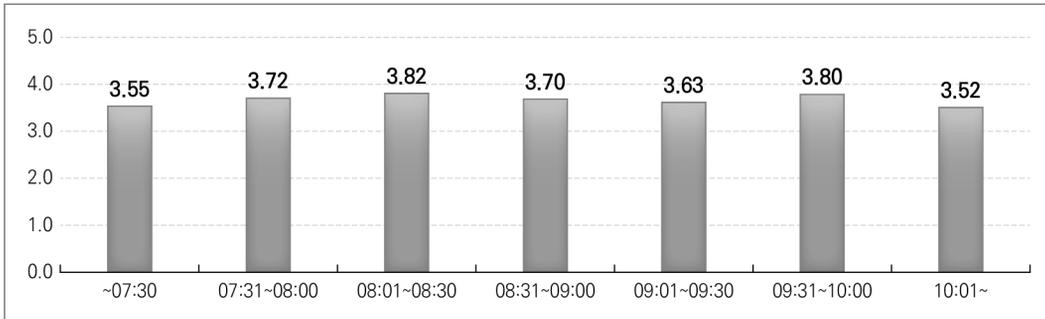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 ~ '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3.

[그림 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대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출근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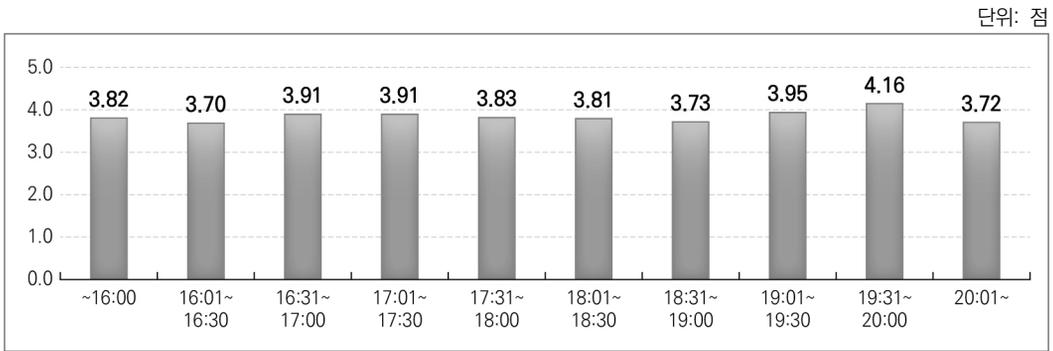
단위: 점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 ~ '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9.

[그림 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대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퇴근시각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 ~ '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9.

- 자녀가 아파서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희망하는 돌봄 방식으로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60.0%(1+2순위 73.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아이돌봄서비스는 1+2순위 35.9%로 조사됨.
- ◆ 자녀가 아픈 경우에 보육시설보다 아이돌보미를 더 선호하는 가구의 경우 해당 이유로는 '아픈 자녀가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어서'와 '낮선 기관에서 아이가 적응하기 힘들 거 같아서'가 각각 36.7%와 31.6%, 아픈 자녀를 등원시키는 것이 힘들어서 (19.0%) 등이 지목됨(유해미·박진아·엄지원, 2021: 222).

<표 8>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돌봄 방식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휴가를 제공함	60.0	73.4
의료기관 내 부설 보육시설에서 돌봄	17.9	47.8
환아 전문 거점보육시설에서 돌봄	14.2	42.4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돌봄	7.9	35.9
기타	-	0.5
계(수)	100.0(1,623)	(1,623)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17.

- 야간 또는 주말에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8%로 높은 수요를 보이며,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요를 보임.

〈표 9〉간급돌봄(야간/주말)시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별

단위: %(명)

구분	야간 또는 주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계(수)
	예	아니오	
전체	71.8	28.2	100.0 (1,623)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71.7	28.3	100.0 (1,370)
전일제+시간제	75.2	24.8	100.0 (206)
시간제+시간제	66.7	33.3	100.0 (21)
$\chi^2(df)$	1.439(2)		
주말근로 여부			
모두 주말근로 안함	63.1	36.9	100.0 (485)
비정기적 주말근로	76.9	23.1	100.0 (623)
정기적 주말근로	74.6	25.4	100.0 (346)
매주 주말근로	75.5	24.5	100.0 (143)
$\chi^2(df)$	28.5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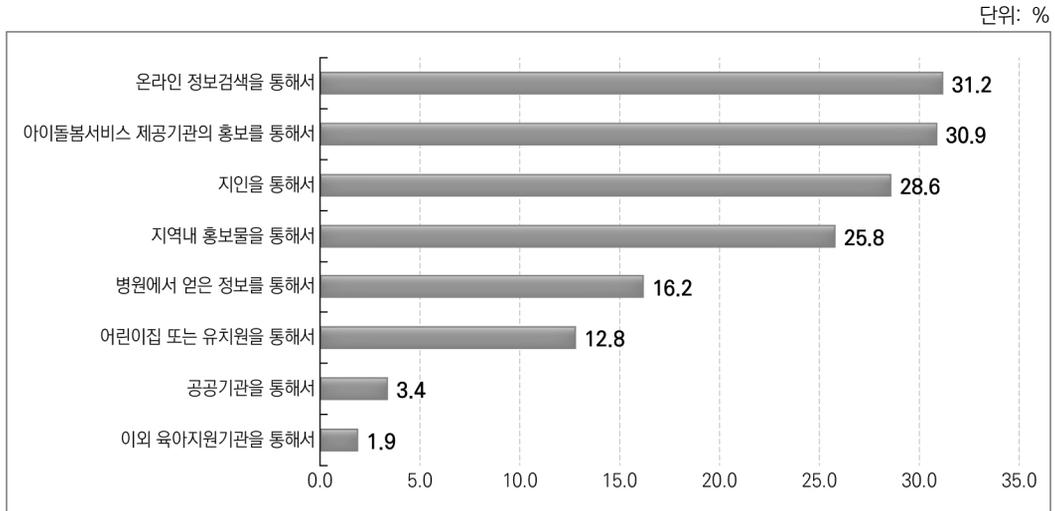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29.

*** $p < .001$.

2)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원요구

- 우선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있는 가구(1,077사례)에서 해당 서비스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12.8%에 그치므로 이들 기관을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림 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경로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85.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이나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이용 중인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부모들에게 공지’가 39.4%(1+2순위 응답률 53.6%)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임.
- ◆ 그 다음으로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동주민센터에 안내책자를 비치’하거나 ‘아 이사랑포털 등 육아관련 포털 사이트 상 소개 자료에 탑재’가 공히 32.2%,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 관련 서비스 기관 내 안내책자 비치’ 31.1%, ‘소아과 등 의료기관내 안내책자 비치’ 30.8% 순으로 조사됨.

〈표 10〉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선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보수집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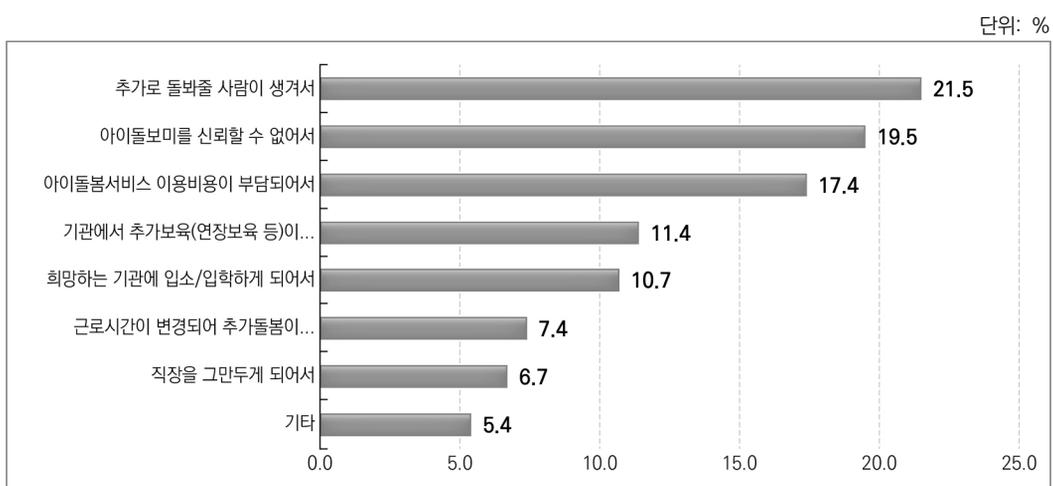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부모들에게 공지해 줌(오리엔테이션, 부모 간담회 등)	39.4	53.6
의료기관(소아과 등)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12.3	30.8
주민센터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16.9	32.2
산후조리원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8.9	19.2
육아 관련 서비스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10.1	31.1
육아 관련 포털(아이사랑포털 등) 사이트에 소개 자료를 탑재함	12.1	32.2
기타	0.2	1.0
계(수)	100.0(1,623)	(1,623)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43.

- 과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2021년 8월 기준으로 이용하지 않는 가구의 미이용 이유로는 추가로 돌봐줄 사람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면, 아이돌보미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이 주요하게 지적되므로 관련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과거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서 아이돌보미를 신뢰하지 못해서 19.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17.4%로 나타남.

[그림 8]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단 사유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90.

3

정책 제언

가. 선결과제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이들 기관의 돌봄서비스 운영의 내실화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제시할 수 있음.
 - ◆ 어린이집 연장보육은 지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병행해야 할 것임.
 - ◆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지역별로 운영기준과 지원기준의 지역적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모색하되, 해당 기준은 이용기관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운영기준을 고려해야함.
 - ◆ 영유아자녀의 긴급 돌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모 신뢰도 제고와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가 요구됨.

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방안

- 서비스 연계의 목표
 -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목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운영되지 않거나 또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음.
 -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가구에 욕구 수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 기관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자녀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모색할만함.
- 서비스 연계의 우선지원 대상
 - ◆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의 보완이 그 목표이므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구 등을 선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자녀가 아픈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돌봄 공백의 상황으로 지목되므로 해당 가구의 ‘질병감염지원아동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에서 예외가 적용되므로(여성가족부, 2022: 5)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은 채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음.
- ◆ 가구특성별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할만한 가구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 즉, 야간이나 주말 근로 맞벌이가구와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가구(추가출산 직후 포함)를 대상으로 고려할만함.
 - 부모의 야간근로와 주말근로 등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제고

-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은 수준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및 연계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원아의 감염병이 우려될 시에는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22: 108),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해당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보육통합관리시스템 등 업무망을 통해 정기적으로 하달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함.
 - 긴급돌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시연계서비스’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의 다각화가 요구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연간 운영을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영유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등), 의료기관, 유관 서비스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안내책자 배부, 임신·육아관련 사이트(보육포털 등)의 알림 공지 등도 추진함.

■ 서비스 연계의 기반 구축

- ◆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영유아보육·교육 기관을 담당하는 타 중앙부서의 협조를 요청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관한 규정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함.
- 보육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유아교육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도 및 시·군·구, 유치원의 경우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사항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또는 연계하여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함.
 - 2020년부터 「정부24」에서는 돌봄시설의 검색과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한 ‘온종일돌봄 윈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19. 11. 11: 1), 해당 사이트에 ‘영유아 돌봄’ 검색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의 돌봄서비스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하여 ‘아이돌봄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함.

■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의 보완 및 일괄 적용

- ◆ 아이돌봄서비스 전·후 아동인계의 안전관리 강화
 -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시작 전·후의 아동인계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인계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가 정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에 상호 확인된 아이돌보미로 적용대상을 보다 명료화해야 함.
 - 안전관리 관련 지침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직원으로부터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인계할 시는 아동의 보육활동과 일과 중 특이사항 등을 교사로 부터 전달받고, 이를 부모에 의무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함.
 -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지정한 대리자로서 사전에 지정되어 상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 일원화

-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사고 관리 사항이 상이하고, 보고 체계도 다르므로, 서비스 연계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 소재 등에 따라 일원화된 규정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에 관한 계획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아동연계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보고 및 처리과정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영유아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함.
 - ◆ 영유아 자녀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이 보편화되었으나, 이들 기관은 자녀가 아픈 경우 등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지니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방안을 제안함.
 - ◆ 특히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아픈 아동이 편안한 가정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하며, ‘일시연계 서비스’는 긴급보육 수요에 부응함.
- 부모의 근로시간 다양화 등 가구특성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의 측면에서 수요자의 형평성을 제고함.
 - ◆ 영유아를 둔 가구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운영시간은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부모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이외 시간대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지니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전한 돌봄을 제공함.
 -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이용으로 충족될 수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는 곧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I 참고 문헌 I

관계부처합동(2019. 11. 11). 보도자료: 우리 아이 방과 후 돌봄시설 신청, 「정부24」에서 한 번에 해결.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19. 10. 1). 보도자료: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 올해 약 3만여건 이용해 전년동기 대비 두배 증가.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PART

02

가정·직장의 양육 지원

- 가정에서의 육아문화 진단 및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권미경
-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진단 및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권미경
- 동아시아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 비교
-한·중·일 전문가 인식을 기반으로-
도남희

| 이슈페이퍼 2022-01 |

가정에서의 육아문화 진단 및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권미경

1. 배경 및 문제점
 2. 가정 내 육아문화 진단
 3.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 참고문헌

가정에서의 육아문화 진단 및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권미경 연구위원

◆◆ 요약 ◆◆

- 한국의 육아와 관련된 문화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1년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분담과 인식을 포함하여 가정 내 육아 문화는 어떠한지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육아존중문화로,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와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부모들은 자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 가치를 두고 있으며,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부부간 역할에 대해서도 대체로 성평등한 견해를 지니며, 현재의 역할분담에도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여 전반적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성평등한 양육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가정에서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분은 '양육에 대한 철학/양육태도가 달라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등이 주된 이유이며,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 확보를 가장 희망함.
-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인식이 실현 가능한 제도적 지원,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성 증진, 아버지교육을 포함하는 양육역량 강화 기회확대,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 마련과 더불어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가 필요함을 제언함.

1

배경 및 문제점

- 한국의 육아와 관련된 문화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저출산 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본고는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와 SBS,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협동으로 수행한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연구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 소셜미디어(뉴스,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 등)에 육아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웹 크롤링하여 분석한 결과¹⁾ 부정적 표현이 긍정적 표현 보다 월등히 많았고, 특히 육아관련 단어 중 ‘여자’, ‘독박육아’, ‘양육비’, ‘혼자’, ‘남자’ 등의 빈도가 높았음.
- 최근 기사검색과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 내 육아문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육아문화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함.
 - ◆ 2021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육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모의 역할 분담과 인식을 포함하는 가정 내 육아문화의 진단이 필요함.
 - ◆ 가정 내에서 부모의 성평등 가치관과 양육 분담 현황을 살핀 연구(최윤경·박은정·김보미·우석진, 2020)에서는 아버지의 성역할 가치가 양육 분담, 양육 참여,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과 여전히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 하기도 함.
 - ◆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관련된 최근의 변화는 분명해 보여, 2020년²⁾ 육아 휴직의 경우 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그 사용의향을 밝혀 5년 사이 3배 이상 높아졌으며, 2019년 육아휴직자 16만 명 중 아빠가 약 20% 정도로 10년 사이 16배 증가한 상황임.³⁾
- 가정에서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진단 분석하여 부정적 요소를 줄여감으로써 육아존중문화로의 변화와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육아기 가족’에 초점을 두고, 가정 내에서 형성된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남성과 여성의 부-모간 역할 분담 및 인식 차이를 확인하며, 긍정적이고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1)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p. 118

2) 연합뉴스(2020. 1. 4.). “남성 직장인 70% “육아휴직 의향”...실제로는 여전히 어려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118400003> (2021. 4. 3. 인출)

3) 동아일보(2020. 12. 22.). “육아휴직 16만명 ... 5명 중 1명은 ‘아빠’, 10년새 16배로”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22/104589790/1> (2021. 4. 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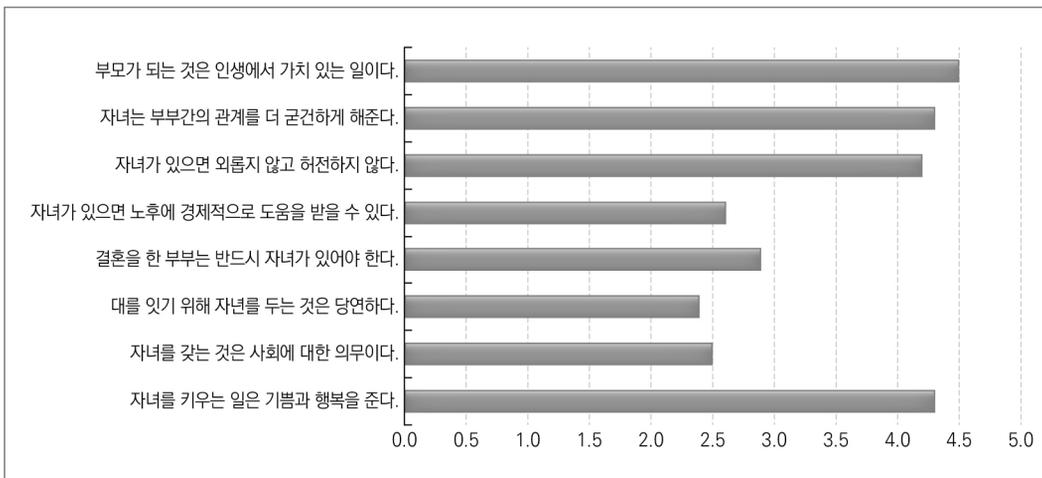
2 가정 내 육아문화 진단

- 전국에서 영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1,228명 대상으로 2021년 5월 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함.
- ◆ 가정의 육아문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 육아, 부부역할과 관련한 인식, 자녀양육 부담 및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양육 관련 갈등과 만족도 등을 조사함.

가. 자녀·육아·부부 역할에 대한 인식

- 자녀를 두는 것의 의미
 - ◆ 자녀를 두는 것에 대한 의미로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4.5점)’,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4.3점)’,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4.3점)’,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다(4.2점)’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1〉 자녀를 두는 것의 의미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34. 〈표 V-1-2〉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 ◆ 이에 비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2.4점)’,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2.5점)’,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2.6점)’ 등 자녀의 도구적 의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지 않았음.
- ◆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지니는 도구적 개념보다는 자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 가치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 ◆ 부모는 자녀를 위해 더 희생해야한다는 생각에의 동의 정도가 53%로 부모의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우 47%보다 다소 높았음.
- ◆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답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버지의 경우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라는 부분에 동의 정도가 60.6%로 더 높았던 반면, 어머니의 경우는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 54.9%가 동의 하였음. 이는 자녀양육을 아버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양육으로 인한 희생과 본인의 행복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됨.

〈표 1〉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단위: 명, %

구분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계(수)
전체	53.0	47.0	100.0 (1,228)
어머니	45.1	54.9	100.0 (603)
아버지	60.6	39.4	100.0 (625)
$\chi^2(df)$	29.724(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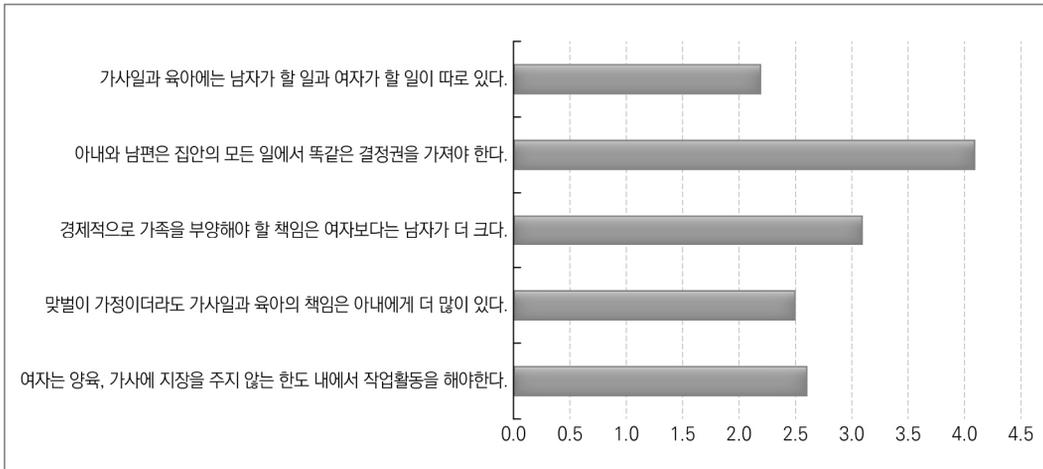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준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41. 〈표 V-1-10〉의 일부임.

■ 부부간 역할에의 인식

- ◆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에 4.1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고, ‘가사일과 육아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해 2.2점으로 가장 낮은 동의를 보여, 응답자들은 부부간 역할에 대해 대체로 성평등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2〉 부부간 역할에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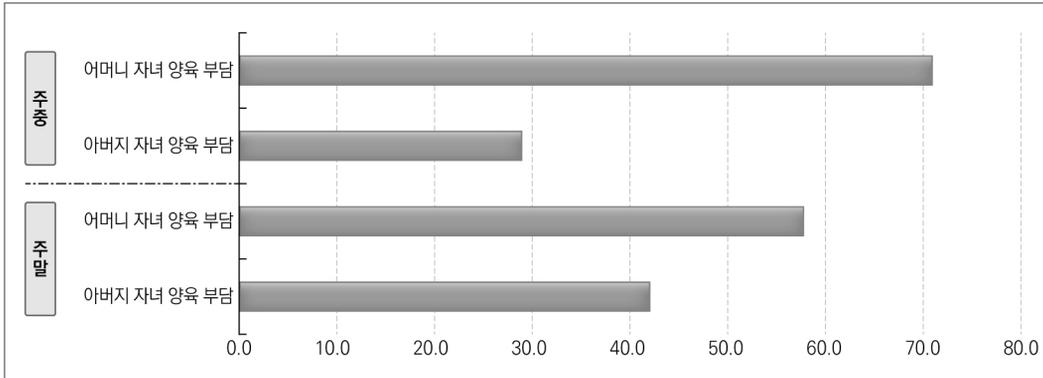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준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43. 〈표 V-1-11〉을 그림으로 재구성함.

나. 자녀양육 분담 및 아버지 양육 참여

■ 부부의 자녀양육 분담정도

- ◆ 자녀양육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주중에는 어머니의 양육 분담비율이 70.9%, 아버지는 29.1%로 나타났고, 주말에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비율이 증가하여 어머니는 57.8%, 아버지는 42.2%로 조사됨.
- ◆ 흥미로운 점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분담정도(24.1%)보다 아버지 스스로가 평가하는 본인의 분담정도(34%)가 유의하게 높다는 점임.
- ◆ 지역차이도 보여서 대도시 거주인 경우(31.1%)에 중소도시(28.1%)나 농어촌 지역 거주하는 경우(26.9%) 그 분담 정도가 높았고, 또한 맞벌이인 경우(34.1%)에 맞벌이가 아닌 경우(23.7%)보다 분담의 비율이 높음.
- ◆ 이러한 부부의 양육 분담에 대해 만족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 전체 평균은 3.4점이며,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8.2%로 주류를 이룸.

〈그림 3〉 부부의 자녀양육 분담정도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47. [그림 V-1-1]임.

■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 내용

- ◆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놀이(4점)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또한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기본생활습관의 형성(3.8점)과 자녀의 훈육과 생활지도(3.7점) 등에 참여가 다른 부분보다 높게 나타남.

〈표 2〉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내용(전체)

단위: %

구분	평균(표준편차)
1. 기본생활돌봄(먹이기, 입히기, 씻기)	3.8 (1.0)
2. 자녀 돌봄을 위한 가사활동(식사준비, 빨래, 청소)	3.5 (1.2)
3. 자녀와의 놀이 (함께 놀아주기, 놀이터 등 외출하기)	4.0 (0.8)
4. 자녀의 훈육 (생활지도)	3.7 (0.9)
5. 자녀의 학습지원	3.3 (1.0)
6. 자녀의 등하원	3.0 (1.3)

주: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 5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임.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51. 〈표 V-1-2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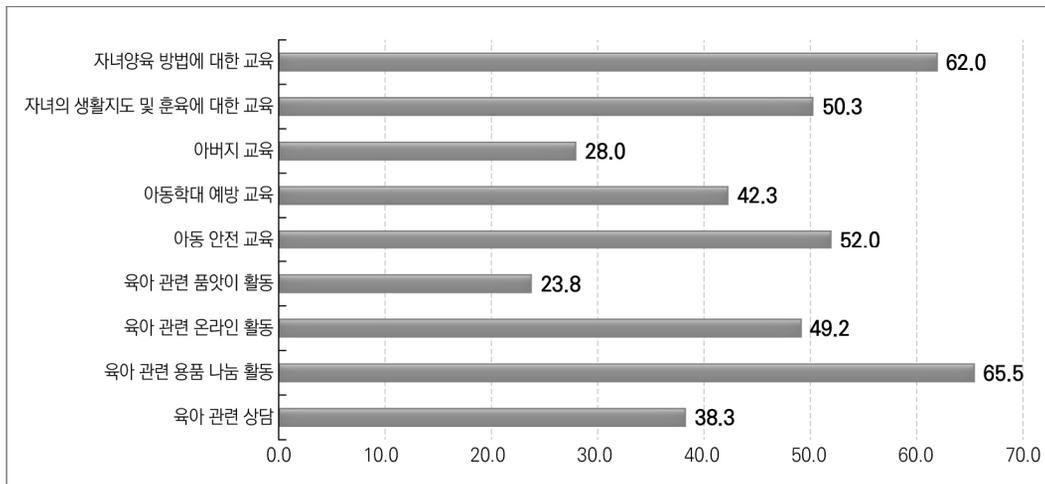
■ 육아관련 교육이나 활동 참여

- ◆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가 이수한 교육이나 활동에 대한 경험을 '있다' '없다'로 답하여 그 경향을 살펴봄.
- ◆ 교육 내용으로는 목욕이나 수유, 기저귀 같이 등 자녀를 양육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 안전교육 52%, 자녀의 생활지도 및 훈육에 대한 교육이 50.3%, 아동학대 예방교육 42.3%, 아버지 교육 2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아버지 교육의 경우 응답자 전체 중 28%에 그치고 있어 다른 부모교육보다 아버지 교육경험이 적음을 보여줌.
- ◆ 양육관련 활동으로 육아관련 용품의 나눔 활동이 65.5%로 가장 많았는데, 육아용품의 나눔은 직장동료나 친구 등 지인과 나눔, 지역사회 안에서 나눔(지역맘 카페, ○○마켓)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 ◆ 지역맘 카페 활동 등 육아 관련 온라인 활동(49.2%)은 거의 응답자의 절반이 참여한 경험을 보였고, 언어발달, 자녀와의 관계 등 육아관련 상담(38.3%)이나 육아 관련 품앗이(돌봄이나 교육) 활동(23.8%)에 대한 참여는 그리 많지 않음.

〈그림 4〉 육아관련 교육이나 활동 참여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82. [그림 V-1-2]임.

다. 가정 내 양육환경 및 육아문화

- 가정 안에 형성된 육아관련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가정의 양육환경에 대한 진단과 만족정도, 자녀와의 갈등 및 그 원인,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예의 어려움과 변화를 위한 요인 등을 살핌.

■ 가정 내 양육 환경 평가

- ◆ ‘우리 집은 양육하는 것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있다’(4.1점)와 ‘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4.1점)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음.
- ◆ 그에 반해 ‘우리 집은 부부가 공평하게 양육을 한다.’(3.3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동의를 보여 인식은 높으나 실제 실천은 그에 못 미침.
- ◆ ‘우리 집은 양육을 중심으로 부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3.7점)와 ‘양육하는 일에 대해 가족(확대가족 포함) 안에서 지지 받고 있다.’(3.7점)에 대한 동의도 높은 편임.

〈표 3〉 가정 내 양육 환경 평가

단위: %

구분	평균(표준편차)
1. 우리 집은 양육하는 것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있다.	4.1 (1.0)
2. 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1 (0.9)
3. 우리 집은 부부가 공평하게 양육을 한다.	3.3 (1.2)
4. 우리 집은 양육을 중심으로 부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3.7 (1.0)
5. 우리 부부는 양육자로서 서로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배려한다.	3.6 (1.0)
6. 양육하는 일에 대해 가족(확대가족 포함) 안에서 지지 받고 있다.	3.7 (1.0)
7. 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조부모, 외조부모, 친척 등).	3.5 (1.3)
8. 힘들 때 양육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5 (1.0)
9.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사람이 있다.	3.6 (0.9)
10. 때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4 (1.2)
11. 가정 내 공간은 양육하기에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3.6 (0.9)

주: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임.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62. 〈표 V-1-33〉임.

■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도

- ◆ 현재 가정 내 형성된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3%이며, 전체 평균은 3.6점임.
- ◆ 영아자녀를 둔 경우(3.7점)에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아버지의 만족도(3.8점)가 어머니(3.4점)보다 높았고, 맞벌이 가구(3.7점)에서 아닌 경우(3.5점)보다, 월평균 가구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현재 가정의 육아문화에 만족한다는 경향을 보임.

〈표 4〉 가정 내 육아문화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않음	별로 만족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	8.8	27.0	53.0	9.6	100.0 (1,228)	3.6 (0.8)
자녀 연령							
영아	1.0	8.2	24.2	52.8	13.8	100.0 (413)	3.7 (0.8)
유아	1.7	9.0	27.1	54.6	7.6	100.0 (410)	3.6 (0.8)
초등 저학년	2.0	9.1	29.9	51.6	7.4	100.0 (405)	3.5 (0.8)
<i>F</i>							4.6*
어머니	2.8	15.1	30.0	43.6	8.5	100.0 (603)	3.4 (0.9)
아버지	0.3	2.7	24.2	62.1	10.7	100.0 (625)	3.8 (0.7)
<i>t</i>							-8.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	6.6	25.0	56.2	10.9	100.0 (635)	3.7 (0.8)
맞벌이 아님	1.9	11.0	29.1	49.5	8.4	100.0 (580)	3.5 (0.9)
<i>t</i>							3.8***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0.4	12.8	31.4	47.8	7.5	100.0 (226)	3.5 (0.8)
300~400만원	2.2	8.7	26.9	53.2	9.0	100.0 (312)	3.6 (0.9)
400~500만원	2.0	9.0	26.9	54.3	7.8	100.0 (245)	3.6 (0.8)
500~600만원	0.6	5.9	22.9	57.1	13.5	100.0 (170)	3.8 (0.8)
600만원 이상	1.8	7.3	26.2	53.5	11.3	100.0 (275)	3.7 (0.8)
<i>F</i>							3.1*

* $p < .05$, *** $p < .001$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71-172. 〈표 V-1-45〉임.

■ 자녀양육 관련 갈등 경험

- ◆ 부부 간 또는 가족 간 얼마나 자주 갈등을 경험하는 지에 대해 ‘월 1회 이내로 거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월 4회 이내 정도로 다소 갈등을 경험한다’는 경우가 40.2%, ‘주당 3~5회 정도로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한다’ 14.2%, ‘하루 한번 이상 매우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한다’ 3.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대체로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하는 경향을 보임.

- ◆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부부 간 또는 가족 간 경험하게 되는 갈등의 원인으로는 자녀 훈육(생활지도)이 주요 갈등이라는 응답이 50%로 절반에 달하였고, 다음은 부부간 양육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이라는 응답이 25.2%로 이 두 가지 원인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함.

〈표 5〉 자녀 양육 관련 갈등 경험

단위: %(명)

구분	매우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한다 (하루 한번 이상)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한다 (주당 3~5회)	다소 갈등을 경험한다 (월 4회 이내)	거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 (월 1회 이내)	계(수)
전체	3.5	14.2	40.2	42.1	100.0 (1,215)
부모					
어머니	4.7	16.5	40.4	38.4	100.0 (594)
아버지	2.3	12.1	40.1	45.6	100.0 (621)
$\chi^2(df)$	13.216(3)**				

** $p < .01$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73. 〈표 V-1-46〉임.

■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어려움

- ◆ 긍정적 육아문화는 자녀를 키우는데 부정적 요소들이 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육아문화를 의미함.
- ◆ 가정에서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분 또는 어려움은 부부 간 가치, 양육태도의 차이와 양육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의 부족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남.
 - ‘부부/가족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30.1%,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27.2%, ‘부부/가족간 양육이 힘들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아서’ 15.6%, ‘부부/가족간 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15%, ‘육아 휴직(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12.1%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어려움에 대해 연령대별 차이를 보여, 20~30대에서는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높았고, ‘부부/가족간 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15.4%, ‘육아휴직(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13.7% 등이 높은데 비해, 40~50대에서는 '부부/가족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34.6%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어린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돌봄을 위한 시간의 요구가 많고, 유아와 초등학생으로 성장하면서 부부간 양육 철학 및 양육태도로 인한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어려움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서,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와 '육아휴직(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자녀연령이 많아질수록 '부부/가족 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라는 응답이 많았음.
- ◆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어려움은 가구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여 맞벌이 가구에서는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와 '부부/가족 간 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육아휴직(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라는 응답의 비율이 아닌 경우보다 높았고,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서는 '부부/가족 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부부/가족 간 양육이 힘들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아서' 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줌.

〈표 6〉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부부/가족 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부부/가족 간 양육이 힘들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아서	부부/가족 간 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계(수)
전체	30.1	27.2	15.6	15.0	12.1	100.0 (1,215)
20~30대	26.8	28.9	15.4	15.3	13.7	100.0 (695)
40~50대	34.6	25.0	15.8	14.6	10.0	100.0 (520)
$\chi^2(df)$			11.184(4)*			
자녀 연령						
영아	23.4	30.5	15.1	14.6	16.3	100.0 (410)
유아	32.0	26.6	16.0	15.3	10.1	100.0 (406)
초등 저학년	35.1	24.6	15.5	15.0	9.8	100.0 (399)
$\chi^2(df)$			21.958(8)**			

구분	부부/가족 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부부/가족 간 양육이 힘들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아서	부부/가족 간 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0	27.6	13.5	17.3	13.5	100.0 (635)
맞벌이 아님	32.4	26.9	17.8	12.4	10.5	100.0 (580)
$\chi^2(df)$	12.615(4)*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77. <표 V-1-48>임.
* $p < .05$.

라.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요구

■ 육아문화 변화 주체

- 육아를 둘러싼 문화인 육아문화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 하는지 질의한 결과, 양육자 개인이나 가족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정부(중앙정부, 지자체) 23.2%, 직장과 기업 21.7%, 이웃과 지역사회 15.2%, 언론매체 1.8%의 응답을 보임.

<표 7> 육아문화 변화의 주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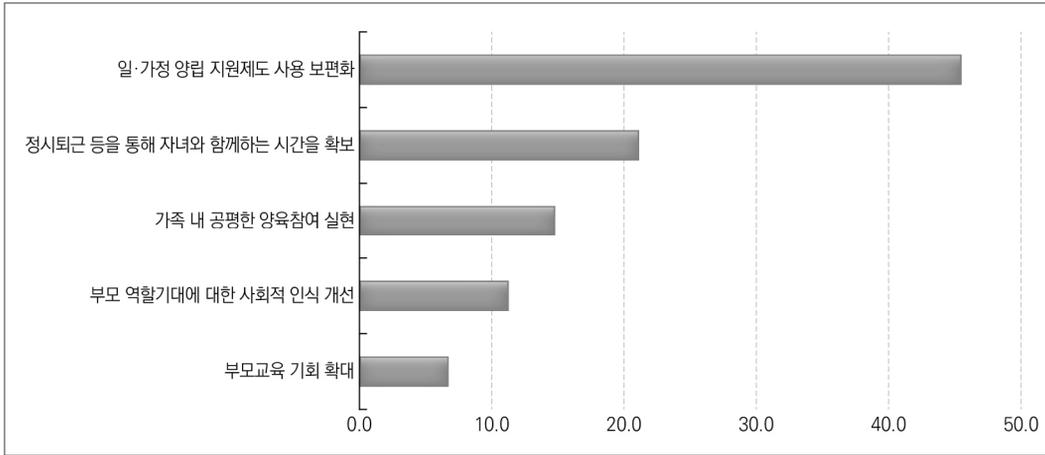
구분	양육자 개인, 가족	정부 (중앙, 지자체)	직장 기업	이웃/지역 사회	언론 매체	기타	계(수)
전체	37.9	23.2	21.7	15.2	1.8	0.2	100.0 (1,228)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209. <표 V-3-10>의 일부임.

■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부분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사용 보편화’가 45.5%, ‘정시퇴근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가 21.1%로 높은 응답을 보임.

〈그림 5〉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준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211. 〈표 V-3-11〉을 그림으로 재구성함.

3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가. 가정 내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 가정에서의 육아문화 양상과 문제점⁴⁾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인식은 점점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대체로 성평등한 가치관을 지니나 실제 양육 분담 등의 실행은 여전히 미진하다.’, ‘자녀/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지원에의 요구가 높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희망한다.’, ‘맘 카페, 육아용품 지역 나눔 등의 육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등으로 요약됨.
- 이를 중심으로 가정에서의 육아준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 〈표 8〉과 같이 제시함.

4) 영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1,228명 대상 설문조사결과와 심층면담 자료의 분석,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 토의내용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결과임.

〈표 8〉 가정 내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가정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관련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 • 성평등한 가치관 지니나 실행은 미진 • 자녀/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애의 요구 • 자녀 양육역량 강화애의 요구 • 육아 중심 소통 다양화(맘카페, 지역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강화 •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성 증진 • 양육역량 강화 기회확대(아버지교육 등) •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 마련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249. 〈표 Ⅶ-1-1〉임.

나. 가정 내 육아문화 개선방안

■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 ◆ 긍정적 육아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 것과 함께 육아하는 가구가 존중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양육 부모가 체감하는 긍정 경험이 증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면적인 경로를 활용하여 꾸준한 문화개선 노력이 추진되어야함.
- ◆ 정부, 지자체, 기업, 미디어 등을 통한 육아존중문화 개선 홍보
 - 육아문화 홍보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문화의 개선은 시간이 걸리는 일로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접근을 요함.
 - 육아지원이 사회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도 여전히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홍보 캠페인으로 독려하고 있음.
 - 육아하는 가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아이 기르는 일’을 함께 응원하고 있음을 전하는 노력이 필요함.
 - 홍보 시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며, 어떤 내용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을 해주어야 할지를 끊임없이 파악하여, 관련정보를 웹진이나 홈페이지 등에 계속해서 노출해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사업 추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안내할 것을 제안함.
- ◆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Creators)’ 운영
 - 정부와 지자체, 또는 기업에서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서포터즈 집단으로

육아하는 부모들로 구성된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를 운영하는 안을 제안함.

-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는 양육자들이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제에 대해 직접 참여하여 토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위에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함.
- 여성가족부의 지역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각 지역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의 선발과 운영이 가능하며, 지자체 별로 또는 경제계와 협력하여 ‘직종’별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강화

◆ 아버지 양육 역량강화 기회 확대

- 과거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며 아버지의 역할이 확장되었고 이에 부모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변화한 역할에 맞춰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육아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아버지 대상의 교육강좌, 부모교실을 개설할 것을 제안함.
- 현재 운영 중인 부모교육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초록우산 부모교육 등 다양한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 기회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특화시켜 일터인 직장으로 가서 제공하자는 것임.
- 또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참여한 아버지들의 양육지원을 위한 자조모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 연계함.

◆ ‘아빠들의 놀이터’ 운영

- 덴마크의 ‘아빠들의 놀이터(Fars Legestue)’를 벤치마킹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아빠들의 놀이터는 육아하는 아버지들을 위해 시에서 마련한 네트워크 형성의 공간으로 일주일에 한번 씩 구마다 마을도서관, 체육관 등의 공공장소를 이용하여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놀이터지기를 파견하여 3시간 정도 운영되는 형태로 이 때 간호사가 함께 파견되어 1시간 동안의 양육 상담도 지원함.

-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버지들의 참여가 활발할 수 있는 토요일에 자녀와 아버지가 모일 수 있는 ‘아빠들의 놀이터’를 마련하는 것임.

■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성 증진

- ◆ 육아기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의 요구가 높음.
 - 가정에서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에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 20~30대에서는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 사용 보편화’, ‘정시퇴근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에의 요구가 높았음.
- ◆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활용 증진
 - 일·가정양립제도는 제도는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그러나 ‘시차출퇴근제’, ‘자율출퇴근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비롯하여 일·가정양립제도는 COVID 19 이후 도입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해 감염병 상황 대처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유연근무제 운영 모범사례 발굴,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과 비용지원 유지 등을 제안함.

■ 양육역량 강화 기회확대

- ◆ 부모들은 양육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양육을 힘겹게 느껴 육아 길잡이, 놀이 방법 등 실제 육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희망함.
 -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도 성장하며, 자녀와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모도 힘을 얻음.

- ◆ 다양한 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기회 확대
 - 육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모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강의식 교육이 대부분으로 소규모 강의를 희망하는 수요자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음.
 - 부모교육은 일방향적 지식의 전달이 아닌 소규모 토론식, 양육 상담 등의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함.
 -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이 많아 부모교육 계획 시, 조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 마련

- ◆ 육아기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공통의 관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에의 요구
 - 육아하는 가족 간에 지역 내 육아용품의 나눔이 증가하고, 지역맘 카페 등 온라인 육아 관련 활동에의 참여가 활발함이 육아문화 양상 중 하나로 두드러짐.
- ◆ 온라인 네트워크가 긍정적 육아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 온라인 공간이 육아정보의 교환이나 소통의 장으로서 큰 영향을 발휘함.
 - 자칫 편향된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음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복지로, 육아정책연구소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육아관련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I 참고 문헌 I

- 권미경·김지현·김영민·박혜준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동아일보(2020. 12. 22.). “육아휴직 16만명...5명 중 1명은 ‘아빠’, 10년새 16배로”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22/104589790/1>
(2021. 4. 3. 인출)
- 연합뉴스(2020. 1. 4.). “남성 직장인 70% "육아휴직 의향"...실제로는 여전히 어려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118400003> (2021. 4. 3. 인출)
- 최윤경·박은정·김보미·우석진(2020). 성인지 관점에서의 아동분야 돌봄경제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슈페이퍼 2022-02 |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진단 및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권미경

1. 배경 및 문제점
 2.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진단과 육아지원 요구
 3. 지역사회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 참고문헌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진단 및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권미경 연구위원

◆◆ 요약 ◆◆

- 가족의 생활공간인 지역사회 안에 형성된 육아문화의 양상을 진단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줄여가는 노력을 통해 육아하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 인정, 더 나아가 존중하는 문화조성이 필요한 시점임.
- 양육자들은 지역사회 육아환경 중 이웃의 양육가정에 대한 인식과 공간, 공원조성 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였으나, 지역사회 양육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였음.
- 양육하기 좋은 환경은 놀이터 혹은 공원의 조성, 보육 및 교육 시설의 접근성 등이며, 좋지 못한 환경은 도로, 교통의 문제, 자녀의 긴급돌봄 기관/서비스 부재 등을 지적함.
- 지역사회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육아친화적 지역환경(공원/놀이터/도서관) 조성, 육아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양육지원 특화,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지역사회 내 육아공동체 형성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함을 제언함.

1

배경 및 문제점

- 한국에서 육아와 관련된 문화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저출산 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료됨.
- 육아하는 가족이 체감하는 육아문화는 부정적 요소들이 많고, 특히 가족의 생활공간인 지역사회 안에서의 차별적 경험은 육아하는 부모의 사기를 저하시킴.
 - ◆ 노키즈 존(No Kids Zone), 맘충, 독박육아 등의 단어는 육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사회 안에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는 육아하는 가족을 어렵게 하는 부분임.

* 본고는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와 SBS,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협동으로 수행한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연구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이에 반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육아정책, 특히 지역사회 안에서 지지적인 지원정책, 제도들은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함.
 - ◆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인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상담 등 다면적인 양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지방정부에서는 육아하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자체 특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이렇듯 우리 사회, 특히 지역사회 안에 형성된 육아문화의 양상을 진단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줄여가는 노력을 통해 육아하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 인정, 더 나아가 존중하는 문화조성이 필요한 시점임.
- ‘육아기 가족’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된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양육하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여 긍정적이고 행복한 육아문화, 육아하는 가족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2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진단과 육아지원 요구

- 전국에서 영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1,228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육아지원의 요구를 분석하였음.
 - ◆ 양육자의 주요한 양육환경인 지역사회 안에서 육아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 육아환경 진단, 양육과 관련하여 체감되는 양상, 환경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 육아지원 전달체계의 이용에 대해 조사함.

가. 지역사회 육아환경 평가 및 체감

■ 지역사회 육아환경 평가

-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험을 토대로 육아환경을 평가해본 결과, 부모들은 지역사회의 육아 관련 인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질적인 양육지원 인프라와 정부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평가함.
 - ‘우리 동네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와 ‘우리 동네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 등 체감되는 지역사회 가치와 인식에 대한 부분의 동의(3.7점)가 높음.
 - ‘동네에 공원, 녹지, 놀이터 등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부분도 3.7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 그에 반해 ‘지역 내 정부의 지원서비스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문항에는 가장 낮은 2.9점으로 평가됨.

〈표 1〉 지역사회 내 육아환경 평가

단위: %

구분	평균(표준편차)
1. 우리 동네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3.7 (0.7)
2. 우리 동네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고 여긴다.	3.7 (0.8)
3. 우리 동네는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하고 배려한다. (놀이터의 소음이나 층간 소음 등)	3.5 (0.9)
4. 공원, 녹지, 놀이터 등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3.7 (1.0)
5. 우리 동네에 있는 놀이공간은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다.	3.5 (1.0)
6. 우리 동네에는 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곳(돌봄기관, 이웃)이 있다.	3.0 (1.0)
7. 우리 동네에는 양육정보를 얻거나 양육지원을 받을 곳이 있다.	3.0 (1.0)
8. 우리 동네에는 양육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소통 공간이 있다. (온라인 맘카페, 공동양육니눔터 등)	3.3 (0.9)
9. 우리 동네에는 양육지원 서비스 인프라(보육, 교육, 돌봄)가 잘 구성되어 있다.	3.1 (0.9)
10. 지역 내 정부의 지원서비스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2.9 (1.0)

주: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임.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83. 〈표 V-2-1〉임.

■ 지역사회 육아 문화 체감정도

- ◆ 지역사회에서 양육자들이 체감하는 육아문화는 아이에 대한 사랑과 칭찬의 표현도 많은 반면, 소음갈등, 노키즈 존처럼 아이에 대한 무이해, 반감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음.
- ◆ ‘아이에 대한 사랑과 칭찬의 표현’을 받는다는 부분에 3.7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고, 그 다음은 ‘식당, 쇼핑센터 등에서 아이에 대한 배려’를 경험함에 3.5점, ‘외출 시 수유시설, 기저귀갈이대 등 양육지원시설의 편리한 이용’에 3.4점으로 비교적 높은 동의를 보임.
- ◆ ‘어린 자녀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자리를 양보 받는 등의 배려’는 3.1점이었으며, ‘노키즈 존(No Kids Zone)으로 인한 출입 제한’은 2.8점으로 나타남.

〈표 2〉 지역사회 육아 문화 체감

단위: %

구분	평균(표준편차)	
1. 어린 자녀와 버스, 지하철을 탈 때 자리를 양보 받는 등의 배려	3.1	0.9
2. 아이에 대한 사랑과 칭찬의 표현	3.7	0.8
3. 식당, 쇼핑센터 등에서 아이에 대한 배려	3.5	0.8
4. 외출 시 수유시설, 기저귀갈이대 등 양육지원시설의 편리한 이용	3.4	0.9
5. 노키즈 존(No Kids Zone)으로 인한 출입 제한	2.8	0.9
6.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울 때 불편한 시선이나 주의	3.0	0.9
7.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소리(소음)로 인한 갈등	2.6	0.9
8. 가정에서 아이들 소리로 인한 세대 간 갈등(충간소음 등)	3.0	1.0

주: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임.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88. 〈표 V-2-9〉임.

■ 지역사회 양육환경 및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도

- ◆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동네, 지역사회 양육환경과 육아문화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 정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동의함에 54.7%가 답하여 평균 3.6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임.
- ◆ 그러나 지역사회 양육환경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에 따른 격차를 보여 대도시나 중소도시(3.6점)에 비해 농어촌지역(3.4점)에서 다소 낮은 만족정도를 보임.
- ◆ 월평균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3.4점으로 그 만족정도가 다른 집단보다 낮은 경향을 보임.

〈표 3〉 지역사회 양육환경 및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	8.0	30.7	54.7	5.5	100.0 (1,228)	3.6	0.8
대도시	0.6	7.9	30.1	56.2	5.3	100.0 (495)	3.6	0.7
중소도시	1.1	6.8	29.8	55.7	6.6	100.0 (544)	3.6	0.8
농어촌지역	2.1	11.6	34.9	48.1	3.2	100.0 (189)	3.4	0.8
<i>F</i>							5.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8	10.2	39.4	43.8	4.9	100.0 (226)	3.4	0.8
300~400만원 미만	1.0	7.7	32.4	56.1	2.9	100.0 (312)	3.5	0.7
400~500만원 미만	0.4	9.4	25.7	55.9	8.6	100.0 (245)	3.6	0.8
500~600만원 미만	1.2	4.7	27.1	59.4	7.6	100.0 (170)	3.7	0.7
600만원 이상	1.1	7.3	28.4	58.2	5.1	100.0 (275)	3.6	0.7
<i>F</i>							4.4**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93. 〈표 V-2-17〉임.

** $p < .01$

■ 지역사회 양육환경이 좋은 이유

- ◆ 현재 살고 있는 지역환경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씩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보면, 주변에 자녀가 놀 수 있는 놀이터 혹은 공원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23.4%, 자연환경(공기 질, 수질 등)이 좋아서 12.8%,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편해서 10.7%,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배려가 느껴져서 9.2%,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 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8.4%, 이웃이 친절해서 6%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표 4〉 지역사회가 양육하기 좋은 이유(1순위/1+2+3순위)

단위: %(명)

구분	주변에 자녀가 놀 수 있는 놀이터 혹은 공원이 있어서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자연환경(공기의 질, 수질 등)이 좋아서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편해서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이웃의 배려가 느껴져서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및 문화 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이웃이나 동네주민이 친절해서	기타	계(수)
전체	28.9	23.4	12.8	10.7	9.2	8.4	6.0	0.5	100.0 (1,117)
거주지									
대도시	28.0	25.2	9.3	12.4	9.3	9.7	5.5	0.7	100.0 (453)
중소도시	30.7	22.4	12.6	10.0	9.6	7.6	6.6	0.6	100.0 (501)
농어촌지역	25.8	21.5	23.3	8.6	8.0	7.4	5.5	0.0	100.0 (163)
$\chi^2(df)$				26.376(14)*					
1+2+3순위	74.6	59.8	40.2	33.2	33.1	32.0	24.1	2.2	(1,117)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95. 〈표 V-2-18〉임.

* $p < .05$

- 이는 양육자들에게 ‘자녀가 놀 수 있는 놀이터 혹은 공원’과 ‘이용할 수 있는 보육·교육 시설’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 이에 대해서 거주지역에 따른 응답에 차이를 보여 농어촌 지역에서 ‘자연환경(공기의 질, 수질 등)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응답비율보다 높았음.
- 이에 비해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편해서’라는 부분에서는 대도시의 응답비율이 12.4%로 다른 지역보다 높아 지역에 따른 양육환경 평가 기준의 차이를 보여줌.

■ 지역사회 양육환경이 좋지 못한 이유

- ◆ 현재 살고 있는 지역환경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못한 환경으로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씩 선택하도록 한 결과가 〈표 5〉임.

〈표 5〉 지역사회가 양육하기 좋지 않은 이유(1순위/1+2+3순위)

단위: %(명)

구분	전체	1+2+3순위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불편해서	40.5	80.2
자녀의 긴급돌봄 기관/서비스 부재하여서	22.5	61.3
자연환경(공기의 질, 수질 등)이 좋지 않아서	10.8	45.9
이웃이나 동네주민이 불친절해서	7.2	31.5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여	5.4	28.8
자녀 기르기에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어서	5.4	18.0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느껴져서	4.5	18.0
기타	3.6	12.6
계(수)	100.0(111)	(111)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95. 〈표 V-2-19〉를 재구성함.

- 1순위를 기준으로 보면,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의 긴급돌봄 기관/서비스 부재하여서 22.5%, 자연환경(공기의 질, 수질 등)이 좋지 않아서 10.8%, 이웃이나 동네주민이 불친절해서 7.2%,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여 5.4%, 자녀 기르기에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어서 5.4%,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느껴져서 4.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 순위에서의 변동은 없었는데, 이는 양육자들에게 ‘도로, 교통 상황’ ‘자녀의 긴급돌봄 기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보여줌.

나.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요구

-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양육가정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전달체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들에 대한 필요도, 이용경험, 이용한 경우의 만족정도를 살펴보고,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지원요구를 파악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도서대여, 부모교육, 시간제보육제공, 체험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을 양육 가정에 제공하고 있음.

- ◆ 정책수요자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비율은 낮아, 실수요자의 접근성에 제한이 있음을 보여줌.
- ◆ 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 6>과 같이 부모교육과 체험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95.8%로 가장 높게 답하였고 다음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94.8%, 도서대여 94.5%, 장난감 도서관 92.9%로 나타나 전체사업에 대한 필요도가 90%를 상회한다고 답함.
- ◆ 이에 비해 이용경험은 장난감 도서관 42.5%, 도서 대여 39.2%, 체험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 32.7%, 부모교육 25.6%, 시간제보육서비스 18.2%에 그쳐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실제 활용은 그에 못 미침을 보여주어 이는 서비스의 접근성에 제한이 있음을 시사함.
- ◆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 3.6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6>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지원 서비스 필요도, 이용경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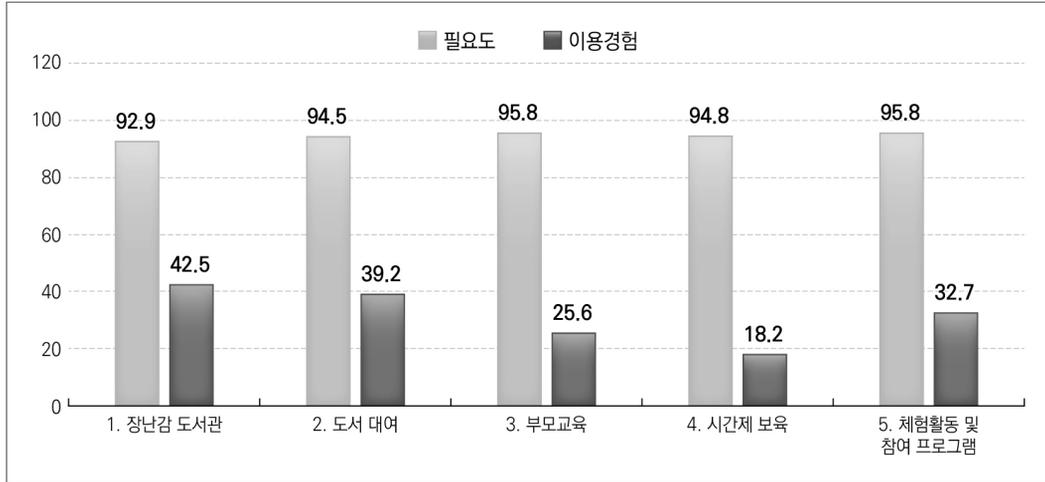
단위: %, 점

서비스	필요도		이용경험		만족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있다	없다	평균(표준편차)	
1. 장난감 도서관	92.9	7.1	42.5	57.5	3.8	(0.8)
2. 도서 대여	94.5	5.5	39.2	60.8	3.9	(0.8)
3. 부모교육	95.8	4.2	25.6	74.4	3.8	(0.8)
4. 시간제 보육	94.8	5.2	18.2	81.8	3.6	(1.0)
5. 체험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행사, 공연 포함)	95.8	4.2	32.7	67.3	3.8	(0.8)

주: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만족한다' 임.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종합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96. <표 V-2-20>임.

[그림 1]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지원 서비스 필요도, 이용경험, 만족도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96. <표 V-2-20>을 그림으로 구성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교육, 가족·부모·자녀 상담, 공동육아나눔터(육아품앗이),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등을 양육 가정에 제공하고 있음.
- ◆ 먼저 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 7>과 같이 가족·부모·자녀 상담 96.3%,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95.4%, 가족교육 94.8%로 높게 답하였고 다음은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90.4%, 공동육아나눔터(육아품앗이) 89.3%로 나타나 대부분 사업에 대한 필요도가 90%를 상회함.
- ◆ 이에 비해 이용경험은 20%에 모두 못 미쳐,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17.5%, 가족·부모·자녀 상담 14.2%, 가족교육 13.1%, 공동육아나눔터(육아품앗이) 12.0%,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7.7%에 불과함.
-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의 필요성은 높게 평가하지만 실제 활용은 미미함을 보여주어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 3.5점~3.6점 정도의 만족도를 보임.

〈표 7〉 건강가정지원센터 양육지원 서비스 필요도, 이용경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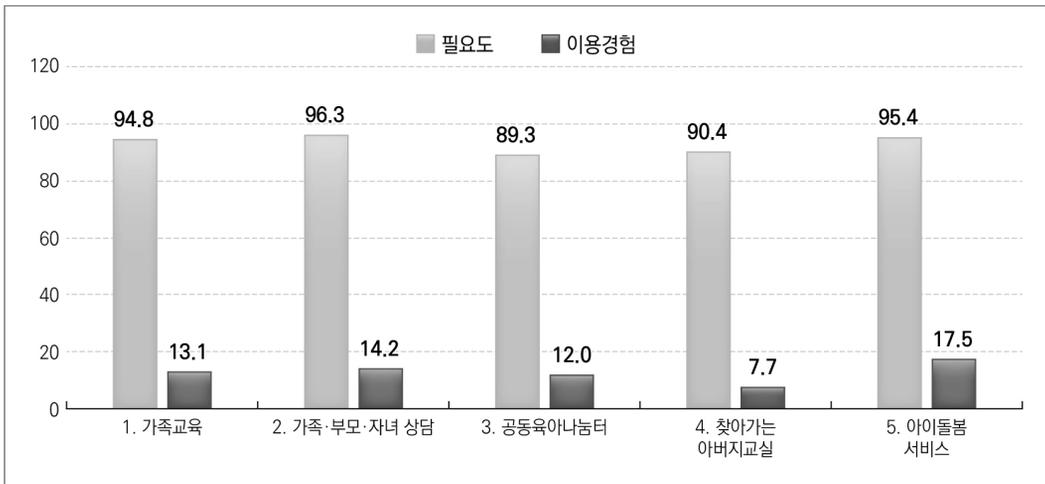
단위: %, 점

서비스	필요도		이용경험		만족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있다	없다	평균(표준편차)	
1. 가족교육	94.8	5.2	13.1	86.9	3.6	(0.9)
2. 가족·부모·자녀 상담	96.3	3.7	14.2	85.8	3.5	(0.9)
3. 공동육아나눔터(육아품앗이)	89.3	10.7	12.0	88.0	3.5	(0.9)
4.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90.4	9.6	7.7	92.3	3.5	(0.9)
5.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95.4	4.6	17.5	82.5	3.6	(1.0)

주: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만족한다' 임.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97. 〈표 V-2-21〉임.

〔그림 2〕 건강가정지원센터 양육지원 서비스 필요도, 이용경험, 만족도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97. 〈표 V-2-21〉를 그림으로 구성함.

■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 ◆ 최근 지자체별로 양육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화시켜 제공하고 있는 육아지원서비스들이 있다. 예를 들어 동작구의 어르신 등하원 서비스 지원¹⁾, 서울시의 우리동네 보육반장²⁾, 건강아기사업³⁾, 가사도우미서비스⁴⁾, 아버지교육⁵⁾, 조부모 육아교육⁶⁾ 등이 있음.

1) 어르신 등하원 서비스는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듯이 등하원, 숙제나 과제를 챙겨주기, 간식먹이기, 잠재우기 등 최소 1시간에서 4시간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살고 있는 동네에서 향후 어떠한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기 원하는 지 질의한 결과가 <표 8>임.
 - ‘가사도우미 서비스(30.9%)’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아버지 교육(20.3%)’, ‘어르신 등하원 서비스 지원(14.8%)’, ‘우리동네 보육반장(14.6%)’, ‘건강아기사업(14.3%)’, ‘조부모 육아교육(5.1%)의 순서임.
 - 모든 변인에서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은 현재 양육과정에서 가사노동의 부담이 상당함을 시사함.
 - 영아자녀를 둔 경우에는 건강아기사업(19.4%), 유아의 경우에는 가사도우미 서비스(33.7%),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버지 교육(22.7%)과 어르신 등하원서비스(17.3%)에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월평균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사도우미 서비스에의 요구가 높은 경향을 보임.

〈표 8〉 향후 육아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단위: %(명)

구분	가사 도우미 서비스	아버지 교육	어르신 등하원 서비스	우리동네 보육반장	건강아기 사업	조부모 육아 교육	계(수)
전체	30.9	20.3	14.8	14.6	14.3	5.1	100.0 (1,228)
영아	30.0	16.5	14.8	12.3	19.4	7.0	100.0 (413)
유아	33.7	21.7	12.4	14.4	13.4	4.4	100.0 (410)
초등 저학년	29.1	22.7	17.3	17.0	9.9	4.0	100.0 (405)
$\chi^2(df)$			30.057(10)***				
어머니	28.7	20.6	15.8	16.1	11.9	7.0	100.0 (603)
아버지	33.1	20.0	13.9	13.1	16.5	3.4	100.0 (625)
$\chi^2(df)$			16.757(5)**				

- 2)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의 일환으로 동네 보육반장이 육아지원 수집 및 관리, 육아상담, 육아정보 제공, 부모 모임 지원 등 우리 동네의 다양한 육아 자원을 발굴하여 양육자에게 one-stop으로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3) 건강아기사업은 임신부가 산전, 산후에 겪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부모가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임.
- 4)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육아기 가정을 위한 가사도우미 연결 서비스임.
- 5) 아버지교육은 아빠들의 육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육아정보와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춤형 육아상담과 전문 교육을 지원함.
- 6) 조부모 육아 교육은 영유아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함.

구분	가사 도우미 서비스	아버지 교육	어르신 등하원 서비스	우리동네 보육반장	건강아기 사업	조부모 육아 교육	계(수)
맞벌이	33.1	17.0	18.7	15.1	10.6	5.5	100.0 (635)
맞벌이 아님	28.3	24.1	10.9	13.4	18.6	4.7	100.0 (580)
$\chi^2(df)$	37.104(5)***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24.3	24.3	12.4	17.3	17.3	4.4	100.0 (226)
300~400만원 미만	29.5	22.8	12.5	14.7	15.7	4.8	100.0 (312)
400~500만원 미만	27.8	22.0	15.1	15.5	14.3	5.3	100.0 (245)
500~600만원 미만	35.3	15.3	12.4	15.3	15.9	5.9	100.0 (170)
600만원 이상	38.2	15.6	20.7	10.9	9.1	5.5	100.0 (275)
$\chi^2(df)$	39.040(20)**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98-199. <표 V-2-22>임.
** $p < .01$, *** $p < .001$

다. 지역사회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위해 노력해야하는 부분

- ◆ 부모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위해 노력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결과는 <표 9>와 같음.
 - 전체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지역사회 내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이 27.9%, ‘지역사회 내에 각종 양육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를 구축’ 21.9%,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 19.2%로 높은 응답을 보임.
 - 다음은 ‘부모들끼리 경험을 공유할 수 있거나 놀이 활동을 같이 하거나 물품을 나눌 수 있는 공간/기회 제공’ 13.7%, ‘육아존중문화를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추진’ 9%, ‘아이/가족이 환영받는 공간 확대(노키즈 존 지양)’ 8.2%의 순서로 나타남.
- ◆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지역사회 내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높게 답하는 경향을 보였고, 어머니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31.5%)’과 ‘아이/가족이 환영받는 공간 확대(노키즈 존 지양)(10.1%)’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 ◆ 아버지의 경우는 ‘지역사회 내에 각종 양육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를 구축(23%)’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21.6%)’, ‘육아준중문화를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추진(10.7%)’ 등에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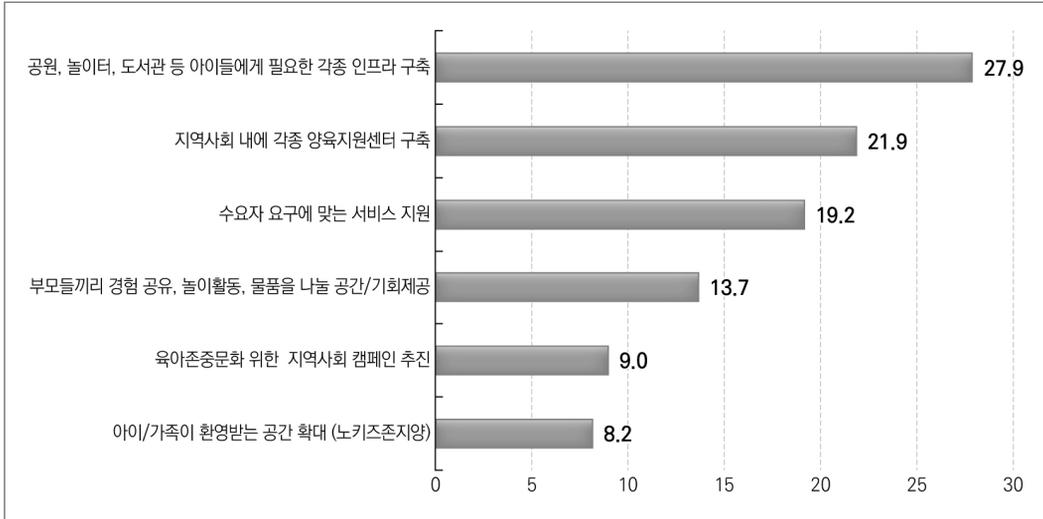
〈표 9〉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

구분	지역사회 내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내에 각종 양육지원 센터 구축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	부모들끼리 경험 공유, 놀이활동, 물품을 나눌 공간/기회 제공	육아준중 문화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추진	아이/가족이 환영받는 공간 확대 (노키즈 존 지양)	기타	계(수)
전체	27.9	21.9	19.2	13.7	9.0	8.2	0.1	100.0 (1,228)
자녀 수								
1명	25.7	22.9	19.9	13.3	10.0	8.3	0.0	100.0 (603)
2명	29.6	21.0	18.4	14.9	9.0	7.1	0.0	100.0 (510)
3명 이상	31.3	20.9	19.1	10.4	4.3	13.0	0.9	100.0 (115)
$\chi^2(df)$				21.528(12)*				
어머니	31.5	20.7	16.7	13.6	7.3	10.1	0.0	100.0 (603)
아버지	24.3	23.0	21.6	13.8	10.7	6.4	0.2	100.0 (625)
$\chi^2(df)$				20.302(6)**				
소득								
300만원 미만	24.8	23.0	15.5	14.2	11.1	11.5	0.0	100.0 (226)
300~400만원 미만	28.2	18.9	20.2	16.3	7.4	8.7	0.3	100.0 (312)
400~500만원 미만	31.4	23.3	21.6	12.2	6.9	4.5	0.0	100.0 (245)
500~600만원 미만	34.1	14.7	22.4	10.0	11.2	7.6	0.0	100.0 (170)
600만원 이상	22.9	27.6	17.1	13.8	9.8	8.7	0.0	100.0 (275)
$\chi^2(df)$				38.729(24)*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준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212. 〈표 V-3-12〉임.

* $p < .05$, ** $p < .01$.

[그림 3]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212. <표 V-3-12>를 그림으로 구성함.

3

지역사회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가.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문화 양상과 문제점은 ‘지역사회에서 양육자가 체감하는 육아 관련 가치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역 내 육아지원 서비스의 활용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경험한다.’, ‘가까운 지역사회 안에서 자녀/가족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의 요구가 높다.’, ‘농어촌 지역의 양육환경이 도시 지역보다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양육자들은 지역 내 육아지원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의 요구가 높다.’ 등으로 요약됨.
-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 <표 10>과 같이 제시함.

〈표 10〉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개선방안

지역사회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육아 관련 가치/인식은 높은 평가	•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 지역 내 육아지원 서비스 활용 어려움	•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자녀/가족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의 요구	• 육아친화적 지역환경(공원/놀이터/도서관) 조성
• 농어촌지역 양육환경이 도시지역보다 열악	• 농어촌지역 양육지원 특화
• 지역 내 육아지원 인적네트워크 형성의 요구	•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형성 지원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256. 〈표 VII-2-1〉임.

나.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 개선방안

■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 ◆ 정부, 지자체, 기업, 미디어 등을 통한 육아존중문화 개선 홍보
 - 육아문화를 홍보로 바꿀 수 있는가? 홍보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문화의 개선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접근을 요함.
 - 육아지원이 사회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도 여전히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홍보 캠페인으로 독려하고 있음.
 - 정부 수준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경우 '같이하는 육아, 함께하는 육아, 가치 있는 행복육아' 주제로 육아문화 정착 포스터 공모전⁷⁾을 진행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부터 실속육아, 작은 육아를 포함하는 육아문화 조성에 노력⁸⁾하면서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사업 추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안내할 것을 제안함.

■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 ◆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안내 강화
 - 각종 육아지원 제도가 있어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서비스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어도 그 활용이 저조함이 문제임.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10.21.). '같이하는 육아, 함께하는 육아, 가치 있는 행복육아' 함께하는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개최.

8)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 2016) 및 행복을 키우는 작은 육아: 실속육아 실천 가이드북(권미경 외, 2017) 수탁연구로 진행.

-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양육지원제도에의 안내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육아 정보를 부모들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하고, 육아 고민을 공감하면서 부모의 역량과 효능감을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⁹⁾으로 운영 중임.
 - 이러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리동네 보육반장’제도와 유사한 다른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함.
- ◆ 정부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대 및 내실화
- 부모들은 정부의 육아지원 전달체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실제 활용은 저조하였음. 단,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¹⁰⁾ 정부의 육아지원 전달체계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함을 시사함.
 - 2021년 10월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구 센터까지 포함하여 123개소¹¹⁾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7개¹²⁾가 운영 중이며, 이는 전국 분포임을 고려할 때 접근성이 떨어짐은 분명함.
 -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센터 확대가 부담이 된다면 인력의 보강을 통해 분소의 형태로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자체마다 활용이 저조한 이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센터마다 원인을 파악한 후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예를 들어, 거리가 멀어서 유모차를 밀고 오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도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 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지자체에 따라 노인을 위한 셔틀 운영), 농어촌처럼 멀리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택시비를 지원해 주거나(농촌지역에서 인구감소로 버스 운영을 중단한 대신에 장을 보러 나가는 주민들을 위해 100원 택시 서비스 제공), 대도

9)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1).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운영매뉴얼. p. 3.

10)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임.

11) 공공데이터포털. 한국보육진흥원_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24860/fileData.do> (2021.10.23 인출함).

1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역센터안내

<https://www.familynet.or.kr/web/lay1/program/S1T1C307/info/view.do> (2021. 10.23 인출함).

시의 자가용 이용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센터의 주차 공간 제공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바퀴달린 센터를 만들어, 찾아가는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며(공원이나 학교운동장, 동네 공터, 주민센터 주차장, 아파트 광장 등 이용 가능), 헌혈 버스처럼 대형버스를 개조해서 차 안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실내 놀이공간을 만들고, 외부 공터에 튜브 슬라이드나 트램폴린을 이용한 작은 이동식 놀이터 제공하고, 어르신을 위한 방문 목욕차처럼 작은 탑차를 개조해서, 지자체 내 영유아가 있는 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회방문하며 장난감이나 책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육아친화적 지역환경(공원/놀이터/도서관) 조성

◆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조성에의 요구

- 지역사회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양육자들은 ‘지역사회 내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가장 많이 선택하여 아이 기르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의 요구가 높음을 시사함.
-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의 영아를 위해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영아가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영아전용 놀이터’ 등의 설치를 제안할 수 있음.

◆ ‘KICCE 육아친화마을 진단’ 및 정책 건의

- 양육자들이 지금 거주 중인 지역사회는 육아친화적인가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건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환경정책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양육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육아친화성을 진단할 수 있는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를 개발함.¹³⁾
- 본 연구에서는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의 실천활동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활동명으로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개선의견을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는데 이와 같이 정책

13) 권미경·박원순·김지현·윤유나·손승우·윤정호·김동우·정소이·조승연·박범수(2020).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수요자의 적극적 개선요구 표현이 필요함.

■ 농어촌지역 양육지원 특화

◆ 농어촌 지역의 양육 환경 취약성

- 농어촌 지역 거주하는 경우 지역 내 육아지원 환경 개선에의 요구가 높았고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양육환경으로의 지역사회 평가 문항에서 양육지원서비스 인프라, 안전한 놀이 공간, 긴급돌봄지원, 양육관련 정보제공 등에 대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차이를 보임.
-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양육환경은 보육교육 기관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기관과 거리가 멀고, 육아지원 전달체계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며, 소아과 병원과 응급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지역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농어촌에 특화된 접근이 필요함.

◆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 농어촌에서 영유아 양육가정이 어려운 환경요인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의료시설 부족으로, 특히 소아전문병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선행연구(김은설 외, 2018)에서는 다음의 방안들을 제안하였는데, 공중보건의를 소아과 또는 가정의학 전공 의사로 농어촌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방법, 소아과 병원을 읍지역에 개원할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으로 개원을 활성화하는 방안, 혹은 건물 대여비용에 대한 대출 등 금전적 지원 환경을 제공하여 개원을 장려하는 방안, 지역 보건소 또는 공공 네트워크로 담당 의료인과 연결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주말 등 필요시 의료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임.

◆ 농어촌형 영유아 문화센터 운영

-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영유아를 위한 지역사회 내 문화공간에의 요구가 높음.
- 도시에는 영유아를 위한 문화센터, 영유아플라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 체험실, 키즈 카페 등 다양한 이용기회가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체로 이런 기회가 부족하여 지역격차를 보임.
- 농어촌에서는 이미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내

도서관을 중심으로 농어촌형 영유아 문화센터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 장소는 도서관이나 초등학교의 빈 교실, 주민센터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도서관의 전문 인력과 재정으로 지역 내 물리적 환경을 이용하여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공연, 인형극, 독서교실, 체험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형성 지원

◆ 소규모 육아모임에의 요구

- 부모들은 자녀를 통해 만난 또래 부모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함.
- 회사동료, 친구, 산후조리원 동기, 유치원 엄마 등 오프라인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언을 듣고, 서로 힘을 얻음.
- 부모들은 지역 및 동네에서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소규모 육아모임이 있고, 활성화되어 참여하기를 희망함.
- 지역사회 기반 육아공동체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지자체 내의 공공장소를 활용하여 육아하는 가정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제공하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적 육아공동체가 지역사회(social community)안에서 조성될 필요가 있음.

◆ 부모-자녀 공동 활동 공간 '육아정(育兒停)' 설치

- 육아정(育兒停)은 노인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육아를 위한 마을 내 공간을 구성하자는 것임.
- 부모가 자녀가 함께 방문하여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부모끼리의 육아정보 교환이 가능한 공간으로 육아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육아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지는 공간임.
- 육아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소의 기능을 담당하며, 시군구 육아종합센터에서 지역 내 육아정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상근 보육전문요원의 파견이 어렵다면 요일제로 파견하여 부모상담 프로그램, 체험교실, 부모교육, 양육중심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 재정 수준이 가능하다면 공공 키즈 카페로의 운영도 고려할 수 있음.
- 만약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이 어렵다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방식으로

은퇴한 교사나 단기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도 가능함.

◆ 건강한 온라인 공동체 조성 방안

- 육아하는 가족 간에 지역 내 육아용품의 나눔이 증가하고, 지역맘 카페 등 온라인 육아 관련 활동에의 참여가 활발함이 육아문화 양상 중 하나임.
- 현재 부모들의 대표적인 온라인 공간은 지역 맘카페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물품을 교환하기도 하나, 지역 맘카페의 역기능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음.
- 지역 맘카페는 육아정책의 안내와 홍보의 효과적인 창구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육아지원 전달체계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역 맘카페 담당 업무를 설정하여 정기적인 정책의 안내와 홍보, 부모지원 자료의 배포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둘 것을 제안함.
- 대표적인 지역 맘카페의 운영자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 등으로 연계해서 일방향적인 정책 안내나 홍보가 아닌 쌍방향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

■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형성

◆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 온라인 공간이 육아정보의 교환이나 소통의 장으로서 큰 영향을 발휘함.
- 자칫 편향된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음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복지로, 육아정책연구소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육아관련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연계하여 육아지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지역사회 내 기관 간 연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가족친화 유관기관 연계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그 특색을 살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중심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처럼 ‘육아친화상점’ ‘아동친화식당’ ‘육아친화노래방’ 등의 인증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화장실에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아동 맞춤 세면대나 변기가 있으며, 유모차 파킹 공간이 있는 등 아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되는 곳은 지자체에서

영업장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 제공하자는 것임.

- ◆ 지역사회 기업 중심의 육아지원 네트워크 조성
 -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친화문화 확산협의회’의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육아지원을 강화하고,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포럼, 홍보, 교육 등 지역사회 기업 간 협업사업을 통해 가능함.

I 참고 문헌 I

- 공공데이터포털. 한국보육진흥원_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24860/fileData.do> (2021.10.23 인출함).
- 권미경·김지현·김영민·박혜준·서혜민·강향미·송지연(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박원순·김지현·윤유나·손승우·윤정호·김동우·정소이·조승연·박범수(2020).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김지현·이재희·김혜진·안석(2018).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1).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운영매뉴얼. p. 3.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역센터안내
<https://www.familynet.or.kr/web/lay1/program/S1T1C307/info/view.do>
(2021.10.23. 인출함).

| 이슈페이퍼 2022-07 |

동아시아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 비교 - 한·중·일 전문가 인식을 기반으로 -

도남희

1. 한·중·일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배경과 문제점
2. 한·중·일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정책 인식
3. 한·중·일 국가의 육아 환경 정책 제언
4. 한·중·일 국가의 육아 환경 변화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동아시아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 비교*

- 한·중·일 전문가 인식을 기반으로 -

도남희 연구위원

◆◆ 요약 ◆◆

-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 환경 조성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기반으로 세 국가의 제도 구비, 이용 및 개선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 한국의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의 이용률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시행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많음.
- 현행 법정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을 위해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도를 중소기업 사업장으로의 이용 확대 등 사각지역의 해소가 우선시 되어야 함.
- 중국은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의 뚜렷한 구분이 없고 출산과 육아보장 대상과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육아정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출산지원 제도의 높은 이용률에 비해 제도 관련 정책 이해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제도임. 또한 법정 육아휴직이 보완도 시급히 필요한 부분임.
- 일본 정부는 일과 육아 양립 지원 및 여성 활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율 개선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대기업 중심의 제도 사용이 많음.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고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요구가 많음.
- 공동 양육을 위한 일과 육아 양립 지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기업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는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직장 및 사회의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후 그들의 자녀관과 양육신념에 부응하는 정책 보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0년 기본과제 「동아시아(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도남희·이정원·김지수·김명중·김병철·소마 나오코·야오젠핑, 2020)」를 기반으로 작성됨

1

한·중·일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배경과 문제점

가. 한·중·일 국가 관련 주요 정책

-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직장과 사회의 육아 환경 조성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기반으로 세 국가의 제도 구비, 이용 및 개선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 ◆ 한국의 직장과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관련 기본계획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있음. 최근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21~2025)(관계부처 합동, 2020)”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음. 또한 “제6차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7~2022)(관계부처 합동, 2017)”도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거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성평등한 육아 참여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 중국의 직장과 사회의 육아환경 관련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여성권익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중국여성발전요강, 중국아동발전요강 등의 법을 근거로 남녀평등과 아동을 우선 보호하고자 함.
 - ◆ 일본의 직장과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 현장’ 및 ‘일과 생활의 조화추진을 위한 행동지침’을 발표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를 기업에 실천을 장려하여 왔음. 최근에는 ‘여성활약추진법’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시행하였음.
- 직장과 사회의 육아 환경 조성 관련 정책과 법은 명칭과 내용은 다르지만, 직장과 사회에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나. 한·중·일 국가 주요 정책의 문제점

- 국기별로 직장과 사회의 육아 환경 조성 관련 정책과 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한계도 있음.
 - ◆ 임신·출산기와 양육기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어 대규모 기업에서 이용률은 꽤 높은 편이지만, 전체 사업장에서 이용률이 높지는 않고 유연근로제

의 활용실적이 그리 높지 않음.

- ◆ 중국은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의 뚜렷한 구분이 없고 육아 시간보장 관련 뚜렷한 지원이 없어 출산과 육아보장 대상과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육아정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 일본의 육아휴직은 여성의 육아휴직률은 높은 편이나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고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육아휴직법에 따른 규정 마련이 어렵고 실질적 지원이 미흡함. 유연근무제도 역시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추세 속에, 영아보육에 대한 보육 지원요구가 많음.

2 한·중·일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정책 인식

- 2절의 한중일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정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20년 실시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시함.
 - ◆ 조사 대상은 한국의 전문가 21명, 중국의 전문가 26명, 일본의 전문가 21명임.
 -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학계 종사자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은 NGO/NPO 종사자가 많았음.
 - ◆ 조사 내용은 임신·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에 대한 내용을 설문지로 작성하고 각 나라별로 번역을 실시한 후 다시 역번역 후 의미가 같은 지를 교차 체크한 후 실시함.

〈표 1〉 임신·출산기 지원제도의 구비 정도

구분	한국(N=21)	중국(N=26)	일본(N=21)
성별			
남	71.4	69.2	33.3
여	28.6	30.8	66.7
분야			
학계	61.9	50.0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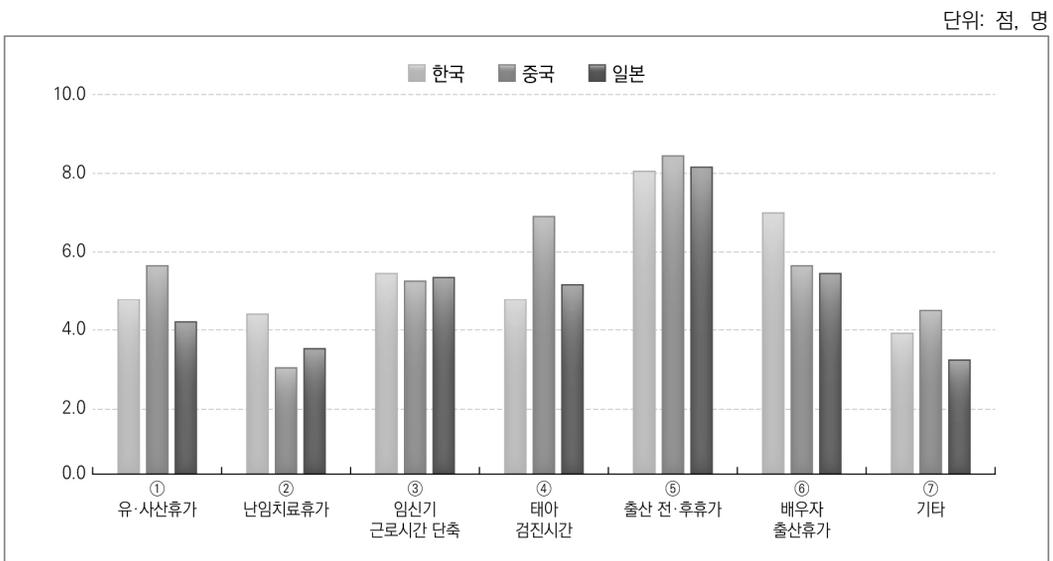
구분	한국(N=21)	중국(N=26)	일본(N=21)
공무원	4.8	3.8	-
NGO/NPO	9.5	26.9	23.8
미디어 관련	4.8	-	4.8
기타	14.3	19.2	9.5

가. 직장의 육아환경 인식과 요구

■ 임신·출산기의 제도 관련 인식과 요구

- ◆ 전문가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제도의 구비 정도를 확인한 결과, 한국, 중국과 일본 모두 출산전후휴가가 가장 구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한국과 일본은 두 번째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잘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은 태아검진시간이라고 응답함.

[그림 1] 임신·출산기 지원제도의 구비 정도



주: 1) 10점 척도의 평균값임.

2) 유·사산 휴가는 유산과 사산 주수에 따라 5일~90일까지 휴가를 차등부여하는 제도임.

3)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부여함(연간 3일).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을 앞 둔 임신 중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5) 태아검진시간은 임신7개월까지는 2개월 마다 1회, 임신 8~9개월은 1개월마다 1회, 임신 10개월 이후는 2주마다 1회 검진시간을 허용하는 제도임.

6) 출산전·후휴가는 산전, 산후로 90일간 가능하며 산후에 45일 이상 배정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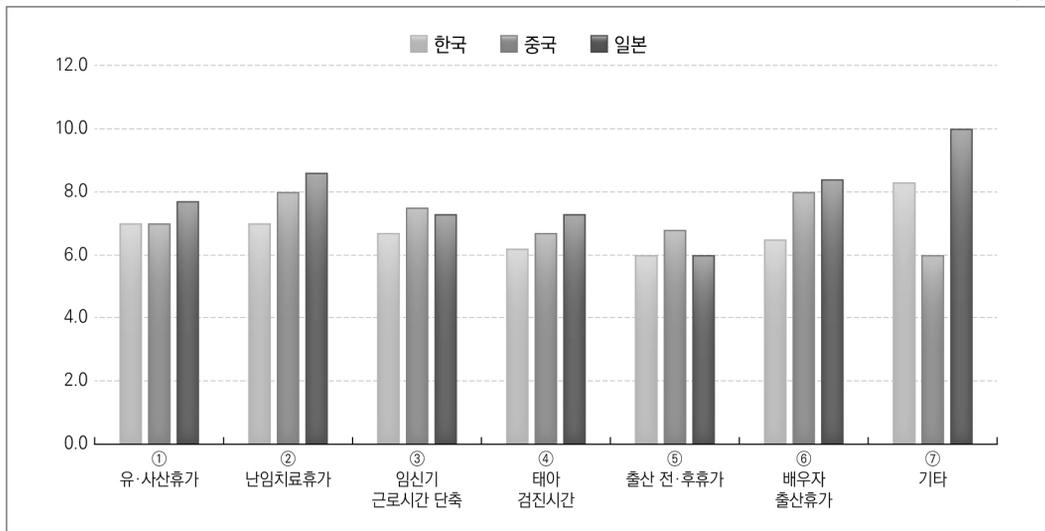
7)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 시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함.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 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35, <표 IV-1-3>, p. 154, <표 IV-2-3> p. 173, <표 IV-3-3> 발췌·수정함.

- ◆ 임신·출산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한국은 유·사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중국과 일본은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하였음.

[그림 2] 임신·출산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

단위: 점, 명



주: 1) 10점 척도의 평균값임.

2) 기타 값의 내용은 한국은 임신기 지지기반 관련 등, 일본은 출산 전후 케어 관련임.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37, <표 IV-1-4>, p. 155, <표 IV-2-4> p. 174, <표 IV-3-6> 발췌·수정함.

- ◆ 이러한 각각의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한 가지 제도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배우자출산 휴가'로 한국은 28.6%, 중국은 32.0%, 일본은 42.1%로 응답하였음.

〈표 2〉 가장 개선이 필요한 임신·출산기 지원 제도

단위: %, 명

구분	한국		중국		일본	
	1순위	수	1순위	수	1순위	수
① 유·사산 휴가	14.3	3	4.0	1	-	-
② 난임치료휴가	9.5	2	8.0	2	15.8	3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9.0	4	20.0	5	15.8	3
④ 태아검진시간	9.5	2	12.0	3	5.3	1
⑤ 출산전·후휴가	14.3	3	24.0	6	15.8	3
⑥ 배우자출산휴가	28.6	6	32.0	8	42.1	8
⑦ 기타	4.8	1	-	-	5.3	1

주: 1) 1순위에서 3순위를 응답했으나 1순위 값만 인용하여 응답수가 많지 않음.

2) 기타 내용은 한국 관련 규정 수립 및 준수, 일본은 출산 전후 케어 관련, 중국 조사는 기타내용이 조사되지 않았음.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37, 〈표 IV-1-7〉, p. 156, 〈표 IV-2-7〉 p. 175, 〈표 IV-3-7〉 발췌·수정함.

- ◆ 임신·출산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9%, 중국은 이용 기간이라는 응답이 64.0%,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8%로 가장 많았음.

〈표 3〉 임신·출산 지원제도의 개선 필요 내용

단위: %, 명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① 이용기간	14.3	3	64.0	16	12.5	2
② 비용지원	4.8	1	12.0	3	18.8	3
③ 사용대상	14.3	3	16.0	4	6.3	1
④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61.9	13	8.0	2	43.8	7
⑤ 기타	4.8	1	-	-	18.8	3

주: 1) 소수 첫째자리로 맞춰 결과치를 제시하여 백분율 합계 ±0.1~0.2% 오차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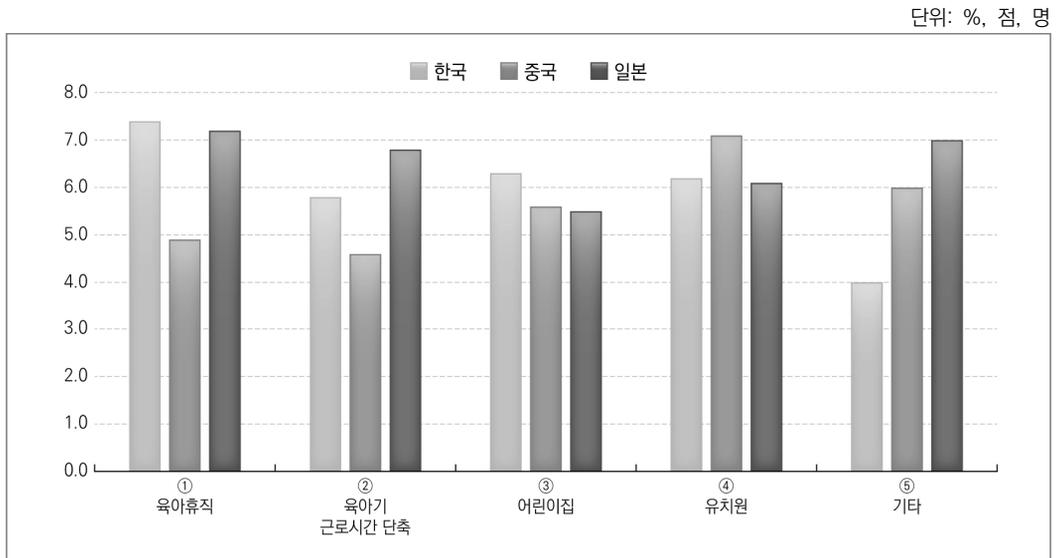
2) 기타 내용은 한국은 가족친화와 부부동시 육아휴직 등 내용으로 적절치 않으며, 일본은 태아 검진, 출산휴가 신설, 남성 휴가 이용 의무화 등, 중국 조사에는 기타내용이 조사되지 않았음.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38, 〈표 IV-1-8〉, p. 157, 〈표 IV-2-8〉 p. 176, 〈표 IV-3-8〉 발췌·수정함.

■ 육아지원제도 관련 인식과 요구

-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육아기 제도 구비 정도를 확인한 결과, 한국과 일본은 육아휴직 제도가 제일 구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은 유치원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함. 중국과 한국은 두 번째로 어린이집이 잘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함.

[그림 3] 육아기 지원 제도의 구비 정도



주: 1) 기타 값의 경우는 모두 응답하지 않아 전체 응답자보다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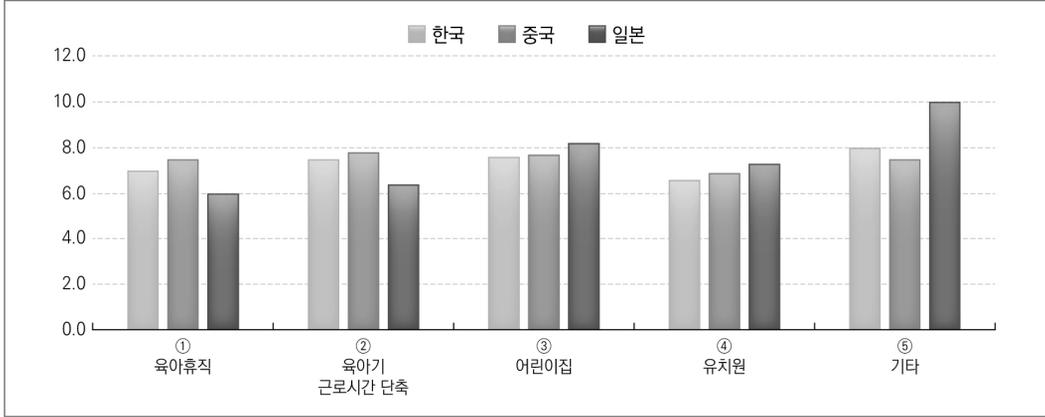
2) 기타 내용은 한국의 경우 가족친화제도, 부부동시 육아휴직, 일본은 육아광장 등.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39, <표 IV-1-10>, p. 157, <표 IV-2-10>, p. 176, <표 IV-3-10> 발췌·수정함.

- ◆ 육아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중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두 번째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한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국은 어린이집, 일본은 유치원 관련 개선이었음.

[그림 4] 육아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

단위: %, 점, 명



주: 1) 기타 내용은 한국은 가족친화제도, 부부동시 육아휴직, 일본은 사립보육시설인가 등.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1, <표 IV-1-13>, p. 159, <표 IV-2-13>, p. 178, <표 IV-3-13> 발췌·수정함.

- ◆ 육아지원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한 가지 제도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한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42.9%, 중국은 육아휴직 제도 36.0%, 일본은 어린이집에 관련 개선이 73.7%로 가장 많았음.

<표 4> 가장 개선이 필요한 육아기 지원 제도

단위: %, 명

구분	한국		중국		일본	
	1순위	수	1순위	수	1순위	수
① 육아휴직	28.6	6	36.0	9	5.3	1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2.9	9	24.0	6	10.5	2
③ 어린이집(직장·국공립)	19.0	4	28.0	7	73.7	14
④ 유치원	9.5	2	8.0	2	5.3	1
⑤ 기타	-	-	-	-	5.3	1

주: 기타 내용은 일본의 출산 전후 케어 관련임.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1, <표 IV-1-14>, p. 160, <표 IV-2-14>, p. 178, <표 IV-3-14> 발췌·수정함.

- ◆ 육아기 지원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한국의 경우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28.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국은 이용 기간(28.0%)에 대한 개선, 일본은 기타(65.0%) 내용이 많았음.

〈표 5〉 육아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내용

단위: %, 명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① 이용기간	19.0	4	28.0	7	5.0	1
② 비용지원	4.8	1	20.0	5	10.0	2
③ 사용대상	14.3	3	24.0	6	15.0	3
④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28.6	6	20.0	5	5.0	1
⑤ 기타	33.3	7	8.0	2	65.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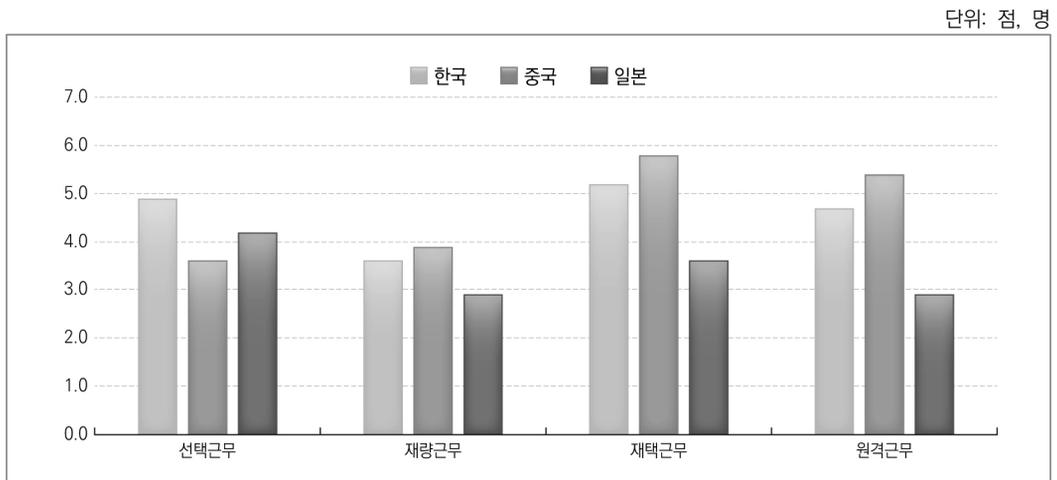
주: 기타 내용은 한국의 경우 취업자녀 중심 프로그램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강화, 직장 내 관련 제도 규정 수립 및 준수 여부 등이며 일본은 보육의 질 제고, 대기 아동 문제 등임.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정책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1, 〈표 IV-1-15〉 p. 160, 〈표 IV-2-15〉, p. 179, 〈표 IV-3-15〉 발췌·수정함.

■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과 요구

-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의 구비 정도를 확인한 결과, 유연근무제 중 한국과 중국은 재택근무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본은 선택근무제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함.

〔그림 5〕 유연근무제의 구비 정도



주: 1) 선택근무는 일정기간(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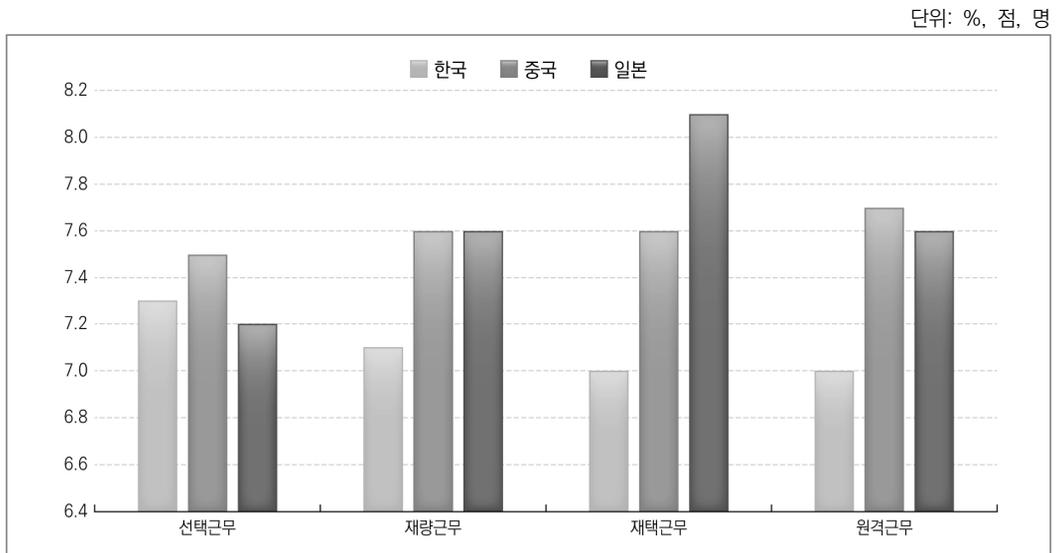
2) 재량근무는 업무 특성에 의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 3)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임.
- 4) 원격근무는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임.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3, <표 IV-1-17>, p. 161, <표 IV-2-17>, p. 180, <표 IV-3-17> 발췌·수정함.

- ◆ 유연근무제 개선 필요 정도가 가장 많은 제도는 한국은 선택 근무, 중국은 원격근무, 일본은 재택 근무로 나타남.

[그림 6] 유연근무제의 개선 필요 정도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4, <표 IV-1-20>, p. 163, <표 IV-2-20>, p. 181, <표 IV-3-20> 발췌·수정함.

- ◆ 유연근무제 중 가장 개선이 요구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한국은 선택근무와 원격근무가 동일하게 28.6%로 응답되었고, 다음으로 재택근무 23.8%였고, 중국은 선택근무 30.4%, 재량근무 26.1% 순이었고 일본은 재택근무 47.4%, 재량근무 21.0% 였음.

〈표 6〉 가장 개선이 필요한 유연근무제

단위: %, 명

구분	한국		중국		일본	
	1순위	수	1순위	수	1순위	수
① 선택근무	28.6	6	30.4	7	15.7	3
② 재량근무	19.0	4	26.1	6	21.0	4
③ 재택근무	23.8	5	21.7	5	47.4	9
④ 원격근무	28.6	6	21.7	5	10.5	2
⑤ 기타	-	-	-	-	5.2	1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4, 〈표 IV-1-21〉, p. 163, 〈표 IV-2-21〉, p. 182, 〈표 IV-3-21〉 발췌·수정함.

- ◆ 개선이 필요한 유연근무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한 결과, 한국은 사용 대상의 확대가 많았고, 중국은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용 대상의 확대와 기타 내용에 해당하는 공적 보육, 보육의 질과 양적 확대 등이 주요 개선 내용이었음.

〈표 7〉 유연근무제의 개선 필요 내용

단위: %, 명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① 이용기간	9.5	2	26.1	6	-	-
② 비용지원	9.5	2	4.3	1	-	-
③ 사용대상	61.9	13	26.1	6	31.6	6
④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19.0	4	43.5	10	21.0	4
⑤ 기타	-	-	-	-	47.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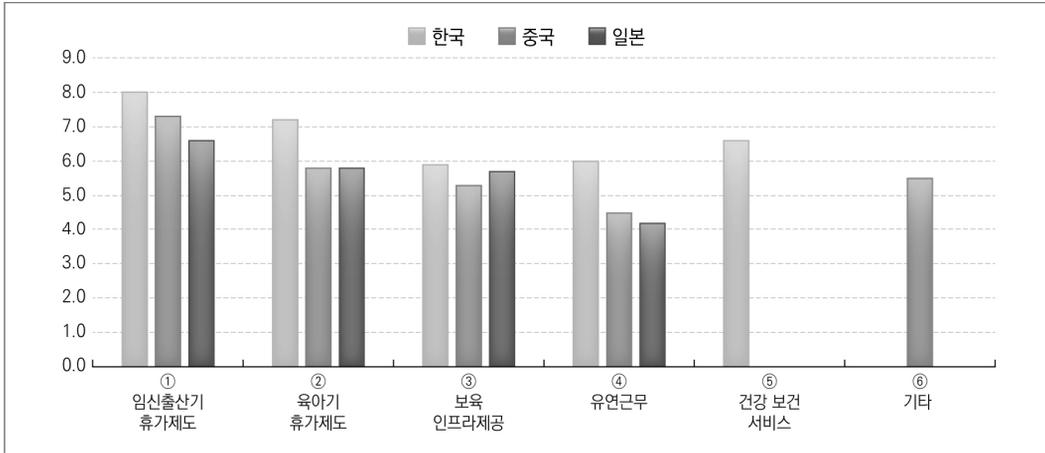
주: 일본의 기타 내용은 공적 보육 보장, 보육의 질 제고와 양적 확대, 기업 내 근로자 권리 보호, 재택근무의 관리 시스템화 등이 제시되었음.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5, 〈표 IV-1-22〉, p. 163, 〈표 IV-2-22〉, p. 182, 〈표 IV-3-22〉 발췌·수정함.

- ◆ 한편 직장의 육아환경 지원 제도의 자유로운 이용 정도를 확인한 결과, 한국, 중국과 일본 모두 임신·출산기 휴가휴직제도에 높은 점수를 주어 비교적 이용이 가능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음. 한편 한국은 보육인프라 제공, 중국과 일본은 유연근무제 이용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함.

[그림 7] 직장의 육아환경 지원 제도의 자유로운 이용 정도

단위: %,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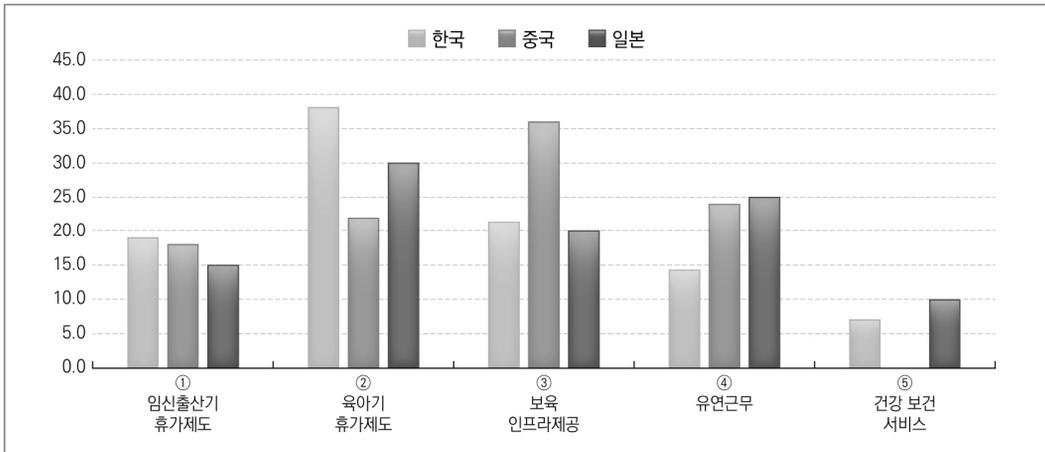
주: 중국은 ⑤ 건강보건 서비스에 대한 응답이 없었고 기타 값에 응답함.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5, <표 IV-1-23>, p. 164, <표 IV-2-23>, p. 182, <표 IV-3-23> 발췌·수정함.

- ◆ 저출산 극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해, 한국은 육아기 휴가휴직제도 (38.1%)였고, 중국은 보육인프라 제공(36.0%), 일본은 육아기 휴가휴직제도(30.0%) 라고 응답함.

[그림 8] 저출산 극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중복응답)

단위: %,명



주: 중국은 ⑤ 건강보건 서비스에 대한 응답 없었음.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6, <표 IV-1-24>, p. 164, <표 IV-2-24>, p. 183, <표 IV-3-24> 발췌·수정함.

나. 사회의 육아환경 인식과 요구

■ 가족친화제도 실시 여부와 내용

- ◆ 한·중·일의 가족친화제도의 실시 여부를 확인함. 가족친화제도를 잘 실행하고 있는 비율로 볼 때 한국이 71.4%, 일본이 66.7%, 중국은 46.2%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이 가족친화제도를 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실시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은 법령 제정과 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도 관련 법령 제정, 프로그램 실시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본은 컨설팅을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함.

〈표 8〉 가족친화제도의 실시 여부와 내용(중복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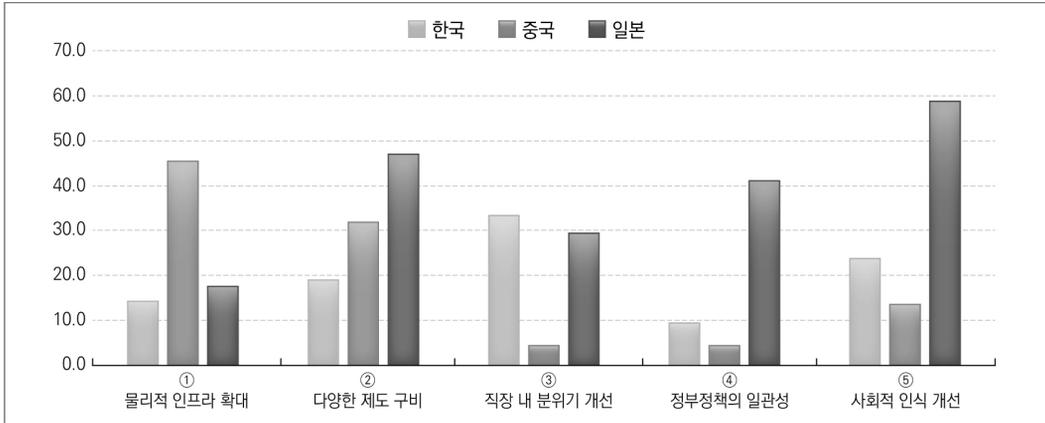
구분	실시 여부		가족친화제도 내용					
	아니오	예	관련법령 제정	교육프로 그램실시	컨설팅 제공	기업인센티브 제공	모니터링 실시	기타
한국	28.6	71.4	37.1	14.3	11.4	20.0	11.4	5.7
중국	53.8	46.2	38.1	19.0	19.0	14.3	4.8	4.8
일본	33.3	66.7	27.8	22.2	50.0	27.8	22.2	-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6, 〈표 IV-1-25〉, p. 165, 〈표 IV-2-25〉, p. 183, 〈표 IV-3-25〉 발췌·수정함.

- ◆ 가족친화제도에 대해 노력이 필요한 측면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직장 내 분위기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 중국은 물리적 인프라 확대와 다양한 제도 구비, 일본은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더 필요한 노력으로 보았음.

[그림 9]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에 대한 노력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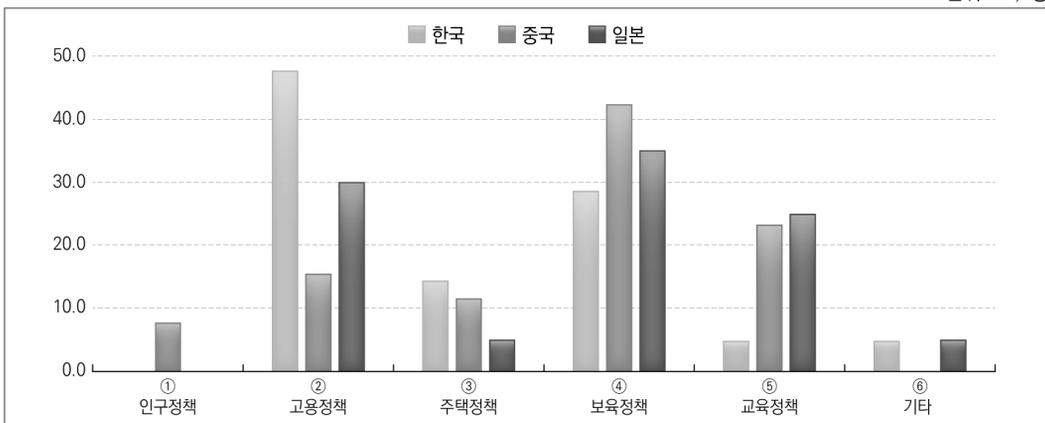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7, <표 IV-1-25-1>, p. 166, <표 IV-2-25-1>, p. 184, <표 IV-3-25-1> 발췌·수정함.

■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 제도 및 가치

- ◆ 사회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질문한 결과, 한국은 고용정책, 중국과 일본은 보육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함.
- 1순위로 응답한 내용 중 두 번째 응답은 한국은 보육정책, 중국은 교육정책, 일본은 고용정책이었음.

[그림 10] 사회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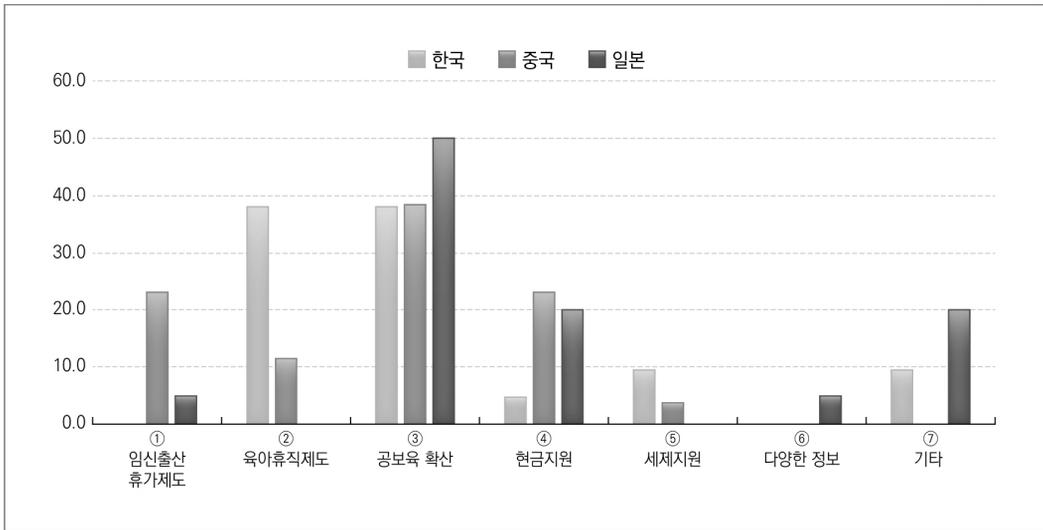
주: 일본의 기타 내용은 경제 정책 마련, 교통 정책, 마을 만들기 등임.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9, <표 IV-1-29>, p. 168, <표 IV-2-29>, p. 186, <표 IV-3-29> 발췌·수정함.

-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를 확인한 결과, 한국은 육아휴직제도와 공보육확산을 주요 추진제도로 응답하였고 중국은 공보육 확산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제도로 그 다음은 임신출산휴가제도와 현금지원이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본은 공보육확산을 우선 추진과제로 그 다음은 현금지원 제도를 응답함.

[그림 11] 사회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1순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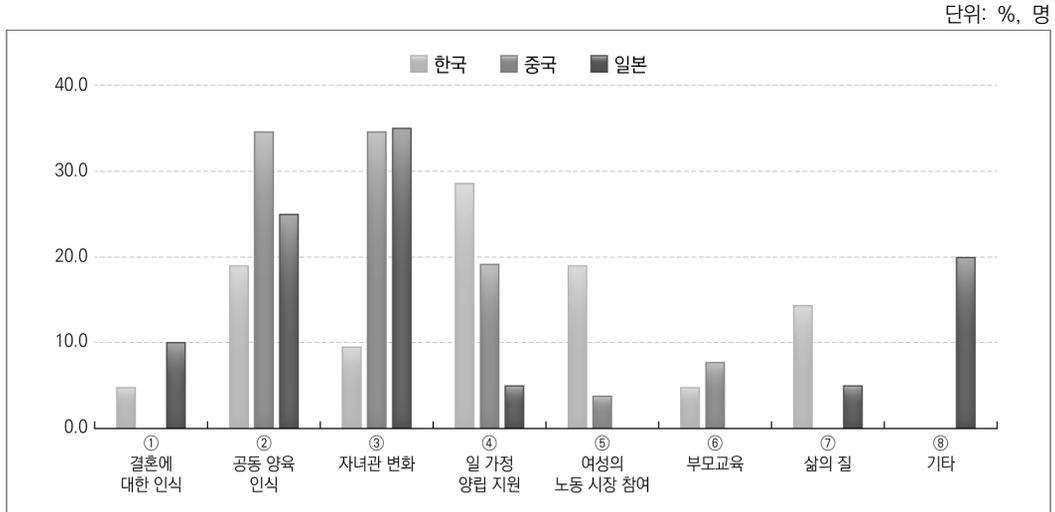


주: 일본의 기타 내용은 근로방식 개혁, 어린이 친화적인 마을 만들기,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 등임.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50, <표 IV-1-30>, p. 169, <표 IV-2-30>, p. 187, <표 IV-3-30> 발췌·수정함.

- ◆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확인함. 한국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공동 양육 인식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였음.
- ◆ 중국은 공동 양육 인식과 자녀관 변화¹⁾가 중요 사회적 가치로 응답되었고 그 다음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었음.
- ◆ 일본은 자녀관 변화가 우선적인 중요 가치였고, 그 다음이 공동 양육 인식이었음.

1) 1가구 1자녀 정책이 실시된 후인 1980년 이후 출생산 중국의 외동 아들과 딸들은 '소황제'로 불리며 모든 가족의 관심아래 풍요로운 물질과 자유로운 정신을 소유하여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하여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힘들어 함.

[그림 12]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



주: 일본의 기타 내용은 경제 성장, 젠더불평등, 다양성 수용, 장시간 노동 문제 등임.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51, <표 IV-1-31>, p. 170, <표 IV-2-31>, p. 188, <표 IV-3-31> 발췌·수정함.

3 한·중·일 국가의 육아 환경 정책 제언

가. 한국

- 한국은 계속되는 초저출산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직장과 사회의 정책 변화가 요구됨.
 - ◆ 사업장에서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의 이용률은 기업 규모와 사내 분위기에 의해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업종과 규모에 따라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
 - ◆ 제도의 시행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현장 적용에의 어려움이 많음.
- 이에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현재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도를 중소기업 사업장으로의 이용 확대 등 사각지역의 해소가 우선시 되어야 함 (이재희, 도남희, 엄지원, 2018).

- ◆ 출산휴가 관련 인식과 이용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은 성별이나 업종에 따른 편차가 나타나므로 필요에 따라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고 업종에 맞는 제도를 시행,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필요함. 조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사내 분위기에 의해 제도의 이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위기 개선도 필요함.
- ◆ 사회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공보육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볼 때 국민들이 주거지 가까이에서 이용할 있는 공보육 시설의 확산과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 ◆ 한국 사회의 저출산 심화와 결혼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크다고 볼 때 고용정책과 일 가정 양립 정책 지원에 대한 조화로운 정책의 실현이 필요한 시점임. 젊은 세대들을 위한 고용정책과 결혼관의 변화에 부합되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 현장에서 근로자의 복지와 양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나. 중국

- 중국은 아직 체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전의 인구 성장률에 비해 감소세에 있으며 이에 대비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 2000년 이후 중국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 돌봄 및 학령 전 아동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나 일반 가정의 육아 문제는 국가로부터 지원보다는 여전히 사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음.
 - ◆ 대다수 정부 조치들은 아동 돌봄 부족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에 그쳤으며, 일반 가정의 육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대응은 부재함.
 - ◆ 가정구조 변화, 경제전환, 인구고령화 심화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및 직장의 육아정책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 출산전후휴가와 산전 검사의 이용률은 높고 두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나 출산지원 제도의 높은 이용률에 비해 일부 근로자들은 관련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이 바빠서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음. 특히 임신·출산기 제도의 개선 방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제도임.

- ◆ 육아지원 제도에 관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지만 이에 대한 충족이 어려움.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많지 않음.
- ◆ 실제로 중국은 법정 육아휴직이 없으므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임. 한편 대다수 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재택근무제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사회의 양육 환경에 있어 임신·출산기 휴가·휴직 제도와 보육 인프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사회의 양육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육아비용과 일-가정 양립 환경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 육아 지원 서비스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자녀양육 환경 조성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에서도 유연한 근무 시간 배정, 전문적인 보육, 양육, 영아 돌봄의 장소 및 시간 제공, 합리적인 휴식 시간 배정 등의 시행이 요구됨.

다. 일본

- 일본은 최근 저출산 기조를 벗어나 1.36(2019)대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의 육아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 일본 정부는 일과 육아 양립 지원 및 여성 활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출산율 개선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왔음. 이전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일과 육아 양립지원 정책 및 기업 의식은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 육아에 대한 남녀 간의 역할 분담도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육소의

대기 아동은 아직도 약 1만 2천명에 달하고 있음.

■ 이에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 공동 양육을 위한 일과 육아 양립 지원에 대한 홍보과 교육이 필요함. 여성이 아이를 낳아 안심하며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일본의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이 필요함.
- ◆ 직장의 보다 개선된 육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가 필요함. 코로나 19 이후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을 시도하고 경험하면서 시간의 적절한 활용에 따라 육아와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을 인식함. 향후 일하는 방식의 선택지로서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 또한 유연근무제의 다양한 형태의 적용이 필요함. 최근 재택근무 등의 원격 근무와 출장 등이 이전보다 보급되어 기업의 인사제도와 인재 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로자의 가족 형성 및 육아가 지금보다 쉬워져 출산율 개선에 효과가 기대됨.
- ◆ 지역 활성화와 출산율 개선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의 정책 실현이 필요함. 코로나 19의 감염 확대의 영향을 받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근로자의 지방 이주도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출산율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임.

4

한·중·일 국가의 육아 환경 변화에의 시사점

■ 한·중·일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변화

- ◆ 한국은 초저출산의 기초 속에서 출산율을 회복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 기초를 살피면서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은 두 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서 향후 정책 기초에 대한 준비와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전망함.

- ◆ 최근 초저출산의 기저에는 결혼관의 변화, 나홀로 가구의 증가, 만혼, 출산 연령의 증가 등의 공통된 원인들이 있으나 어떠한 대응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저출산의 양상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됨.
 -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일본의 총괄 정책은 출산율 회복을 가져왔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과 육아부담을 완화하려는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통찰이 필요함.
 - 한국은 초저출산 기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해당 세대의 요구를 통해 정책을 보다 정교화하고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한국과 일본을 본보기로 향후 인구정책의 초점과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의 대응이 필요함.
 - ◆ 각국의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직장과 사회의 문화가 변화가 필요하며 이후 그들의 자녀관과 양육신념에 부응하는 정책 보완이 필수적임.
 - ◆ 한중일 세 국가는 임신 출산 관련 제도는 어느 정도 구비되었고 이용 가능하나 유연 근무제 이용과 사용 요구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 보임.
 - ◆ 한국은 출산과 육아 관련 다양한 법정제도가 구비되어 활용도도 높으나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육아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함.
 - ◆ 중국은 출산과 육아정책의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적으로 보육을 해결하고 있는 현 상황을 넘어서 보육인프라 특히, 공보육의 확충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육아 정책 체계의 구축의 필요함.
 - ◆ 일본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른 육아휴직의 차이를 해소하도록 하며 대기 아동의 해소를 위한 공보육 확충이 필요함. 또한 최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I 참고 문헌 I

도남희, 이정원, 김지수, 김명중, 김병철, 소마 나오코, 야오젠핑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문무경, 박상신, 김병철, 이연화(2018).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I): 한·중·일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전략의 특징.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도남희, 엄지원(2018).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관계부처 합동(2017).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21~2025).

PART

03

포용적 육아 지원

- ▮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 영향 요인 및 지원 방안
박은정
- ▮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양육환경 실태와 개선과제
이윤진
- ▮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
이정원

| 이슈페이퍼 2022-04 |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 영향 요인 및 지원 방안

박은정

1. 배경 및 문제제기
 2.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과 부모 요인
 3.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과 외부 지원 서비스 요인
 4. 정책제언
- 참고문헌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 영향 요인 및 지원 방안*

박은정 부연구위원

◆◆ 요약 ◆◆

- 이중언어 지원 사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영유아기 시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보고는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부모 요인과 외부 지원 서비스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함.
- 부모 요인으로 이주민 부모의 가정 내 사용 언어, 부모의 자녀양육 정서, 부모의 역할 효능감, 이중언어 습득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 정도,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 정도, 자녀 양육지지 자원이 이중언어 사용 등 자녀의 가정 내 일상언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외부 지원 서비스 요인으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중언어 관련 안내 및 지도,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모국어 지원 서비스가 이중언어 사용 등 자녀의 가정 내 일상언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연구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및 교육보육기관의 이중언어 인식 제고, 출신국별 자조모임을 활용한 지원 사업 실시,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이중언어 지원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언함.

1

배경 및 문제제기

- 2010년에 수립된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이중언어 교육 관련 지원이 명시 되었으며, 이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중언어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으나

* 본고는 「박은정·문무경·윤지연·임동선·Weng-Feng Lai(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정해숙 외, 2014),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 이주민 부모의 언어에 대한 자녀의 긍정적 인식 정도가 낮아졌으며, 이주민 부모의 언어 사용 격려 정도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최운정 외, 2019).
- ◆ 따라서 이중언어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음에도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 특히, 영유아기 시기에 이중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 가족 형성 초기인 영유아기는 가정 내 언어의 기틀을 구성하는 결정적 시기이며 (Abdelilah-Bauer, 2016), 다문화 영유아는 자연스럽게 이중언어에 노출됨에 따라 동시적 이중언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이 중요함.
 - ◆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인식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교육이 요구됨.
- 따라서 본고는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부모 요인과 외부 지원 서비스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¹⁾

2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과 부모 요인

가. 부모의 사용 언어

- 가정 내에서 다문화 영유아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이주민 부모의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1)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21년에 실시한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음. 해당 설문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에 만3세~만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 이주민 부모는 가정 내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가끔씩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음.
- ◆ 가정 내에서 자녀의 일상언어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부모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 자녀도 일상적으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민 부모가 주로 모국어를 사용하거나 모국어만 사용할 경우보다 이중언어(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를 사용할 경우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즉, 부모가 가정 내에서 적절히 이중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을 확인함.

〈표 1〉 이주민 부모의 가정 내 사용언어

단위: %, 명

구분	한국어만 사용	주로 한국어, 가끔 모국어 사용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	주로 모국어, 한국어 가끔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계	(수)
전체	13.4(71)	48.8(259)	25.6(136)	7.3(39)	2.3(12)	2.6(14)	100.0	(531)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2.1(54)	54.2(91)	8.9(15)	3.6(6)	0.6(1)	0.6(1)	100.0	(168)
주로 한국어 사용	5.3(14)	60.8(160)	26.6(70)	5.7(15)	0.8(2)	0.8(2)	100.0	(263)
이중언어 사용	4.2(3)	6.9(5)	63.9(46)	15.3(11)	6.9(5)	2.8(2)	100.0	(72)
기타	0.0(0)	10.7(3)	17.9(5)	25.0(7)	14.3(4)	32.1(9)	100.0	(28)
χ^2	319.009***							

주: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자료: 박은정·문무경·윤지연·임동선·Weng-Feng Lai(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26. 〈표 IV-2-2〉의 일부를 발췌함.

*** $p < .001$

나. 부모의 심리·정서적 요인

- 이주민 부모의 자녀양육 정서 요인 중에 긍정적 정서 요인에서는 2항목, 부정적 정서 요인에서는 1항목에서 다문화 영유아의 가정 내 일상언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부모의 긍정적 자녀양육 정서가 높을 경우 자녀가 일상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 부모의 긍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남.
- ◆ 부모의 부정적 자녀양육 정서에서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는 항목은 2.7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낮은 부정적 정서를 보였으나, 이중언어를 사용할 경우 2.4점(5점 만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 이는 부모 상담이나 교육 또는 양육 지원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서 긍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에서 중요함을 의미함.

〈표 2〉 부모의 자녀양육 정서

단위: 점

구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4.3	4.3	3.3	2.7	3.2	3.0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4.2	4.1	3.4	2.8	3.3	3.2
주로 한국어 사용	4.3	4.3	3.3	2.6	3.2	3.0
이중언어 사용	4.5	4.4	3.3	2.4	3.2	2.8
기타	4.3	4.3	3.2	2.8	3.6	3.0
<i>F</i>	2.849*	4.012**	0.561	2.915*	1.146	1.347

- 주: 1) ①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②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③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④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⑤ 자녀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
 ⑥ 자녀에게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생각이 든다.
 2)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3) 5점 만점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43. 〈표 IV-3-3〉의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1$

- 이민자 부모의 역할 효능감 척도 7개 문항 중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항목을 제외한 6개 항목에서 자녀의 일상언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 역할 효능감 평균이 5점 만점에 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정서적지지, 일반적인 자녀 양육 지식, 자녀의 생활 태도 및 습관 지도에서 가장 뚜렷한 평균 차이를 보였으며, 학업/공부 지도, 자녀와의 소통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 항목의 평균이 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할 경우 4.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 즉,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부모 역할 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음.

〈표 3〉 부모 역할 효능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단위: 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전체	3.7	3.8	3.6	3.7	3.5	3.6	3.7	3.6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5	3.6	3.4	3.5	3.3	3.5	3.5	3.5
주로 한국어 사용	3.7	3.9	3.6	3.8	3.5	3.6	3.7	3.7
이중언어 사용	3.9	4.1	3.9	3.9	3.7	3.7	3.7	3.8
기타	3.9	3.9	3.6	4.0	3.6	3.6	3.5	3.7
<i>F</i>	2.827*	5.879***	5.658***	6.295***	4.201**	1.628	2.138	5.676***

주: 1) ① 자녀와의 소통, ② 자녀에 대한 정서적지지, ③ 일반적인 자녀 양육 지식, ④ 자녀의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⑤ 학업/공부 지도, ⑥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⑦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 습득

2) Cronbach's α =.892(7개 항목)

3)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4) 5점 만점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45. 〈표 IV-3-4〉의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1$, *** $p < .001$

다. 부모의 인식 및 태도 요인

-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 문항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문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2개 문항에서 자녀의 일상언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긍정적 영향에서는 한 문항에서만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음.

- ◆ 부모-자녀 간에 친밀한 관계 형성에 자녀의 이중언어가 도움이 된다는 항목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녀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거나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에서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의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자녀가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은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서 이중언어의 부정적 영향을 더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을 통한 이중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표 4〉 이중언어 습득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단위: 점

구분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부모 자녀 사이에 친밀한 관계 형성	장래 진학 및 취업에서 장점으로 작용	자녀의 긍정적 다문화 정체성	평균 (긍정적 영향)	자녀 언어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	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에 부정적	평균 (부정적 영향)
전체	4.3	4.3	4.2	4.3	2.1	2.1	2.1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4.1	4.3	4.0	4.1	2.3	2.3	2.3
주로 한국어 사용	4.3	4.3	4.2	4.3	2.1	2.0	2.1
이중언어 사용	4.6	4.4	4.3	4.4	1.5	1.7	1.6
기타	4.6	4.4	4.3	4.5	2.2	2.1	2.2
<i>F</i>	6.471***	0.608	1.831	3.033*	8.089***	4.004**	6.685***

주: 1)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2) 5점 만점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48. 〈표 IV-3-6〉의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1$, *** $p < .001$

■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자녀, 가족, 본인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한 결과, 자녀와 가족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일상언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대상별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자녀와 이주민 부모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는

- 4.3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의 태도는 3.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가족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가정 내 일상언어별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3.4점에 그쳤음.
 - ◆ 이는 한국인 배우자 및 가족들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가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습득에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따라서 한국 출신 배우자 및 한국 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 교육을 통해 이중언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표 5〉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자녀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가족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결혼이민자(본인)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전체
전체	4.3	3.7	4.3	4.0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4.2	3.4	4.2	3.8
주로 한국어 사용	4.3	3.7	4.3	4.0
이중언어 사용	4.5	4.0	4.3	4.2
기타	4.4	3.9	4.4	4.2
<i>F</i>	2.639*	12.198***	0.299	6.995***

주: 1)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2) 5점 만점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 51~152.

〈표 IV-3-8〉의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01$

라. 부모의 노력 및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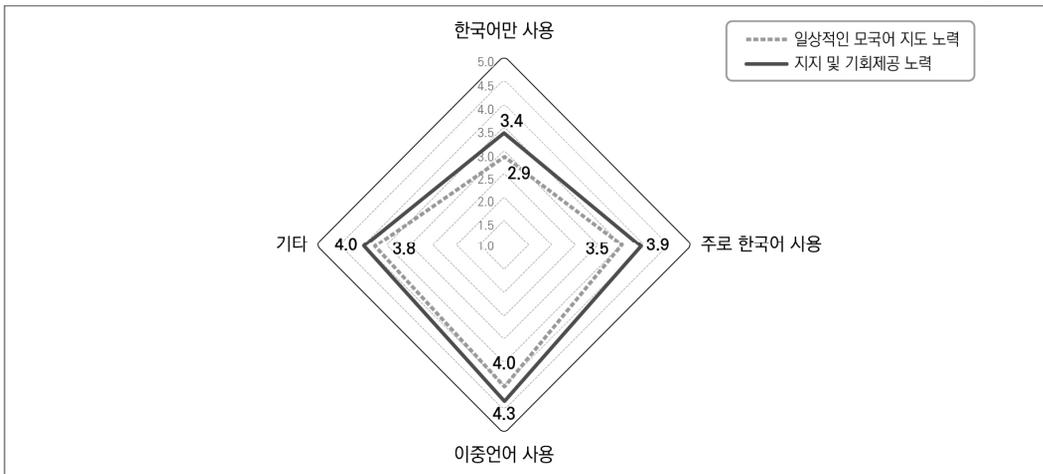
- 자녀가 이주민 부모의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의 노력에 따라 자녀의 일상언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F = 40.112^{***}$).²⁾

2)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한 척도는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6문항)과 모국어 사용을 지지하고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4문항)으로 구분하였음.

- ◆ 부모가 직접 일상적으로 모국어를 지도하기보다 사용을 지지하고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 정도가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음.
- ◆ 자녀가 가정 내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 부모의 자녀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낮게 나타남. 반면,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부모가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해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자녀가 가정 내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특히 부모의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이 2.9점으로 상당히 낮았으며, 지지 및 기회 제공 노력과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 부모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부모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그림 1]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 정도

단위: 점



주: 1)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 ①나는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여 자녀와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 ②나는 자녀에게 모국의 방송 및 영상을 보여준다. ③나는 자녀에게 모국어로 된 책을 읽어준다. ④나는 자녀에게 모국어로 된 노래를 들려준다. ⑤나는 자녀와 함께 모국어로 다양한 놀이를 한다. ⑥나는 학습지나 낱말카드 등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친다.(Cronbach's $\alpha=.917$)

2) 지지 및 기회제공 노력: ①나와 배우자는 자녀가 나의 모국어를 사용할 때 칭찬하고 격려한다. ②나는 자녀가 함께 모국 출신 사람들을 만나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③나는 자녀가 모국어를 사용하여 모국의 가족과 자주 통화하도록 한다. ④나와 배우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와 함께 모국을 방문한다.(Cronbach's $\alpha=.771$)

3)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4) 5점 만점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 155~156의 내용을 활용하여 재작성함.

- 부모가 양육에 있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주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는 부모 역할 수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를 파악한 결과 다문화 부모의 자녀 양육지지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 요인만 자녀의 가정 내 언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3개 항목에서 3점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만 3.5점임.
 - ◆ 자녀의 가정 내 일상언어별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이 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즉,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과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출신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표 6〉 자녀 양육지지 자원

단위: 점

구분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	자녀 돌봄에 도움 제공하는 가족 또는 친구/이웃	긴급돌봄 필요 시 이용 가능한 기관 및 서비스	지역 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외에 자녀의 이용 시설 및 서비스의 충분성	전체
전체	3.5	2.7	2.7	2.7	2.9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5	2.5	2.6	2.7	2.8
주로 한국어 사용	3.5	2.7	2.7	2.7	2.9
이중언어 사용	3.9	2.8	2.5	2.8	3.0
기타	3.1	2.8	3.1	3.0	3.0
<i>F</i>	4.019**	1.716	2.158	0.755	1.468

주: 1)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2) 5점 만점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 146~147. 〈표 IV-3-5〉의 일부를 발췌함.

** $p < .01$

3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과 외부 지원 서비스 요인

가. 교육·보육 기관의 지원 서비스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요한 지원 기관이며, 교사들의 이중언어 관련 안내 및 지도를 경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문화 영유아의 가정 내 언어 사용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이중언어에 대해 전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3.4%로 3분의 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어만 사용하거나 주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지원은 없었으나,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28.8%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 즉,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이중언어 관련 안내 및 지도를 받은 경험이 다문화 영유아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과도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나, 실제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이중언어에 대한 안내 및 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교육·보육 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중언어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연계가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표 7〉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중언어 관련 안내 및 지도

단위: %, 명

구분	이중언어에 대한 대화 경험 없음	한국어만 사용 권유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나 지원 없음	가정 내 자녀와의 이중언어 사용 방법 지도	이중언어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기타	계	(수)
전체	63.4(327)	2.9(15)	20.2(104)	8.1(42)	4.7(24)	0.8(4)	100.0	(516)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68.7(112)	2.5(4)	17.8(29)	8.0(13)	3.1(5)	0.0(0)	100.0	(163)
주로 한국어 사용	66.2(172)	1.5(4)	19.6(51)	7.3(19)	5.0(13)	0.4(1)	100.0	(260)

구분	이중언어에 대한 대화 경험 없음	한국어만 사용 권유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나 지원 없음	가정 내 자녀와의 이중언어 사용 방법 지도	이중언어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기타	계	(수)
이중언어 사용	48.5(32)	4.5(3)	28.8(19)	9.1(6)	4.5(3)	4.5(3)	100.0	(66)
기타	40.7(11)	14.8(4)	18.5(5)	14.8(4)	11.1(3)	0.0(0)	100.0	(27)
χ^2	43.313***							

주: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60. <표 IV-4-3>의 일부를 발췌함.

*** $p < .001$

나. 이중언어 및 모국어 지원 서비스

- 이주민 부모에게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 부모 상담,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 개선 교육,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서비스 이용 여부에서 자녀의 가정 내 일상언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이중언어 관련 부모 교육을 이용한 응답자가 54.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중언어 관련 부모 상담이 43.9%,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이 37.5%,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 개선 교육이 27.1% 순으로 나타남.
 - ◆ 이중언어 관련 부모 교육과 부모 상담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집단은 자녀가 가정 내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남.
 - ◆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 개선교육과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서비스에서는 자녀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가장 많이 이용하였음.
 - ◆ 자녀가 가정 내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은 모든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다양한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가족구성원 대상 교육과 자조모임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8〉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점

구분	이중언어 관련 부모 상담		이중언어 관련 부모 교육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 개선 교육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이중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전체	43.9 (233)	56.1 (298)	54.6 (290)	45.4 (241)	27.1 (144)	72.9 (387)	37.5 (199)	62.5 (332)	2.8 (15)	97.2 (516)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3.9 (57)	66.1 (111)	42.9 (72)	57.1 (96)	18.5 (31)	81.5 (137)	27.4 (46)	72.6 (122)	2.4 (4)	97.6 (164)
주로 한국어 사용	51.7 (136)	48.3 (127)	59.3 (156)	40.7 (107)	30.4 (80)	69.6 (183)	42.2 (111)	57.8 (152)	3.0 (8)	97.0 (255)
이중언어 사용	41.7 (30)	58.3 (42)	62.5 (45)	37.5 (27)	34.7 (25)	65.3 (47)	43.1 (31)	56.9 (41)	2.8(2)	97.2 (70)
기타	35.7 (10)	64.3 (18)	60.7 (17)	39.3 (11)	28.6 (8)	71.4 (20)	39.3 (11)	60.7 (17)	3.6 (1)	96.4 (27)
χ^2	14.207**		13.941**		9.969*		10.813*		0.223	

주: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63. 〈표 IV-4-4〉의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1$

■ 이주민 부모에게 자녀 관련 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을 질문한 결과,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 제공 서비스,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모국어로 동화 읽어주기·동요 배우기, 음식 만들기 등),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의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에서 자녀의 가정 내 일상언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 비율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 제공 서비스가 41.1%,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이 31.6% 순으로 나타남.
- ◆ 자녀가 가정 내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 제공 서비스와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 자녀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은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음.
- ◆ 자녀가 가정 내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모든 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 따라서 다문화 영유아가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자녀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재교구 개발이 필요함.

〈표 9〉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점

구분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 (전자책 포함) 제공 서비스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		기타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전체	41.1 (218)	58.9 (313)	44.4 (236)	55.6 (295)	31.6 (168)	68.4 (363)	2.1 (11)	97.9 (520)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3.3 (56)	66.7 (112)	29.8 (50)	70.2 (118)	23.8 (40)	76.2 (128)	1.2 (2)	98.8 (166)
주로 한국어 사용	49.0 (129)	51.0 (134)	51.3 (135)	48.7 (128)	38.0 (100)	62.0 (163)	1.9 (5)	98.1 (258)
이중언어 사용	31.9 (23)	68.1 (49)	52.8 (38)	47.2 (34)	29.2 (21)	70.8 (51)	5.6 (4)	94.4 (68)
기타	35.7 (10)	64.3 (18)	46.4 (13)	53.6 (15)	25.0 (7)	75.0 (21)	0.0 (0)	100.0 (28)
χ^2	13.885**		21.789***		10.491*		5.581	

주: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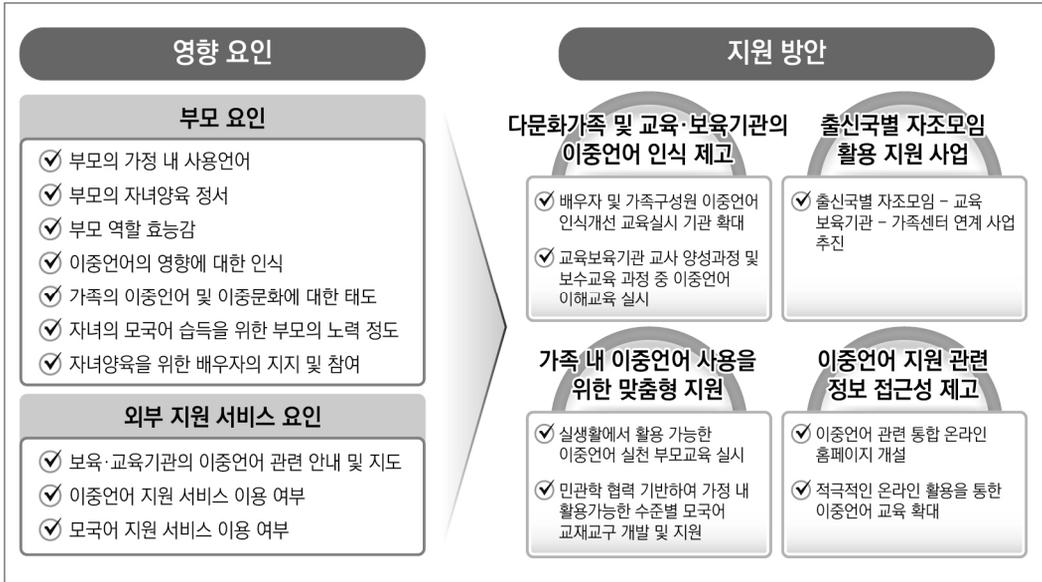
자료: 박은정 외(2021).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68. 〈표 IV-4-9〉의 일부를 발췌함.

* $p < .05$, ** $p < .01$, *** $p < .001$.

4 정책제언

- 지금까지 다문화 영유아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음.

[그림 2]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지원 방안



■ 이중언어 인식 제고를 위해서 먼저 다문화가족 내 인식 개선과 교육·보육기관의 이중언어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함.

- ◆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다문화 교육 강사 또는 이중언어 강사를 파견하고,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3))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센터 중심 사업만으로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교육청 간에 협력과 부처 간 협력이 요구됨.
- ◆ 교육·보육기관이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나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이해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3) 「2021년 가족사업 안내」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3일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해 다문화 아동 및 부모가 이중언어 관련 상담을 받거나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이중언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양성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 중에 이중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출신국별 자조모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의 자녀가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조모임은 이주민 부모의 중요한 지지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조모임 연계 사업을 제안함.
 - ◆ 출신국별 자조모임-교육·보육기관-가족센터 연계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가 출신국별 자조모임의 이중언어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내 교육·보육기관을 기반으로 자조모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자조모임의 자율적 성격을 보장하되, 센터를 통해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 및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충분한 활동자료를 제공해야 함.
 - 교육·보육기관은 다문화 부모가 자조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영유아기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및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
 - 출신국별 자조모임을 활용하면 이주민 부모의 주도성을 활용하게 되면서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정 내에서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지지 및 지도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가능함. 또한 자조모임을 토대로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음.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교육센터 등 개별 센터에서 다양한 소수 언어를 모두 반영하여 출신국별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우므로, 출신국별 자조모임과 센터를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출신국별 차이 및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는 데에 유용함.
-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실천 부모교육 실시와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 내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별 모국어 교재교구 개발 및 지원을 제안함.
 - ◆ 다문화 영유아를 둔 부모가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이중언어 실천 부모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자녀에게 이중언어 사용 동기부여 방식이나 다양한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자녀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실행해볼 수 있는 실천 심화교육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교재교구 개발 경험이 있는 민간 교육기업과 학계 자원을 활용하여 민·관·학 협력 형태로 체계적인 교재교구 개발이 요구됨.
 - 다문화 영유아를 둔 부모가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이중언어를 지도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활용가능한 모국어 도서 및 교재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교재교구 개발 경험이 있는 민간 교육기업과 학계 자원을 활용하여 민·관·학 협력 형태로 체계적인 교재교구 개발이 요구됨.
- 다문화 영유아를 둔 부모 및 교육·보육기관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관련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과 적극적인 온라인 활용을 통한 이중언어 교육 확대 방안을 제안함.
 - ◆ 이미 여러 기관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나, 정보 접근성이 낮아서 활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누구나 손쉽게 이중언어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가능한 통합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을 제안함.
 - ◆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여 이중언어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관련 교육용 앱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I 참고 문헌 I

정해숙·김이선·최윤정·박현선·장명림(2014).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실행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최윤정·김이선·선보영·동제연·정해숙·양계민·이은아·황정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Abdelilah-Bauer, B. (2016). 이중언어 아이들의 도전. 박찬규(역). 서울: 구름서재.

| 이슈페이퍼 2022-08 |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양육환경 실태와 개선과제

이윤진

1. 연구배경
 2. 조사결과: 8개 영역
 3. 정책목표 및 정책방안
- 참고문헌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양육환경 실태와 개선과제*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환경의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일반가정의 양육환경과 비교분석함. 이에 총 8개 영역별로 일반가정(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과 비교함.
- 건강영역: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평균 4.49점)는 일반가정 영유아 자녀(평균 4.53점)와 비슷하나 주양육자(3.50점)는 일반가정의 주양육자(4.22점)보다 안 좋았음.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자녀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치과치료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12.6%)가 일반가정(1.4%)에 비해 약 9배가량 많았음.
- 발달 및 교육 영역: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에 대한 희망교육수준은 대학원 이상이(62.9%) 가장 많고 4년제 대학교(32.5%), 전문대학, 고등학교 순인 반면, 일반가정은 4년제 대학교가 81.6%로 가장 많고, 대학원 이상은 11.4%에 그침.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 관계 영역: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주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 육아·가사 등의 생활적 도움을 일반가정에 비해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가구가 이러한 도움에서 가장 취약함.
- 양육 및 돌봄 영역: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어린이집·유치원을 대부분(83.4%) 다니고 있으며 월평균 비용은 약 26만원임. 방과 후에는 대부분 집에서 주양육자(모)가 돌봄.
- 여가 및 활동 영역과 안전 및 위험행동 영역: TV 시청과 책읽기는 일반가정의 영유아들이, 스마트폰 및 컴퓨터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이 더 많이 이용함. 또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안전수칙을 대체로 잘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함.
-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영역: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약 76%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방 개수는 2.2개로 일반가정 2.6개보다 적음. 집 주변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일반가정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물질적 환경: 아동결핍지수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약 83%가 결핍수준으로 나타나, 일반가정의 약 40%에 비해 2배 정도 결핍한 것으로 나타남. 박탈지수에서도 약 11.7점으로 일반가정의 약 8.6점보다 많음.

- 정책방안으로 탈북민 심리치료 주치의사업(안) 도입, 북한이탈주민 수급·한부모가구 영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치과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수급·비수급 한부모가구에 산후조리서비스 우선 지원,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명시, 미래행복통장 가입 범위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을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 플랫폼으로 활용, 북한이탈주민 가정 실태조사 법제 도화를 제시함.

1

연구배경

가. 연구의 필요성

- 전국 규모의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육아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한 조사는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성장발달, 육아환경 등이 어느 정도이며 또한, 취약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부재함.
 - ◆ 이들 가정 영유아의 육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정(취약계층 가정 포함) 영유아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함.

나. 연구 목적

-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성장발달, 육아환경 등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문항을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일반가정(취약계층 가정 포함) 영유아와 비교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 통계자료 부재로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한부모 가정이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일부 문항을 차용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기본과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이윤진·박창현·김문정, 2021)」를 기반으로 작성됨

다. 연구방법

■ 설문조사

- ◆ 만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 150명 대상으로 실시, 최종 151명을 표집함.
- ◆ 본 설문조사의 설문문항 총 영역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동일하게 8개 영역이며 설문문항은 총 53개임.
- ◆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에서 영유아 가구를 추출하여 이를 본 설문조사에서 산출한 데이터와 함께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집단 간 비교분석함(t 검증, chi-square 검증, ANOVA).

2

조사결과: 8개 영역

가. 건강

■ 영유아 자녀의 건강상태

- ◆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자녀(평균 4.49점)와 일반가정 영유아 자녀(평균 4.53점)의 건강상태는 차이가 거의 없음.¹⁾
- ◆ 북한이탈주민 가정 중에서도 한부모가구(평균 4.45점)와 수급가구(평균 4.29점)의 영유아 자녀의 건강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이들 한부모가구와 수급 가구는 일반가정의 한부모 가구(평균 4.35점)와 수급 가구(평균 4.35점)와 비교해서도 점수가 낮음.
 - 그러나 비수급 가구 간 비교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가정(평균 4.68점)이 일반가정(평균 4.56점)보다 영유아 자녀의 건강상태가 좋음.

1) 평균은 매우 나쁘다 1점~매우 좋다 5점으로 산출한 결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의미임.

■ 주양육자의 건강상태

- ◆ 주양육자의 건강(3.50점)이 일반가정(4.22점)보다 현저하게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남.
- ◆ 특히, 주양육자의 우울수준이 상당히 높음.²⁾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도 한부모가구(13.2점)가 가장 높고, 수급가구(12.8점), 비수급가구(9.4점), 양부모 가구(9.1점) 순임.

■ 영유아 자녀의 병원·치과치료 실태

- ◆ 자녀가 아플 때,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6.6%)가 일반가정(2.2%)에 비해 3배가량 많았고, 치과치료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12.6%)가 일반가정(1.4%)에 비해 약 9배 정도 많았음.

나. 발달 및 교육

■ 인지 및 언어발달

- ◆ 영유아의 인지발달(평균 2.44점)이 일반가정의 영유아들(평균 2.17점)보다 점수가 높음. 영유아의 언어발달 역시, 2.44점으로 일반가정의 2.16점보다 높음(설문조사 응답자의 자기보고식 평가 결과).³⁾
 -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는 한부모,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영유아 언어 및 인지발달 수준이 낮았음.

■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⁴⁾

- ◆ 정서성은 평균 14.25점으로 일반가정 13.64점보다 높게 나와서 부정적인 정서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활동성은 평균 19.94점으로 일반가정 16.56점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사회성은 평균 37.65점으로 일반가정 33.82점보다 높아 사교적 기질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는 한부모,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영유아들이 정서성 점수가 높고, 활동성과 사회성 점수가 낮음.

2) 우울수준을 측정하는 11개의 하위문항의 총점으로 점수가 클수록 우울수준이 높다는 의미임.

3) 아동의 월령기준에 따른 인지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8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할 수 없다 0점~잘할 수 있다 3점'으로 평정함).

4) 정서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활동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적이며 사회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교적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류정희 외, 2019: 219)

- ◆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한부모/양부모 가구, 수급/비수급 가구 간 비교에서, 전자의 영유아가 후자보다 부정적 정서가 많고, 활동성과 사회성 기질이 더 발달함.

■ 자녀의 교육수준: 희망교육과 실제교육 간의 차이

- ◆ 자녀의 희망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62.9%) 가장 많고 4년제 대학교(32.5%), 전문대학(3.3%), 고등학교(1.3%) 순임. 그러나 실제 가능한 자녀의 교육수준에서는 4년제 대학교가 43%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 37.1%, 전문대학 9.3% 순으로 1순위가 바뀜.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희망교육과 실제 가능교육 사이의 간극이 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음.
- ◆ 반면, 일반가정에서는 자녀의 희망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가 81.6%로 절대적으로 많고, 대학원 이상은 11.4%이며 실제 가능한 자녀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78.9%, 대학원 이상은 10.0%임.
 - 일반가정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교육 기대수준보다 낮으며, 희망교육과 실제 가능 교육 간의 차이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 관계

■ 사회자본: 경제적 도움, 정서적 도움, 생활의 도움, 정보적 도움⁵⁾

- ◆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도를 일반가정과 비교하면, 탈북 가정은 평균 1.46점으로 일반가정의 1.69점보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도 한부모가구가 평균 1.39점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수급가구(평균 1.44점), 비수급가구(평균 1.49점), 양부모가구(평균 1.53점) 순임.
- ◆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정서적 도움에 대해서는 2.05점으로 일반가정 2.23점보다 낮았음.
- ◆ 가사, 육아, 간병과 같은 생활의 도움도 탈북가정은 평균 1.54점으로 일반가정 2.1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와서, 생활의 도움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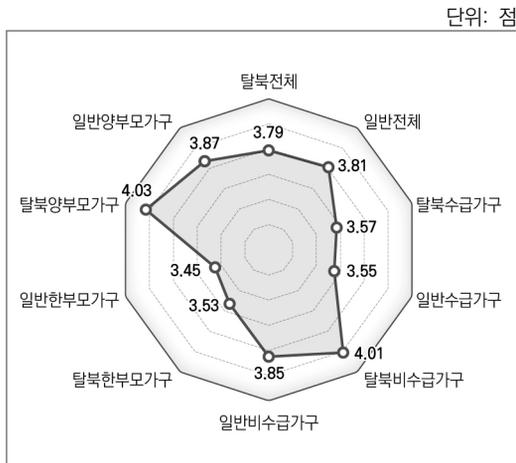
5) 평균 점수는 '전혀 받지 않는다 1점~매우 많이 받는다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 주변으로부터 자녀양육이나 교육 등에 정보를 얻은 도움 정도에서 탈북가정은 평균 2.27점으로, 일반가정 평균 2.37점보다 다소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정보적 도움은 일반가정과 비교해서 취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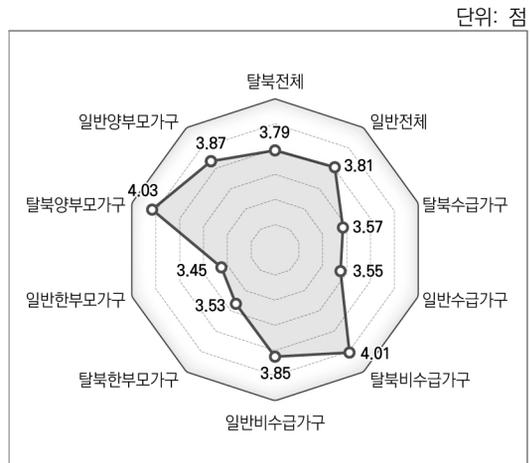
■ 가족관계: 가족건강성⁶⁾, 부모효능감⁷⁾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가족관계는 평균 3.79점으로 대체로 건강한 것으로 나옴. 이는 일반가정 평균 3.81점에 비해 다소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부모효능감은 평균 3.53점으로 일반가정의 3.47점보다 높음.
 -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도 사회자본이 특히 취약한 한부모와 수급가구의 경우, 일반 한부모 및 수급가구와 비교했을 때, 가족건강성 점수가 높음.
- ◆ 가족관계의 건강성, 부모효능감 모두 응답자가 자가 측정한 수치임. 즉,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 결과로써, 응답자인 주양육자는 우리 가족은 원만하며 부모 역할을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림 1]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가족건강성 비교



[그림 2]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부모효능감 비교



6) 가족관계를 측정하는 15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항상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함).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좋다는 의미임.
 7) Gibaud-Wallston & Wandersman(1978)이 개발하고 신숙재(1997)가 개발한 효능감(9문항), 불안감 및 좌절감(4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3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PSOC 척도를 사용함(류정희 외, 2019: 268, 재인용). 평균 점수는 부모효능감 9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임.

라. 양육 및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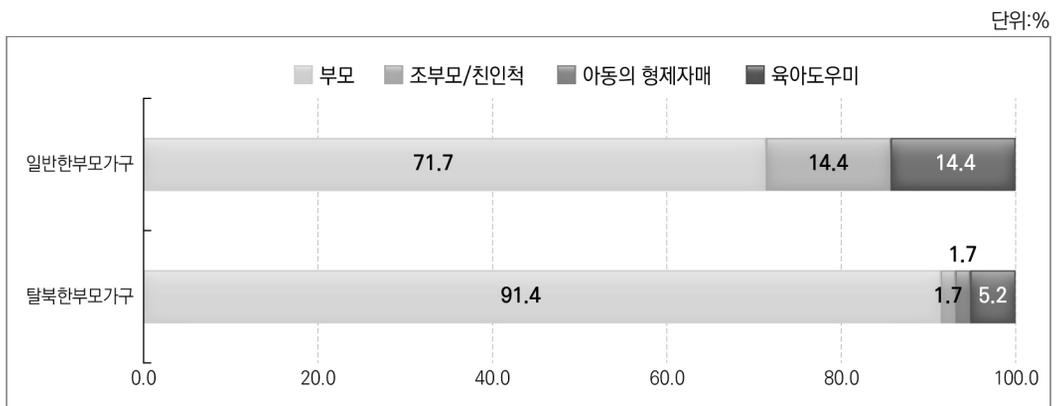
■ 교육·보육기관 이용 현황

- ◆ 탈북가정 영유아 대부분(83.4%)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음. 이는 일반가정의 영유아(66.4%)보다 높고, 일반 한부모가정의 85.8%보다 낮음.
- ◆ 월평균 교육·보육비는 약 26만원이며 가구특성별(한부모, 수급,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음.

■ 방과후 자녀 양육실태

- ◆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마친 후에는 대부분 집에서 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옴. 이러한 경향은 일반가정도 동일함.
 - 방과후 부모 돌봄 비율이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88.9%, 일반가정은 92.6%로 일반 가정의 부모 돌봄 비율이 높음.
- ◆ 그러나 한부모가구 간 비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91.4%)이 일반가구(71.1%)보다 부모 돌봄 비율이 더 높음. 한부모가구에서 자녀 방과후에 주양육자의 돌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주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가구 경제의 취약성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음.

[그림 3]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와 일반 한부모가구의 방과 후 돌봄자 현황



■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⁸⁾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가 자가보고한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7.54점으로 일반가정의 양육스트레스 27.77점보다 낮음.
 - 수급가구 간 비교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가정(28.75점)보다 일반가정(30.99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 비수급 가구 간 비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26.40점)보다 일반 가정(27.19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
 -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29.86점)보다 일반 한부모가구의 양육스트레스(31.74점)가 높고, 양부모 가구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낮음.

마. 여가 및 활동

■ 자녀의 매체 이용 실태: TV, 책, 스마트폰 등 이용 정도

- ◆ TV 시청과 책읽기는 일반가정의 영유아들이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컴퓨터 기기는 탈북가정의 영유아들이 더 많이 이용함.
 - 일례로 영유아 자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문항에서 탈북가정은 약 26%, 일반가정은 약 50%의 응답이 나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하루 5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은 탈북가정 4.0%, 일반가정 0.4%로, 탈북가정이 훨씬 많음.
- ◆ 수급/비수급 가구,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 비교에서도 탈북가정의 영유아들이 일반가정보다 TV 시청과 책읽기를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은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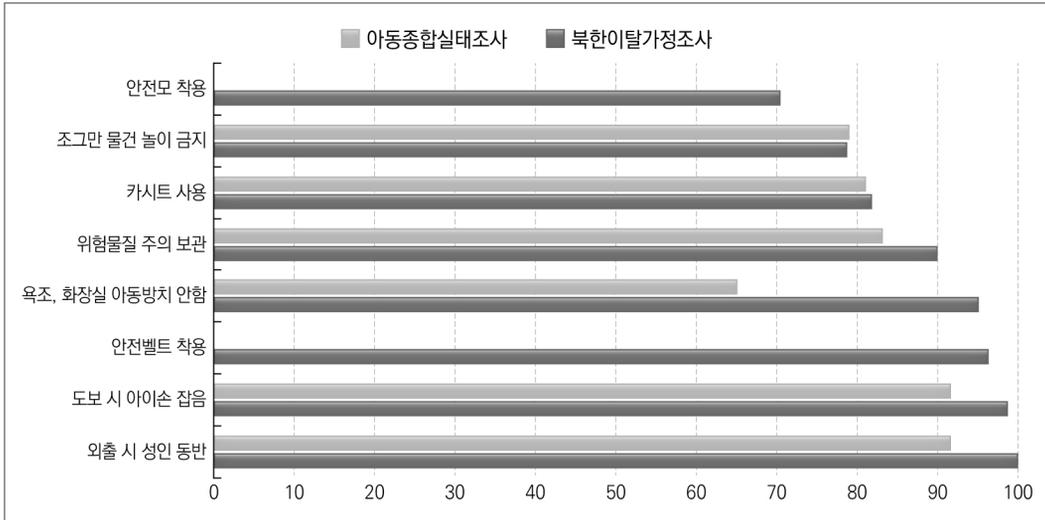
바. 안전 및 위험행동

■ 안전수칙 준수 비교: 북한이탈주민 가정 vs 일반가정

- ◆ 북한이탈가정 부모는 전반적으로 일반가정 부모보다 영유아의 안전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었음.

8)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총 11개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해서 최소 11점에서 최대 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류정희 외, 2019: 290).

[그림 4] 안전수칙 준수 비교



주: 1) 각 문항별 '예'응답 비율만을 제시함. 막대기가 길수록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는 의미임.
 2) 안전모 착용 문항과 안전벨트 착용 문항에 대해 비례당을 제외한 결과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해당응답자가 없었음.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 평소에 어른 없이 아이를 혼자 두는 경우도 적었음. 하지만 혼자 둘 경우 그 시간은 북한이탈가정이 더 길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사례수(5사례)가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탈북가정(4.2시간) > 일반한부모가정(2.4시간) > 일반가정(1.1시간).
- ◆ 자녀돌봄 공백 시 필요한 지원에서도 차이가 있었음. 탈북가정에서는 '자녀 하원 등 편의제공'과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일반 한부모가정에서는 '야간돌봄 편의제공'과 '식사제공 편의제공'을 가장 많이 응답함.

사. 주거·지역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 주거형태와 주거환경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약 76%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음. 이는 초기 정착지에서 정부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제공받기 때문임.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평균 방 개수는 2.2개로, 일반가정의 평균 방 개수 2.6개보다 적음.

-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1~2인 세대는 13평, 3인 이상 가정은 18평 이하 임대아파트 제공이 원칙임. 대개 안방겸거실, 작은방, 부엌, 화장실로 구성됨.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집공간의 적정성에 대한 불만이 높았는데, 이는 가족 구성수원 수 대비 적은 방 개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집 주변 생활환경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전반적으로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 관련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안전하고 창의적인)놀이터 등의 접근성이 편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5 참조).

[그림 5] 집 주변 생활환경: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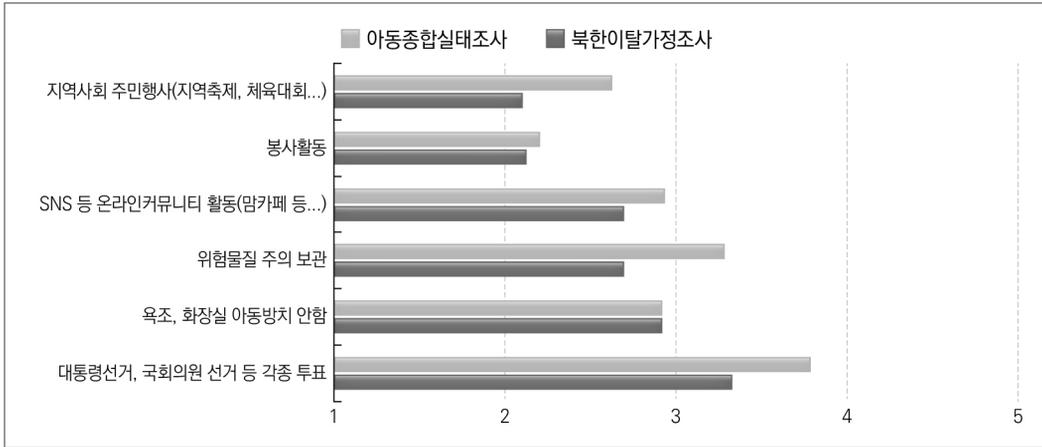


주: 각 문항별 긍정응답 비율을 도식화함.

■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정도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봉사활동, 주민행사 참여도가 가장 낮음. 이에 비해 대통령선거 등 각종 투표에 대해 참여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6] 지역사회 활동 참여: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주: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1점' ~ '매우 자주 참여한다 5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아. 물질적 환경

1) 결핍지수

- UNICEF 아동결핍지수 14개 문항(연구진 추가 1개 문항까지 총 15개 문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탈북가정 영유아는 약 83%가 결핍수준으로 나타나, 일반가정 영유아의 약 40%에 비해 2배 이상 결핍함.

<표 1>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일반가정 영유아 자녀의 결핍지수: 문항별

단위: %

결핍문항	북한이탈 가정조사	아동종합 실태조사	$\chi^2(df)$
1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31.8	3.3	148.382(1)***
2 하루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25.2	10.0	27.362(1)***
3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35.8	11.3	60.254(1)***
4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26.5	10.6	28.692(1)***
5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38.4	22.9	16.246(1)***
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74.2	34.9	81.666(1)***
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29.8	13.2	26.798(1)***
8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다	30.5	11.1	40.134(1)***
9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49.0	13.2	108.807(1)***

결핍문항	북한이탈 가정조사	아동종합 실태조사	$\chi^2(df)$
10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1.3	6.7	6.694(1)**
11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25.2	6.7	50.866(1)***
12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3.3	6.9	2.823(1)
13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51.0	22.8	51.536(1)***
14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27.2	18.1	6.672(1)*
결핍지수 ¹⁾	82.8	39.9	94.893(1)***
추가 인스턴트 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24.5	50.6	35.055(1)***

주: 1) 결핍지수는 14개의 결핍 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수치가 높을수록 결핍이 많다는 의미임.

2)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별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추가문항의 경우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 ◆ 수급가구 간 비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결핍지수가 약 89%, 일반가정의 결핍지수 약 67%가 나옴.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더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의 결핍이 큰 것으로 나온 항목은 하루 세끼 식사(결핍문항 1), 정기적인 여가활동(결핍문항 6)임.
 - 일반 수급가구는 인터넷 연결(결핍문항 10),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결핍문항 12),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기회(결핍문항 13), ‘인스턴트식품 주 3회 이상 섭취’(추가)가 탈북 수급가구보다 결핍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 수급가구별 영유아 자녀의 결핍지수: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단위: %

결핍문항	전체	탈북 수급가구	일반 수급가구	$\chi^2(df)$
1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17.2	32.9	8.5	19.530(1)***
2 하루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25.6	32.9	21.5	3.154(1)
3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33.0	41.1	28.5	3.375(1)
4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27.6	32.9	24.6	1.597(1)
5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42.9	47.9	40.0	1.205(1)
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64.5	80.8	55.4	13.216(1)***
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32.0	42.5	26.2	5.715(1)*

	결핍문항	전체	탈북 수급가구	일반 수급가 구	$\chi^2(df)$
8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다	36.0	41.1	33.1	1.305(1)
9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42.9	61.6	32.3	16.428(1)***
10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13.3	2.7	19.2	11.025(1)***
11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23.2	32.9	17.7	6.058(1)*
12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9.9	2.7	13.8	6.493(1)*
13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54.2	58.9	51.5	1.022(1)
14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44.3	31.5	51.5	7.61(1)**
	결핍지수	74.9	89.0	66.9	12.157(1)***
추 가	인스턴트 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42.9	24.7	53.1	15.418(1)***

주: 1) 결핍지수는 14개의 결핍 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2)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별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추가문항의 경우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 한부모가구끼리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 가정이(88.7%), 일반가정(54.3%) 보다 결핍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연결', '인스턴트 식품 주 3회 이상 섭취' 항목만 일반 한부모가구 영유아가 더 결핍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의 결핍이 큰 것을 나타남.
- 특히, 하루 세끼 식사(결핍문항 1), 정기적인 여가활동(결핍문항 6), 자녀가 다니는 학교·어린이집 등에 내는 참가비 지불 능력(결핍문항 8), 집에서 자녀만의 조용한 공간(결핍문항 9), 새옷 구입 능력(결핍문항 11),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기회(결핍문항 13)의 결핍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 가구유형별 영유아 자녀의 결핍 실태: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단위: %

결핍문항	전체	탈북 한부모 가구	일반 한부모 가구	$\chi^2(df)$
1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17.7	38.0	6.3	31.505(1)***
2 하루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21.2	32.4	15.0	8.282(1)**
3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28.3	42.3	20.5	10.651(1)**
4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24.2	35.2	18.1	7.252(1)**
5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39.9	47.9	35.4	2.946(1)
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56.6	81.7	42.5	28.440(1)***
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27.8	39.4	21.3	7.500(1)**
8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다	26.8	42.3	18.1	13.542(1)***
9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35.9	59.2	22.8	26.119(1)***
10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10.6	2.8	15.0	7.083(1)**
11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17.7	31.0	10.2	13.474(1)***
12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7.6	2.8	10.2	3.580(1)
13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41.4	60.6	30.7	16.729(1)***
14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33.3	31.0	34.6	0.274(1)
결핍지수	66.7	88.7	54.3	24.253(1)***
추가 인스턴트 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42.4	26.8	51.2	11.119(1)**

주: 1) 결핍지수는 14개의 결핍 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수치가 높을수록 결핍이 많다는 의미임.

2)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별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추가문항의 경우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p < .01$, *** $p < .001$.

2) 박탈지수

■ 박탈지수는 식생활, 의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저축, 교육, 경제적 어려움 등 9개 영역과 31개 항목을 응답한 결과값임 (박탈항목은 부록 참조).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박탈지수는 약 11.7개로 일반가정의 약 8.6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정보다 열악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가구유형별로 박탈지수의 차이를 보면, 수급가구 간 비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

정이 약 13.5개, 일반가정이 약 13.1개이며 한부모가구 간 비교에서는 전자가 13.13개, 후자가 11.20개로 나타남. 즉, 수급 및 한부모가구 모두,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더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음.

- ◆ 박탈실태를 항목별로 보면, 저축(미래대비) 영역이 50%대로 박탈정도가 가장 높음. 다음으로 40% 전후의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으로는 의생활 5, 주택 및 주거 환경 7,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14와 16, 교육 22임(표 4에서 굵은 표시 참조).
- ◆ 박탈실태를 비교한 결과, 5개 항목을 제외한⁹⁾ 29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박탈수준이 더 크게 나타남.

〈표 4〉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박탈지수 비교

단위: 개, %

결핍문항		북한이탈 아동종합 가정조사 실태조사		x ² (df)
		11.66 (4.72)	8.59 (3.80)	
박탈지수	전체 평균(표준편차)			
식생활	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13.9	5.9	12.531(1)**
	2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다	11.3	6.8	3.638(1)
	3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다	15.2	3.5	35.018(1)***
의생활	4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19.9	3.2	66.520(1)***
	5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43.0	6.6	160.380(1)***
주택 및 주거 환경	6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7.9	2.9	9.026(1)**
	7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39.1	5.8	147.794(1)***
	8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9.9	7.2	1.389(1)
	9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32.5	5.5	107.174(1)***
의료 및 건강	10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9.3	2.9	13.723(1)**
	11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고(받을 수) 있다	33.1	9.1	66.970(1)***
	12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11.9	4.6	12.837(1)**
13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6.6	4.0	2.098(1)	

9) '주 1회 신선한 과일 섭취', '도보 10분 거리의 대중교통 확보', '필요한 의약품 구입 가능', '가족의 특별한 날 기념 가족 행사 수행', '집세가 밀려 이사함'

		결핍문항	북한이탈 아동종합 가정조사 실태조사		$\chi^2(df)$
박탈지수		전체 평균(표준편차)	11.66 (4.72)	8.59 (3.80)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14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37.1	21.9	16.169(1)***
	15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 하고 있다	17.2	12.5	2.525(1)
사회적 지지	16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40.4	16.2	46.997(1)***
	17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20.5	5.3	42.423(1)***
저축 (미래 대비)	18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	52.3	24.2	49.653(1)***
	19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59.6	28.8	54.554(1)***
교육	20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있다	29.8	21.4	5.147(1)*
	21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31.1	6.5	85.170(1)***
	22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42.4	11.6	88.863(1)***
	23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	30.5	7.4	70.218(1)***
	24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15.9	5.9	18.773(1)***
경제적 어려움	25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24.5	4.2	77.908(1)***
	26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25.8	6.8	52.917(1)***
	27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9.9	4.9	5.952(1)*
	28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5.2	4.0	30.122(1)***
	29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15.9	3.9	34.450(1)***
	30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8.2	6.0	0.779(1)
	31	가구원(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10.0	2.0	18.363(1)***

주: 1)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31개의 하위문항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 박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경제적 영역은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3) '집세가 밀려 이사함', '자녀의 공교육비 미납' 항목은 '비해당' 제외하고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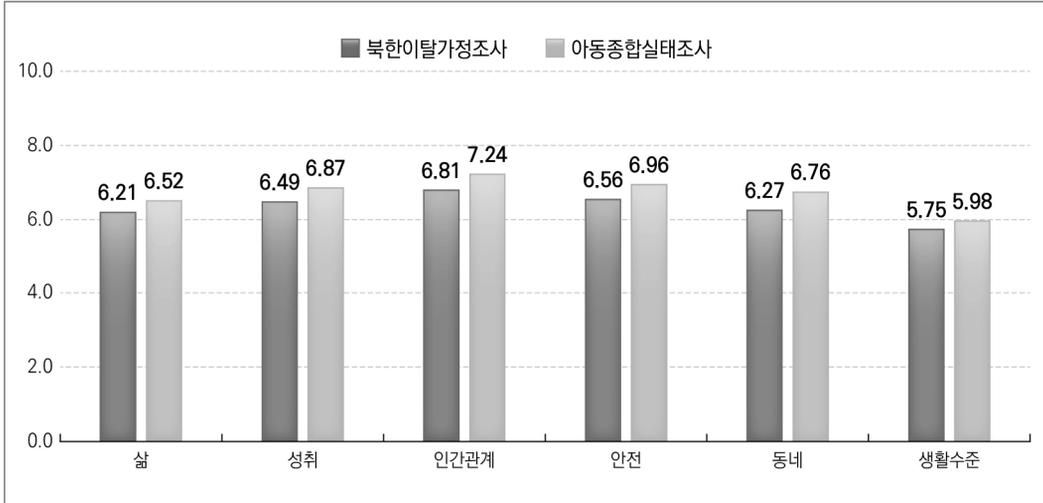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일반가정과의 비교

-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문항과 동일하게 6개 분야(①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10계단 사다리, ②지금까지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도, ③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④귀하의 안전, ⑤동네에 대한 만족도, ⑥생활수준)에 대한 만족의 만족도 결과를 보면, ⑥생활수준이 5.75점으로 가장 낮고, ③인간관계가 6.81점으로 가장 높음.

- ◆ 6개 분야 모두 일반가정보다 만족도가 낮음.

[그림 7] 6개 분야 10점 척도 응답 종합: 탈북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3 정책목표 및 정책방안

-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가. 정책목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육아정책 확대 및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으로서 안착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생애초기단계부터 교육·보육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 일반가정보다의 물질적 환경 격차 완화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안정적 정착 도모

나. 정책방안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통합적 지원범위 확대
 - ◆ 취약계층 아동의 대표적인 맞춤형 서비스인 드림스타트사업의 보건·의료, 상담·치료 중심에서 의식주, 의료 및 건강,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교육, 취업지원 등 사회 전반적 서비스로 확대함.
- 가구유형별에 따른 세밀한 맞춤형 지원
 - ◆ 탈북가정 내에서도 수급/비수급, 한부모/양부모 가구에 따라 처한 상황 및 욕구가 다르므로 가구특성별로 우선순위를 달리해서 지원정책을 수립, 추진함.
-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원
 - ◆ 탈북가정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높지만 저축, 보험 등 미래대비가 매우 취약함.

다. 세부과제

- ‘탈북민 심리치료 주치의사업’(안) 도입: 우울수준이 높은 탈북 수급·한부모 가구의 주양육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
 - ◆ 탈북가정의 주양육자의 우울수준은 상당히 높음. 한부모/수급가구는 더 심각함. 남북 하나재단(2020)의 실태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충동경험이 있다는 비율(13%) 역시, 일반국민(5.2%)보다 월등히 높음.
 -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우울수준은 북한에서의 힘든 생활, 탈북,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불법) 체류, 남한 정착의 어려움 등 인생을 살아오면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문제이므로 단기간에 치료되기 어려움.
 - ◆ 하나원에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및 우울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은 퇴소 후에도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역의 병원과 연계한 “북한이탈주민 심리 주치의사업”(안)과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
 - 탈북 수급·한부모가구의 주양육자에게 우선 지원함.
- 탈북 수급 한부모가구 영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치과치료비 지원
 - ◆ 현행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관계부처합동, 2021: 26)지원정책에서 탈북 수

급·한부모가구의 영유아 자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치과치료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탈북 수급/비수급 한부모가구에게 산후조리서비스 우선 지원

- ◆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도움, 생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함.
- ◆ 배우자 없는 탈북 수급/비수급 한부모가구가 출산을 하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 현재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120% 이하)과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달리 책정되어 있음. 이에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가구유형(북한이탈주민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지원 기준에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명시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입소 1, 2순위 자격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도 입소 1순위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영유아도 입소 1순위에 포함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음.
 -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¹⁰⁾

■ 미래행복통장 가입 범위 확대

- ◆ 2014년에 도입한 이 제도의 골자는 탈북민의 근로소득 저축분에 대해 동일 금액을 정부가 매월 매칭 지원(최대 월50만원, 최장4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을 돕는 것임.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는, 그것도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탈북민만 이용 가능함.
- ◆ 이 통장을 근로소득은 없지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탈북가정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매월 매칭 지원함. 탈북 수급가구도 자녀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의 특성화비용을 매달 내는 경우가 많은데, 특성화비용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보존해 주고, 해당

10) 이 정책제언은 2022년 6월 22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반영됨.

비용을 강제(의무) 저축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월 매칭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만 함. 통장명의로는 자녀이름으로 하고, 자녀가 성인(만 18세 이상) 된 후에 찾을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조사에 의하면, 탈북가정 자녀의 월평균 교육·보육비는 평균 26만원이며 수급가구도 매달 약 23만원을 내는 것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유치원을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 플랫폼으로 활용

- ◆ 탈북가정의 영유아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기관에 대한 만족도도 높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들 가정의 주양육자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제공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부모상담, 양육서비스, 어린이집 이용정보 등을 제공함.

■ 북한이탈주민 가정 실태조사 법제도화

- ◆ 2000년대 초반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으로 성장했고 결혼·출산을 하는 생애단계에 접어들면서 모집단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
- ◆ 북한이탈주민 개인 단위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북한이탈주민 가정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함. 본 연구의 비교대상인 아동종합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실태조사도 마찬가지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 참고 문헌 |

관계부처합동(2021).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남북하나재단(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류정희 외(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진·박창현·김문정(2021).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 이슈페이퍼 2022-05 |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

이정원

1. 배경 및 문제점
 2. 가정 내 영유아 미디어 이용 환경 분석
 3.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실태와 문제점
 4. 가정 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 참고문헌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영유아 가구가 보유한 미디어 기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보급률도 높아지는 경향이며, 영유아는 이러한 가정이 보유한 다양한 미디어에 이른 연령부터 노출되어 이용하고 있음. 미디어 이용 연령의 하향화에 따라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어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음.
- 영유아 부모들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는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의 철학대로 지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나 영유아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경험은 매우 낮고, 영유아를 지도하는 성인들의 미디어 이용 습관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이 나타남.
-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TV와 스마트폰·태블릿 PC 등의 미디어는 각각 주중 평균 1시간 내외로 상당 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성을 의심해 본 경우는 20.1%, 실제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인 경우는 54.8%로 응답됨. 그러나 의심상황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확인한 경우는 17.6%, 전문적 상담·치료 경험은 12.7%로 전문적인 대응을 해본 경험은 낮게 나타남.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성인의 시간 확보를 위해 또는 영유아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의 목적으로 성인에 의해 노출된 측면이 있어 우려되는 상황임. 최초 미디어 이용 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영유아가 생활하는 가정 내 미디어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대상에 영유아 외 영유아 부모를 포함하는 등 부모교육 확대와 강화, 가정 내 미디어 이용 지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침의 마련과 배포 확대, 영유아용 콘텐츠 선별 기준 마련과 추천 콘텐츠 목록 제공 등을 제안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기본과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를 기반으로 작성됨.

1

배경 및 문제점

가. 영유아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보편화

■ 미디어 이용 시기의 하향화

- ◆ 정보통신기술과 뉴미디어의 발달로 미디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미디어를 처음 이용하는 연령이 빠르게 하향화되고 있음(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13).

■ 영유아기부터의 미디어 이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4차 혁명의 시대에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 역량으로 인식되면서 영유아기부터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교육콘텐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 ◆ 한편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도 미디어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기 시작하여(육아정책연구소, 2021: 38),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미디어 이용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임.

■ 가정 내 미디어 이용 환경의 고도화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접근성 증가

- ◆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어린이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0~9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 스마트폰(98.5%), TV(96.1%), 컴퓨터(84.9%), 태블릿PC(74.7%)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 인공지능 스피커(39.9%), 게임콘솔(32.4%), 가상현실 기기(5.6%)를 보유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 ◆ 2020년 어린이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에서 만3~6세 아동은 TV를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으며(만3~4세 89.6%, 만5~6세 89.7%), 다음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TV 다음으로는 만 5~6세는 스마트폰(81.4%), 태블릿PC(63.6%), 컴퓨터(42.5%)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만3~4세는 스마트폰(77.3%), 태블릿PC(60.8%), 인공지능 스피커(22.8%), 컴퓨터(21.2%)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정림·도남희·오유정(2013)의 연구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주로 TV와 스마트폰에 집중되었던 결과에 비해 2020년도의 취학 전 영유아들은 비교적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 즉, 새로운 미디어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가정에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제공되어 가정 내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 양상도 점점 더 다양화될 것으로 보임. 향후 TV 등 일반적인 스크린미디어 뿐 아니라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이용 접근성도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나.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접근성 증가에 대한 우려

■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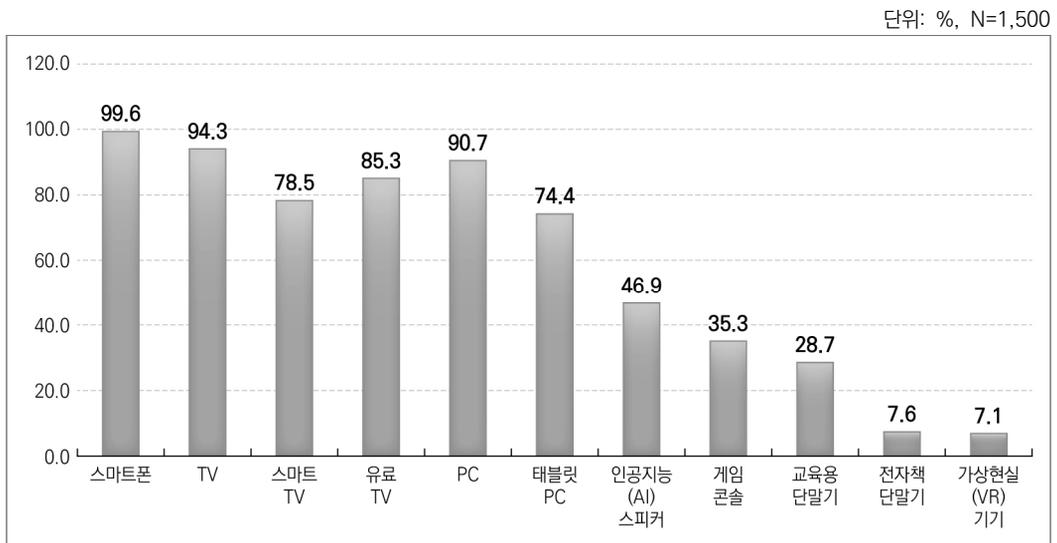
- ◆ 영유아 미디어 이용의 보편화와 이용 시작 연령의 하향화로 미디어 이용과 영유아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 이용하는 미디어의 콘텐츠와 이용 방법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Linebarger & Vaala, 2010: 배소영·정연구, 2015: 72에서 재인용) 영유아기 부터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배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는(이민주·이영신·유정은, 2015: 43; 배소영·정연구, 2015: 88; 이상희·오새니, 2019: 100; 이상희·이정미, 2019: 144) 미디어 이용이 과할 경우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 이에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의존적 경향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에 따른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 및 관리의 필요성과 이러한 지도·관리를 수행할 보호자(주로 부모)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 본고에서는 가정 내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환경을 적절히 조성하고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음.
- ◆ 이를 위해 조사업체 패널을 활용하여 전국의 0-6세 영유아의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총 12사례의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함.

2 가정 내 영유아 미디어 이용 환경 분석

가. 영유아 가정 내 미디어 보유 및 관리 현황

- 보유 미디어가 다양하며 보유율이 높음
 - ◆ 영유아 가정에서는 스마트폰(99.6%)¹⁾과 TV(94.3%), 개인용 컴퓨터(90.7%), 태블릿 PC(74.4%) 등의 보유율이 매우 높고, 이외 인공지능 스피커(46.9%), 게임콘솔(35.3%), 교육용 단말기(28.7%), 전자책 단말기(7.6%), 가상현실 기기(7.1%) 등의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
 - ◆ 영유아중 부모가 이용하던 스마트폰 공기계를 포함하여 영유아 본인용 스마트폰을 보유한 비율도 17.2%에 달함.

[그림 1] 미디어 유형별 가정 내 보유 현황



주: 1) 미디어 보유률은 전체 1,500사례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스마트폰 보유현황은 부모의 보유율임.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14 <표 Ⅲ-2-1>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함.

1) 부모의 보유 현황임.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 경험은 낮음

- ◆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 중 영유아의 부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기기 비밀번호 설정’(39.4%)이었으며, ‘콘텐츠 제한(필터) 설정’은 36.1%, ‘미디어 이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앱 설치’는 23.0% 순으로 나타나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았음.
- ◆ 기술적 방안을 모르는 경우는 20% 내외였으나, 미디어 이용 제한을 위한 기술적 방안들을 ‘알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40~50%에 달함. 기술적 방안들을 알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러한 조치를 활용하여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였음(50.2%).

〈표 1〉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제한을 위한 기술적 방안 인지 및 적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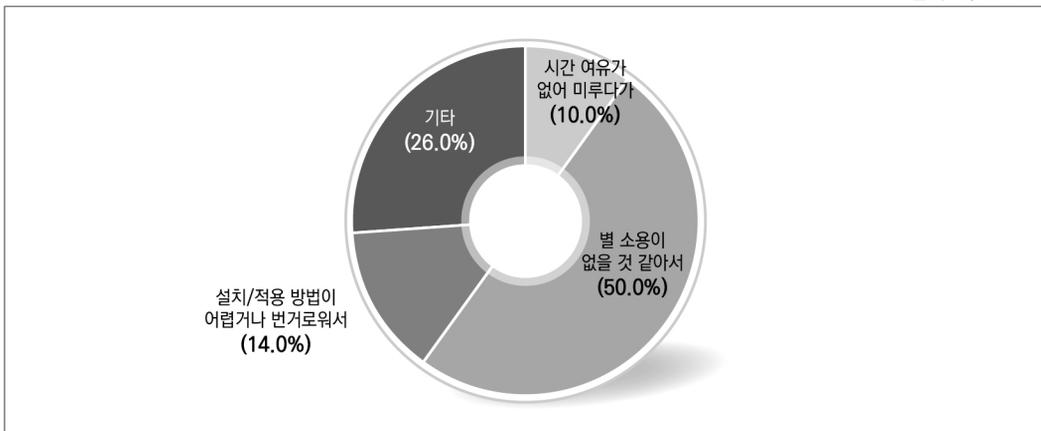
단위: %(명)

미디어 이용 제한 기술	모른다	알고 있지만 적용하지 않는다	알고 있으며 실제 적용해봤다	계(수)
1) 기기 비밀번호 설정	15.3	45.3	39.4	100.0 (1,500)
2) 콘텐츠 제한(필터)설정	19.1	44.8	36.1	100.0 (1,500)
3) 미디어 이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앱 설치	25.1	51.9	23.0	100.0 (1,500)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47. 〈표 Ⅲ-4-1〉

〈그림 2〉 미디어 이용 제한 기술적 방안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N=981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48 〈표 Ⅲ-4-2〉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함.

나. 영유아 주양육자의 미디어 이용 실태와 습관

■ 영유아의 주양육자는 하루 중 상당 시간 미디어를 이용함

- ◆ 주양육자는 미디어 중 스마트폰을 가장 장시간 이용하고 있어, 75.5%가 1일 평균 2시간 이상 이용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3.3%에 불과하였음. TV는 하루 1~2시간을 시청한다는 응답이 27.6%로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폰 다음으로 장시간 이용하는 미디어로 나타남.
- ◆ 이외 가정 내 보유 미디어 중 가상현실 기기(81.1%), 게임콘솔(62.6%), 교육용 단말기(51.5%), 태블릿 PC(51.4%)는 ‘하루 중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이상으로, 가정 내 보유는 하고 있으나 일상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는 미디어인 것으로 나타남.

〈표 2〉 가정에서의 미디어 종류별 보유 및 주양육자의 이용 현황

단위: %(명)

미디어 유형	보유율 ^{주1)}	주양육자의 1일 평균 이용시간						거의 이용 않음	(사례수)
		5시간 이상	3~4 시간	2~3 시간	1~2 시간	1시간 미만			
스마트폰	99.6 ^{주2)}	22.4	28.1	25.0	15.8	5.4	3.3	(1,495)	
TV	94.3							(1,415)	
스마트TV	78.5	7.6	12.8	21.0	27.6	15.8	15.1	(1,111)	
지상파 이외 유료 TV 사용 (케이블TV/IPTV/위성TV 등)	85.3							(1,207)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톱, 노트북)	90.7	4.6	4.2	6.5	14.7	26.7	43.3	(1,360)	
태블릿 PC (교육용 단말기 사용 제외)	74.4	0.7	1.5	5.8	15.7	24.8	51.4	(1,116)	
인공지능 스피커	46.9	2.0	1.7	4.1	10.5	40.0	41.7	(703)	
게임콘솔	35.3	0.2	1.1	2.6	11.2	22.3	62.6	(529)	
교육용 단말기	28.7	0.2	1.4	6.0	13.5	27.4	51.5	(431)	
전자책 단말기	7.6	0.9	0.0	5.3	16.7	28.9	48.2	(114)	
가상현실(VR) 기기	7.1	0.0	0.0	1.9	2.8	14.2	81.1	(106)	

주: 1) 미디어 보유률은 전체 1,500사례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스마트폰 보유현황은 부모의 보유율임.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14. 〈표 Ⅲ-2-1〉

- 많은 영유아 부모가 바람직하지 않은 미디어 이용 습관을 보이고 있음.
 - ◆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인 ‘누워서 미디어 기기를 사용’(중종+매번: 76.4%)하는 경우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잠자기 전의 미디어 이용’(중종+매번: 73.6%)하는 습관은 영유아 부모들의 보편적인 미디어 이용 습관으로 나타났다.
 - ◆ TV를 켜놓고 스마트폰을 동시에 검색하는 등의 ‘한 번에 여러 미디어를 동시 이용’하는 경우도 57.7%(중종+매번), ‘식사중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43.3%로 상당한 비율을 보임.
 - ◆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미디어 이용 지도에 앞서 성인이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보여 주는 미디어 이용 습관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하는 환경으로 기능할 수 있음. 성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미디어 이용 습관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습관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할 수 있음.

〈표 3〉 영유아 가정에서의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단위: %(명)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전혀 안함	거의 안하는 편	중종 하는 편	매번 함	계(수)
1) 식사중에 미디어 기기 ^{주)} 를 이용함	22.3	34.4	33.7	9.6	100.0(1,500)
2) 잠자기 전에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12.0	14.4	38.7	34.9	100.0(1,500)
3) 운전중에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통화 제외)	45.7	32.8	17.2	4.3	100.0(1,500)
4) 누워서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9.9	14.7	48.5	26.9	100.0(1,500)
5) 한 번에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이용함 (예: TV를 보면서 스마트폰 검색)	19.5	22.8	43.0	14.7	100.0(1,500)

주: 미디어 기기란 스마트폰, TV, 태블릿 PC 등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15. 〈표 Ⅲ-2-3〉

다.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현황

- 부모들은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의 영향과 올바른 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 가정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로 가장 잘 활용되는 방법은 ‘보호자가 있는 공간에서만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게 하기’임(항상 함 52.3%, 자주 함 24.2%).

- ◆ 이밖에 ‘항상+자주’ 활용 비율이 높은 지도 방법은 ‘(미디어를)이용하지 않을 때 꺼놓기’ 67.8%, ‘보호자와 함께 이용’ 59.4%, ‘유해하거나 이용을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사이트, 앱 차단’이 58.7%, ‘자녀가 이용한 콘텐츠 확인’ 54.3%, ‘보호자와 이용 콘텐츠 함께 고르기’ 53.3%, ‘보호자가 자녀와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기’ 48.1%, ‘미디어 이용 시간 제어 앱 활용한 이용 시간 관리’ 35.1% 순으로 나타남.

〈표 4〉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단위: %(명)

지도 방법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가끔 함	③ 자주 함	④ 항상 함	③+④	계(수)
1) 보호자와 함께 이용	7.6	33.0	31.9	27.5	59.4	100.0 (1,500)
2) 보호자와 이용 콘텐츠 함께 고르기	15.8	30.9	28.4	24.9	53.3	100.0 (1,500)
3) 보호자가 자녀와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기	20.3	31.7	29.9	18.2	48.1	100.0 (1,500)
4) 유해하거나 이용을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사이트, 앱 차단	28.3	12.9	15.5	43.2	58.7	100.0 (1,500)
5) 자녀가 이용한 콘텐츠 확인	23.9	20.7	24.3	31.0	54.3	100.0 (1,500)
6) 미디어 이용 시간 제어 앱 활용 이용시간 관리	49.3	16.5	14.4	19.7	35.1	100.0 (1,500)
7)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기	19.5	12.7	17.5	50.3	67.8	100.0 (1,500)
8) 보호자가 있는 공간에서 이용하게 하기	11.6	11.9	24.2	52.3	76.5	100.0 (1,500)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51. 〈표 Ⅲ-4-3〉

- ◆ 또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부모들이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미디어 콘텐츠가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지를 ‘항상+자주’ 확인한다는 비율이 64.1%에 달함. 6.7%는 어린이용 콘텐츠 외에는 아예 차단되도록 조치한다고 응답함.
- ◆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콘텐츠의 연령별 적합성을 확인하는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취업모 가구보다는 미취업모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남. 또한 첫째 자녀에 대해 둘째 자녀 이상보다, 유아보다는 영아에 대해 확인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 가구 특성과 자녀 특성에 따른 관심도의 차이가 나타남.

〈표 5〉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연령적합성 확인 정도

단위: %(명)

구분	항상 확인함	자주 확인함	가끔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어린이용 콘텐츠 외에는 차단되도록 조치함	계(수)
전체	36.6	27.5	21.0	8.2	6.7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31.1	26.3	26.1	9.3	7.2	100.0 (601)
여성	40.3	28.3	17.6	7.5	6.5	100.0 (899)
$\chi^2(df)$				23.075***(4)		
응답자 연령대						
20대	44.4	25.9	7.4	7.4	14.8	100.0 (27)
30대	38.2	26.6	18.8	9.2	7.2	100.0 (1,039)
40대	32.3	29.7	27.2	5.8	5.1	100.0 (434)
$\chi^2(df)$				26.625**(8)		
모취업 여부						
취업	33.9	27.1	24.9	7.6	6.4	100.0 (654)
미취업	38.6	27.9	17.9	8.7	6.9	100.0 (842)
$\chi^2(df)$				11.434*(4)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42.7	20.0	14.0	14.2	9.1	100.0 (536)
유아(36개월 이상)	33.2	31.6	24.9	4.9	5.4	100.0 (964)
$\chi^2(df)$				88.692***(4)		
출생순위						
첫째	42.5	24.1	17.9	9.2	6.3	100.0 (727)
둘째 이상	31.0	30.7	23.9	7.2	7.1	100.0 (773)
$\chi^2(df)$				28.007***(4)		

* $p < .05$, ** $p < .01$, *** $p < .001$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52. 〈표 III-4-4〉

라.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철학의 형성 경로

- ◆ 영유아 부모 심층면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철학은 전문가의 권고, 뉴스·신문기사 등의 관련 내용들을 실생활에 적용, 기준의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형성되게 됨을 확인함.

저희가 네이버라든지 혹은 뉴스나 이런걸 보면 팝콘 브레인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애들을 보다 보면 무분별하게 자극적인거에 노출되고 그럴다더라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럴다면 우리는 자기 전에 30분 정도는 항상 책을 읽어주자.” 이렇게 (부부간에) 합의가 된거고 또 이렇게 실천을 한거죠.[서울 거주, 6세 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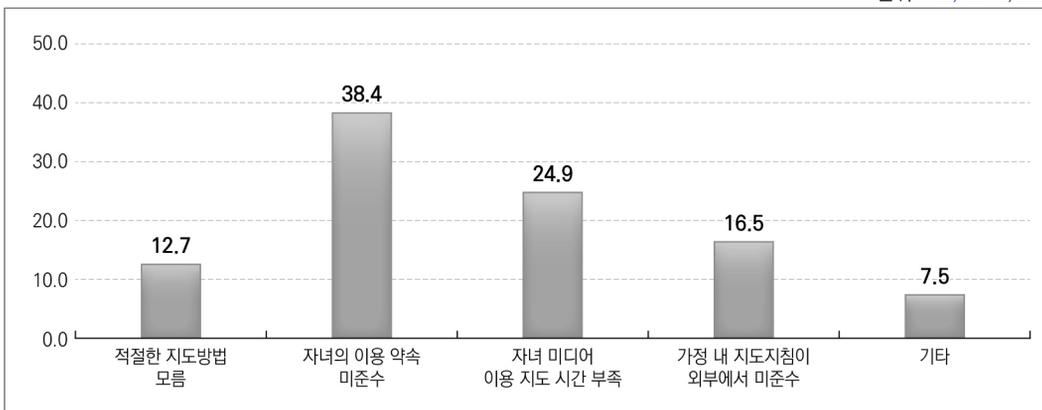
영유아 검진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게 가장 컸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실제로 그렇게 하니깐 말이 트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된거죠. 미디어는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는. [전북 거주, 6세 남아]

마.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

- 영유아의 부모들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지도방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음.
- ◆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 지도에서 자녀가 이용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데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8.4%), 이외 가사 일 등으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할 시간의 부족(24.9%), 집에서의 지도 방침이 외부에서 지켜지지 않는 점(16.5%), 적절한 지도 방법을 모름(12.7%)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자기조절력을 키우고 부모가 적절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과 관련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그림 3]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 지도에서 어려운 점

단위 : %, N=1,500



주: 자료 표의 전체 수치만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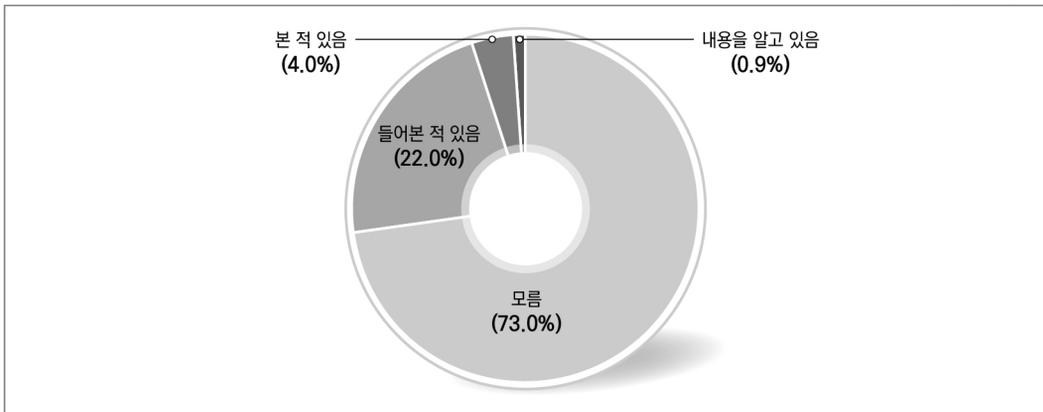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218. <표 V-1-1>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

- 영유아를 위한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의 인지 및 활용도, 관련 부모교육 경험이 매우 낮음.
- ◆ 가정에서 부모들이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미디어 환경의 조성 and 바람직한 미디어 이

용을 지도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한 관련 가이드라인(‘영유아용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등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경우는 0.9%로 극히 낮았음.

[그림 4]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 인지 여부

단위: %, N=1,191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154. <표 Ⅲ-4-5>의 전체 수치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

- ◆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도 16.3%에 불과하였음. 특히 미디어 이용 지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저학력 부모,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기관 미이용 영유아의 부모 등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이 낮은 부모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실태와 문제점

가. 미디어별 이용 실태

- 영유아는 비교적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며, 주요 미디어를 대부분 영아기부터 이용하기 시작하고,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가정에서 해당 미디어를 보유한 경우 영유아의 이용률은 교육용 단말기가 82.8%로 가장 높고, TV(79.0%), 태블릿 PC(58.1%), 스마트폰(44.6%), 게임콘솔(40.5%), 인공지능 스피커(38.5%), 전자책 단말기(24.6%), 개인용 컴퓨터(11.3%), 가상현실 기기(6.6%) 순으로 나타남.
- ◆ 보유율이 낮은 교육용 단말기를 제외하고, 가정에서 영유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TV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주중 약 1시간 18분, 주말 2시간 11분에 달하며, TV 시청 시작 시기는 생후 6개월~18개월 미만인 경우가 57.6%인 것으로 나타남.
- ◆ 스마트폰·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기기는 생후 12~18개월 미만에서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2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일 평균 이용시간은 주중 55.3분, 주말 97.6분으로 나타남.

〈표 6〉 영유아의 하루 평균 TV/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시간

단위: 분

	주중(월~금) 1일 평균 이용시간	주말(토, 일) 1일 평균 이용시간
TV	78.1(약 1시간 18분)	131.4(약 2시간 11분)
스마트폰·태블릿PC	55.3	97.6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122. 〈표 Ⅲ-3-8〉, p. 132. 〈표 Ⅲ-3-17〉을 조합하여 구성함.

〈표 7〉 영유아의 TV/스마트폰·태블릿PC 이용 시작 시기

단위: %(명)

구분	생후 6개월 미만	6개월~12개월 미만	12개월~18개월 미만	18개월~24개월 미만	24개월~36개월 미만	만 3세 이상	계(수)
TV	6.2	28.2	29.4	14.4	12.1	9.7	100.0 (1,118)
스마트폰·태블릿PC	4.8	12.9	20.5	13.4	17.6	30.7	100.0 (1,496)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120. 〈표 Ⅲ-3-6〉, p. 131. 〈표 Ⅲ-3-16〉을 조합하여 구성함.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목적은 주로 ‘동영상 시청’임.

- ◆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오직 동영상 시청을 위한 미디어 기기인 TV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지닌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경우에도 영유아는 주로 ‘동영상’ 시청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 영유아가 스마트폰·태블릿PC를 이용하는 주된 용도는 ‘동영상(애니메이션, 유튜브, 동영상 등)시청’이며, SNS나 메신저 이용, 웹툰·웹소설 보기, 인터넷검색, 교육용 앱 이용, 게임·놀이로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함.

〈표 8〉 용도별 영유아의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정도(하루 기준)

단위: %(명)

구분	전혀 이용 않음	10분 이내	10분~ 30분 이내	30분~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계(수)
1) 인터넷 검색(학습, 관심사 등을 위한 정보 찾기)	73.3	13.5	8.4	3.5	1.2	100.0 (1,496)
2) 동영상 시청	14.1	11.8	25.7	28.5	19.9	100.0 (1,496)
3) 게임, 놀이	54.1	11.4	17.3	11.4	5.9	100.0 (1,496)
4) 교육용 앱 이용	57.6	10.6	19.5	9.4	2.9	100.0 (1,496)
5) SNS 이용(소통)	94.2	2.5	1.7	1.1	0.5	100.0 (1,496)
6) 메신저 이용 대화(카톡, 라인 등)	90.2	5.0	2.5	1.8	0.5	100.0 (1,496)
7) 사진, 동영상 촬영	49.4	37.9	9.7	2.3	0.7	100.0 (1,496)
8) 통화	69.7	23.5	5.2	1.3	0.3	100.0 (1,496)
9) 웹툰, 웹소설 보기	96.0	1.7	1.3	0.8	0.2	100.0 (1,496)
10) 기타	95.8	1.6	1.4	0.5	0.7	100.0 (1,496)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127. 〈표 III-3-12〉

■ 성인의 시간확보와 편의를 위해 영유아에게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됨.

- ◆ TV,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미디어 이용을 영유아에게 허용하는 목적은 ‘보호자의 일을 자녀의 방해 없이 하기 위해’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TV 79.8%, 스마트폰·태블릿PC 70.2%), 이외 ‘(영유아가)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남(TV 57.8%, 스마트폰·태블릿PC 56.2%). 또한 스마트폰·태블릿PC의 경우 휴대성으로 인해 식당, 카페,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조용히 시키기 위한 용도로 가장 많이 허용되고 있었음(74.3%).

〈표 9〉 영유아에게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목적별 경험

단위: %(명)

허용 목적	TV	스마트폰· 태블릿PC	계(수)
1)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22.1	9.8	100.0 (1,496)
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등원 준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39.1	22.7	100.0 (1,496)
3) 자리에 앉아 식사를 빨리하게 하기 위해	37.6	38.2	100.0 (1,496)
4)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식당, 카페, 병원, 관공서 등)		74.3	100.0 (1,496)
5) 보호자의 일을(예: 식사준비, 청소, 업무) 자녀의 방해 없이 하기 위해	79.8	70.2	100.0 (1,496)
6) 교육용 어플, 동영상 이용, 온라인 수업(Zoom 등을 활용)을 위해	47.7	52.0	100.0 (1,496)
7)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이용하게 함	57.8	56.2	100.0 (1,496)
8) 잠을 재우기 위해	8.5	12.1	100.0 (1,496)
9)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원할 때 허용함	49.4	42.4	100.0 (1,496)
10) 기타	2.8	5.1	100.0 (1,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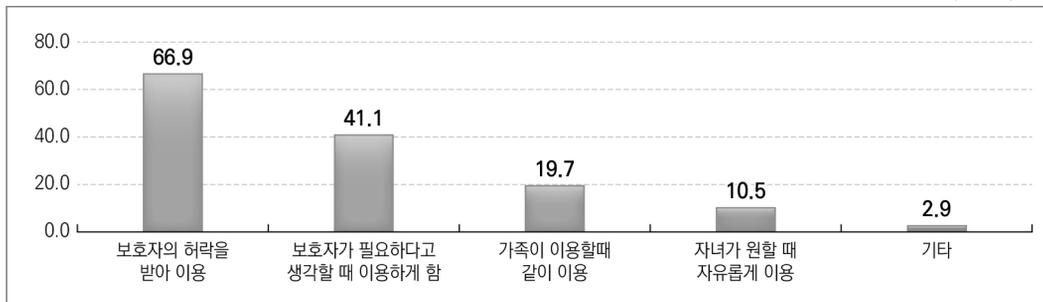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130. 〈표 III-3-14〉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대부분은 보호자의 관리 하에 이루어짐.

- ◆ 영유아의 가장 주된 미디어 이용 방법은 ‘영유아가 원할 때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임(66.9%). 이외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녀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41.1%, ‘가족이 이용할 때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19.7%로 보호자의 인지 등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 단, ‘영유아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함’이라는 응답도 10.5%로 응답되어 보호자의 인지나 어떠한 관리 없이 방치되듯이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냄.

〈그림 5〉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방법(중복응답)

단위: %, N=1,500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138. 〈표 III-3-25〉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나. 코로나19의 영향

-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증가함.
 - ◆ 영유아 중 66.8%가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이용이 증가함.
 - ◆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1순위)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심심해해서’(78.8%)이며, 영아는 ‘양육자와 미디어를 함께 이용할 기회가 많아져서’(10.6%), 유아는 ‘원격수업/온라인 학습지로 미디어에 친숙해져서’(10.4%)가 두 번째로 많이 응답되었음.

〈표 10〉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한 이유(1순위)

단위: %(명)

구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심심해해서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나 책임기보다 미디어를 이용한 영상 시청, 놀이를 더 좋아해서	원격수업, 온라인 학습지를 하게 되어 미디어 기기에 친숙해져서	양육자가 이용하는 미디어를 같이 이용하게 될 기회가 많아져서	기타	계(수)
전체	78.8	5.0	8.5	6.8	0.9	100.0(1,002)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81.6	3.5	3.5	10.6	0.7	100.0(282)
유아(36개월 이상)	77.8	5.6	10.4	5.3	1.0	100.0(720)
$\chi^2(df)$			22.019***(4)			

*** $p < .001$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140. 〈표 III-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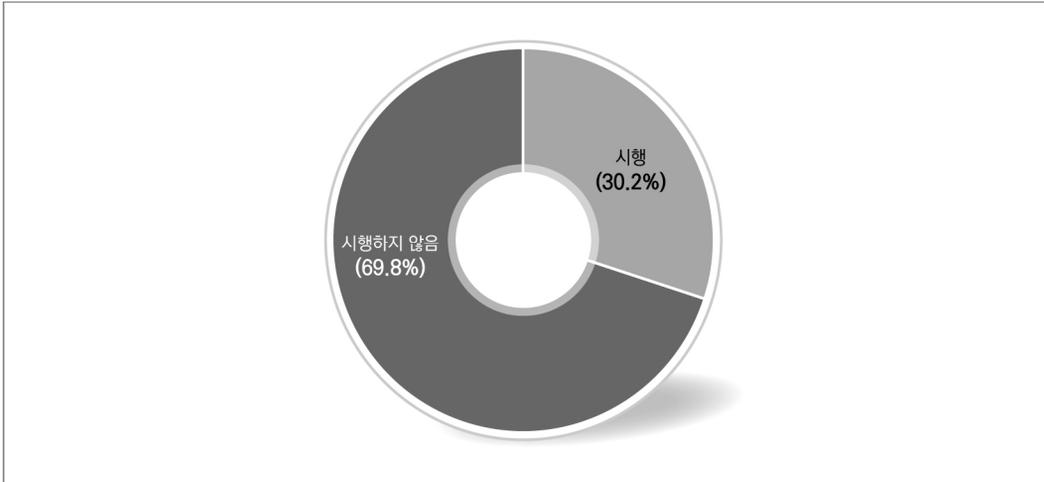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시행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코로나19 이후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²⁾에서 원격수업을 시행한 경우는 30.2%였으며, 원격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평소 미디어 기기 이용시간에 비해 이용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6.1%임.

2) 반일제 이상 기관, 시간제 학원 모두 포함

- ◆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미디어를 활용한 원격수업 활용이 불가피해지면서 영유아의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됨.

[그림 6] 코로나19이후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에서의 원격수업 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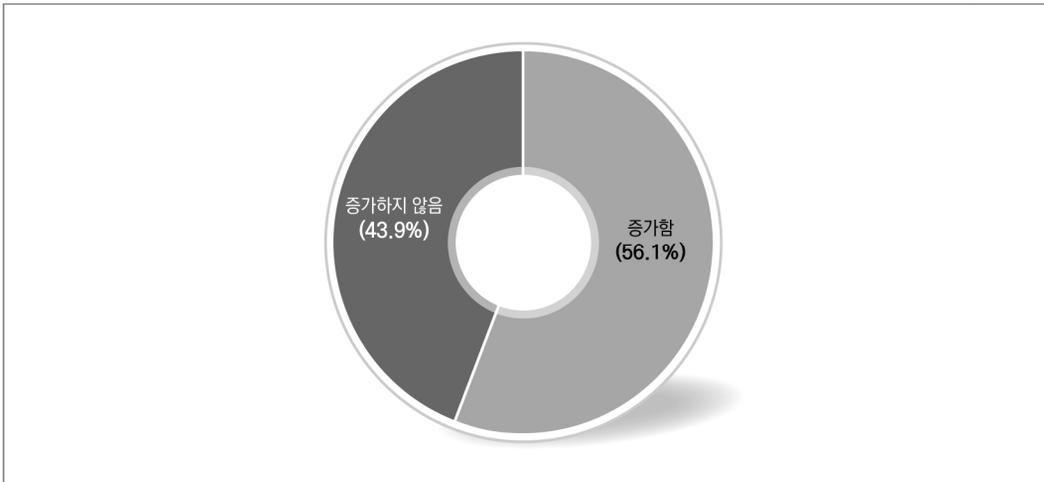
단위: %, N=1,222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143. <표 III-3-32>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그림 7] 원격수업 시행으로 인한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시간 증가 여부

단위: %, N=369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144. <표 III-3-33>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다.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현황과 대처 실태

- 가정과 기관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경험 및 과의존 의심 행동 비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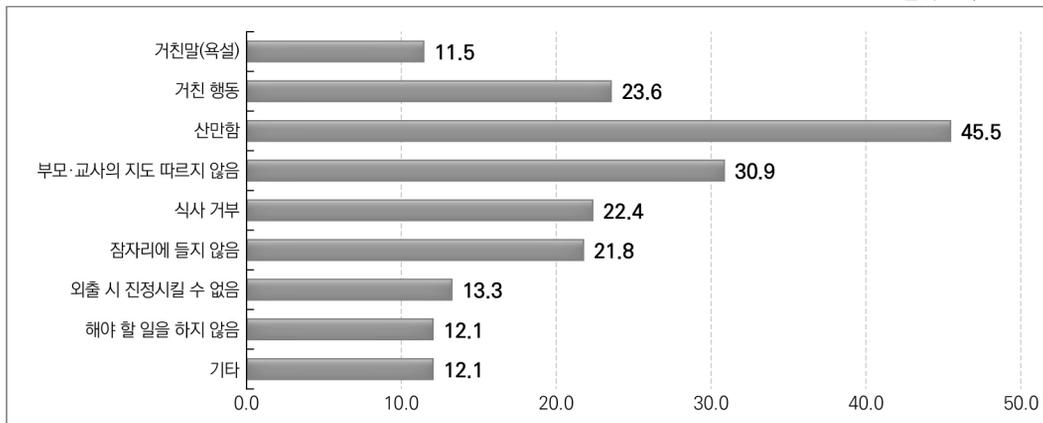
영유아 미디어 과의존 의심 경험 비율	(사례수)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 비율	(사례수)
20.1	(1,500)	54.8	(301)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220. 〈표 V-3-1〉

- ◆ 영유아 부모 대상의 조사 결과,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이나 영유아를 돌봐주는 사람, 부모 자신이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성을 의심해 본 경우가 20.1%, 이중 영유아가 실제 미디어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인 경우는 54.8%로 응답됨.
- ◆ 가장 많이 발견되는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은 ‘산만함’으로 45.5%를 차지함. 이외 ‘부모나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음’ 30.9%, ‘거친행동(정상 범주를 넘어서는 공격 행동)’(23.6%),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면 식사를 안함’(21.8%), ‘외출시 미디어를 보여주지 않으면 진정시킬 수 없음’ (13.3%) 등이 주요한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으로 응답됨.

〈그림 8〉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 양상(중복 응답)

단위: %, N=165



주: 5)-8)은 영유아에게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의 행동을 의미함.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223. 〈표 V-3-4〉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 이는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심일 뿐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함.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보육·교육기관이나 부모들이 영유아 시기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대한 상당한 인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행동 중 산만함이나 공격적인 행동 외에도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식사, 수면 등 영유아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본생활습관을 해치는 행동’이 적지 않게 관찰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
-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대한 적극적·전문적인 대처 경험은 미흡하였음.
 - ◆ 영유아가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을 보인 경우 ‘미디어 과의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확인해 본 비율은 17.6%에 불과하였고, ‘전문적 상담·치료’를 받은 경험도 12.7%로 낮게 나타남.
 - ◆ 과의존 위험성에 대한 관심과 걱정은 높은 수준임에 비해 정보 부족이나 영유아의 발달상 특성과 혼동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12〉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한 대처 경험

단위: %(명)

미디어 과의존 체크리스트 확인 여부		전문적 상담·치료 경험 여부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7.6	82.4	12.7	87.3	100.0 (165)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223. 〈표 V-3-4〉.

4

가정 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 ◆ 여기서는 상기한 영유아 가정의 미디어 환경 및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가 생애최초로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하게 되는 미디어 환경의 적절한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가.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 확대와 교육 기반 조성

- 기관 이용, 미이용 영유아의 부모에 적합한 부모 대상 가정 내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함.
- ◆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54조에 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 외에 ‘영유아 부모’를 의무 교육 대상으로 추가하여 보육·교육 기관 이용 영유아 부모 대상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제공을 의무화할 것으로 제안함.

〈표 13〉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변경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기관 이용 영유아	기관 이용 영유아, 영유아의 부모
비고		- 영유아 연령별 교육 내용의 차별화 - 전문화, 심화된 시리즈 교육 개발 -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내용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242. 〈표 VI-2-1〉.

- ◆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에 비해 부모교육의 기회가 제한되는 기관 미이용 영유아 부모 대상의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제공 방안으로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활용한 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제안함.
- ◆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시 ‘전자미디어 노출’에 대한 건강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2차(4~6개월)과 4차(18~24개월), 7차(66~71개월) 사이의 간격이 다소 긴 편으로 3차와 5차 정도에 추가 교육을 마련할 것으로 제안함. 특히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생후 18개월 내외의 교육 회수를 증가시켜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음.

〈표 14〉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전자미디어 노출’에 대한 건강 교육 및 상담 강화(안)

	제공 회차						
	1차 (생후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54~60개월)	7차 (66~71개월)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243. 〈표 VI-2-2〉.

■ 미디어 교육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 ◆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욕구에 맞는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으로 제안함.

나. 가정 내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기준과 지침 마련·배포

■ 원격수업 활용에 따른 가정용 미디어 이용 지침 개발·배포와 교육 제공

- ◆ 원격수업을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도 시도함에 따라 원격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미디어 기기의 관리방법과 영유아가 수업 외 불필요한 미디어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지도 상의 유의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원격 수업 활용에 따른 가정용 미디어 이용 지침’의 개발과 배포를 제안함.

■ 기 개발된 영유아 부모용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 배포 확대와 인지·활용도 제고

- ◆ 유치원·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되는 부모교육 시 자료로 배포하며, 영유아 건강검진, 출생신고 등의 기회를 통해 가급적 빠른 배포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함.

다. 영유아용 콘텐츠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조치 마련

■ 영유아용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선별 기준 개발을 통해 취학 아동과 구분되는 영유아용 콘텐츠를 선별하여 연령별 추천 콘텐츠 목록 제공

-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5항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의 분류기준을 세분화하여 취학 전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 제공을 제안함.
-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영유아의 건전한 미디어 이용을 돕기 위해 이러한 연령 기준에 의해 유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연령별 추천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함.

I 참고 문헌 I

- 배소영·정연구(2015). 미디어 이용은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하는가? 텔레비전, 스마트폰, 책 읽어주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6), 67-93.
- 육아정책연구소(2021). 교육 대전환 시대, 영유아 디지털 교육보육 정책의 현재와 미래. 2021 육아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 이민주·이영신·유정은(2015). 유아의 미디어 이용시간 및 성별에 따른 언어 발달 차이. *열린부모 교육연구*, 7(3), 37-52.
- 이상희·오새니(2019). 유아기 미디어 이용이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8(2), 89-108.
- 이상희·이정미(2019).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시간의 매개효과 검증. *어린이미디어연구*, 18(3), 135-160.
- 이정림·도남희·오유정(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박원순·엄지원(2021).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Linebarger, D.L., & Vaala, S.E. (2010). Screen media and Language development in infants and toddlers: An ecologic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30(2), 176-202.

PART

04

패널 및 데이터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개요 및 정책적 기대효과
이정림
- 육아정책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과 연구자료 활용성 확대를 위한 제고 방안
김자연

| 이슈페이퍼 2022-03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개요 및 정책적 기대효과

이정림

1. 연구의 배경
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개요
3. 향후 추진 방안
4. 정책적 기대 효과

참고문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개요 및 정책적 기대효과*

이정림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지난 10여 년간 육아정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투자 등을 비롯한 변화된 육아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방향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정책 대상이 되는 영유아와 그 가정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함.
- 한국아동패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아 코호트를 구축했던 반면,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한국아동패널 보다 진일보하여 출생 이전 단계인 임부의 태아를 대상으로 출생아 코호트 구축을 기획하였음.
- 표본추출은 1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을 추출단위(sampling unit)로 하고 2단계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신생아 가구)를 추출단위로 사용함.
- 의료기관에 대한 층화변수는 병원 구분과 권역으로 함. 이에, 병원은 대형병원(종합전문병원/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고, 시·도는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제주권)으로 묶어 층을 구성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론과 Elder의 생애이론을 토대로 아동을 둘러싼 다층적인 환경을 유목화 하여 조사영역을 구성하였고, 조사영역은 크게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족 특성, 교육·보육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으로 구분됨.
- 2022년도에는 임부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I, II를 실시하고, 출생아가 만1개월이 되는 시점에 산모 대상의 우울 문항 조사와, 출생아가 만4개월 시점에 어머니 및 아버지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 및 가구방문을 통한 주양육자 대상의 TAPI조사를 수행할 예정임.
- 본 연구는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정책 및 일-가정양립정책 등으로 인한 육아 환경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다음 세대 아동의 성장·발달, 학교적응, 부모의 양육 인식 등에서의 차이점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향후 아동 발달에 적합한 정책 수립 및 저출생 정책 방향 등을 재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Korean ECEC Panel Study), 이정림·박은정·김자연·송신영·이혜민·이재희·이기재(2021)」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1

연구의 배경

가. 연구의 필요성

- 최근 한국의 극심한 저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 생애 초기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발달 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위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함.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한국 아동이 출생하여 성장하고 발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궤적을 출생부터 매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국내 최초 전국 단위의 출생아 패널로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 2008년도에 전국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2,150명과 신생아 부모를 표본으로 구축하여 매해마다 추적하고 있으며 이는 2027년까지 지속될 예정임(이정림·김지현·이규림·조혜주·임중환·Gustavo Carlo, 2017: 13).
- 지난 10여 년 동안 만 3~5세 유아 대상 무상보육·교육 제공,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제공,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의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변화 등과 같은 커다란 국가의 정책적 변화 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아동의 가정 양육 환경 및 육아 및 보육·교육 환경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음.
 - ◆ 지난 10여년간 저출생 극복 등을 위한 사회적 기초와 맞물려 집중적으로 재정 투자가 있어 온 육아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방향성에 관한 재검토를 위해서 정책 대상이 되는 영유아와 그 가정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함.
 - ◆ 이상과 같은 정책적 변화, 보육·교육 환경 및 육아 환경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성장 발달 및 발달적 변화 양상, 보육·교육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대표적인 새로운 종단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
- 출생 전·후의 태아 및 신생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생아 부모의 육아환경을 포함한 보육·교육 기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가를 파

악하기 위한 국가적 수준의 자료 수집은 육아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간이 됨.

- 새롭게 구축되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한국아동패널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한 정체성 및 장점은 포용하고, 한국아동패널이 지닌 한계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한국 영유아가 경험하는 교육·보육 관련 변인에 관한 정보를 생애 초기인 신생아부터 수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함.

나. 연구의 목적

- 태아기부터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의 양육, 보육과 교육 경험 및 이와 관련된 인적·물리적 환경요인, 부모의 내·외재적 요인,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등 생애 초기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한 횡단·종단적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함.
- 육아지원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 등 관련 정책의 변동으로 인해 육아 환경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코호트 아동의 성장·발달, 학교적응, 부모의 양육 인식 등에서의 차이점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아동 발달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함.
- 한국아동패널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 및 변화 정도 등을 파악하고, 한국아동패널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을 추가 및 보완함으로써 패널이 산출하는 자료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 10년 이상 축적되는 패널 자료 제공을 통하여 국내·외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학술적 심화를 조장하고, 국외 관련 전문가와의 학문적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축적된 학술적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육아 정책 방향성 재정립에 기여함.
 - ◆ 이상의 필요성과 목적을 토대로 구성된 연도별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기획 개요는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연도별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대상 연령 및 차수 계획

구분	태아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2021년	기초									
2022년		기초 1차								
2023년			2차							
2024년				3차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2028년								7차		
2029년									8차	
2030년										9차

자료: 이정림·박은정·김자연·송신영·이혜민·이재희·이기재(202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1. 육아정책연구소. p. 24. 〈표 1-2-1〉를 토대로 2022년도에 해당하는 조사를 구체화하여 제시함.

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개요

가. 태아 대상의 출생아 패널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국내외 여타 다른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패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애초기 단계인 출생아부터 자료 수집이 시작되는 출생아 패널이며, 이것이 가장 주요한 특성임.
 - ◆ 국내외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단연구는 초등학교 이상 또는 성인 패널(예: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한국교육종단연구, 여성가족패널, 노동패널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 ◆ 생애 초기단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이라는 출생아 패널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음.
- 한국아동패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아 코호트를 구축했던 반면(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정영혜, 201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한국아동패널 보다 진일보하여 출생 이전 단계인 임부의 태아를 대상으로 출생아 코호트 구축을 기획하였음.

- ◆ 임부와 태아 건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태내환경, 임신 중 우울 및 스트레스 등과 같은 임신 중의 특성을 회고식 응답이 아닌 해당 시기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응답의 정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음.

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특성

■ 표본 설계 특성

- ◆ 2021년도에 새롭게 구축하는 출생아 코호트는 기존의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 저소득과 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기획함.
- ◆ 한국아동패널의 표본 구축 조건에서 제외하였던 조산아와 미숙아를 포함하고자 함.
- ◆ 한국아동패널 표집에서 제외되었던 쌍생아를 포함하고자 하였음.
- ◆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표본 구축을 위한 요양기관 모집 권역에서 제주도가 제외되었던 반면,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는 제주도가 포함됨.

■ 조사설계 특성

- ◆ 기존 한국아동패널 연구와는 달리, 출생 이전 태아를 포함하여 태아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과 같은 출생 전 환경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넓혀서 기획함.
-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 양육을 한다는 양성적 관점에서 질문 내용을 구성하고 아버지 질문의 비중도 한국아동패널에 비해 늘리고자 함.
-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는 만 0세부터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련 조사영역 및 세부 변인을 포함하여 기획함.

다.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표본설계

■ 표본설계 기본원칙

- ◆ 본 연구에서 코호트 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생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집단 분석을 수행함.

- ◆ 구체적인 신생아 표본추출을 위해 활용 가능한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과 추출단위를 파악하여, 전국 산부인과 병원을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함.
- ◆ 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목표 오차를 만족하기 위한 예상 표본크기를 검토함.
- ◆ 효과적인 표본설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층화방법 및 층별 표본 배정 방법을 검토하고, 1차 추출단위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검토함. 또한, 1차 추출단위를 표집 후 최종 조사 단위인 신생아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살펴봄.
- ◆ 본 조사는 층화 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표본추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자료 분석을 통한 모집단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위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 과정이 필수적임.

■ 출생아 모집단 분석

- ◆ 통계청에서 2021년에 공표한 2019년도 『출생·사망 통계』를 기초로 국외 출생자를 제외한 후 시·도별 출생자 수를 '구/시부'와 '군부'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현황을 파악함.
 - 시·도별 다문화 및 차상위 이하 가구 출생아 현황을 파악함.

■ 표본추출단위 및 표본추출 틀

- ◆ 표본추출은 1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을 추출단위(sampling unit)로 하고 2단계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신생아 가구)를 추출단위로 사용함.

■ 층화

- ◆ 의료기관에 대한 층화변수는 병원 구분과 권역으로 함. 이에, 병원은 대형병원(종합 전문병원/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고, 시·도는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제주권)으로 묶어 층을 구성

■ 표본크기 및 표본배분법

- ◆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1차년도 패널조사를 위해 3,300~3,500명의 신생아 가구(다문화 가구 400명, 차상위 이하 가구 400명 포함)를 최종 표본으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표본 추출

- ◆ 표본은 층화 2단계추출법으로 최종 표본을 추출함. 1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을 추출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 표본 의료기관에서 표본 신생아를 선정하여 코호트를 구축함.

-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구축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의 각 층별 표본 의료기관과 표본 신생아 수를 다음 <표 2>에서 제시하였음.

<표 2> 각 층별 표본 의료기관 현황과 표본 신생아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권역						합계
		서울	경기/ 인천권	대전/세종/ 충청/강원권	대구/ 경북권	부산/울산/ 경남권	광주/전라/ 제주권	
의료 기관	상급+종합병원	6	4	2	2	2	2	18
	병원	4	13	4	7	9	8	45
	의원	7	13	16	3	8	6	53
	합계	17	30	22	12	19	16	116
표본 크기	상급+종합병원	240	160	80	80	80	80	720
	병원	160	520	120	210	270	240	1,520
	의원	210	390	320	60	160	120	1,260
	합계	610	1,070	520	350	510	440	3,500

주: 목표 표본 신생아 수를 3,300~3,5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표 2>에서는 3500명의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자료: 이정림·박은정·김자연·송신영·이혜민·이재희·이기재(202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1. 육아정책연구소. p. 121. <표 III-2-9> 각 층별 표본 의료기관 현황. p. 122. <표 III-2-10> 각 층별 표본 신생아 수'를 활용하여 재구성함.

■ 가중치 산출 및 추정

- ◆ 본 조사에서도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각종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표본가중평균(標本加重平均)을 이용하여 추정함.

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참여 임부 모집

- 본 연구의 표본설계를 토대로 전국 6개 권역별로 총 116개의 의료기관이 표본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1~8월에 출생 예정인 3,300~3,500명의 아동 가구를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 표본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산부인과 자문단 교수가 전화 연락 등의 직접 컨택을 통하여 표본 기관으로 수락한 의료기관 총 103개소였고, 실사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 등의 이유로 거절하는 기관이 많아 56개 기관이 실사에 참여하였음.
- ◆ 2022년 6월 2일 기준으로 전국 산부인과를 통하여 총 3,402명의 임부가 모집되어 목표 표본 수에 도달하였음.

〈표 3〉 최종 임부 모집 현황 (2022. 6.2 기준)

단위: 명

권역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총합계
서울	118	222	186	526
경인	234	588	221	1,043
충청/강원	103	62	207	372
경북	48	362	0	410
경남권	145	305	125	575
제주/전남	59	296	121	476
합계	707	1,835	860	3,402

주 : 모집된 임부 중, 2021년 출생, 유산, 사망 등으로 50명의 임부는 최종 임부 모집 현황에서 제외되었으며, 출산 결과에 따라 모집 규모는 다소 더 축소될 수 있음.

- 총 3,300~3,500명의 임부(태아) 표본에서 다문화 가구와 저소득 가구 임부를 각 400명 정도를 포함하여 과표집 하고자 하였으나, 2022년 6월 2일 기준으로 다문화 및 저소득 가구 임부는 각 97명과 75명으로 저조하게 모집되었음.
- ◆ 다문화가구 대상자 확보를 위하여 한국건강진흥원 및 전국 22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과, 저소득 가구의 임부 모집의 일환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및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 요청과 홍보를 하였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모집된 다문화 및 저소득 가구 임부 모집 현황은 목표치 대비 저조한 결과로 나타났음.

〈표 4〉 최종 모집된 다문화 및 저소득 가구 임부 현황 (2022. 6.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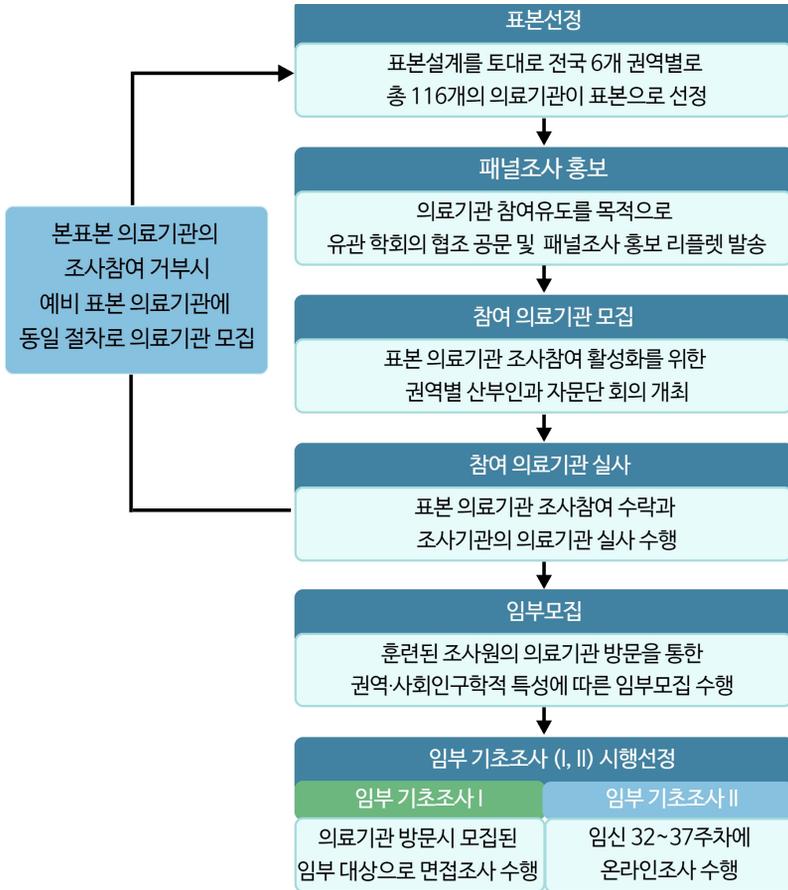
단위: 명

전체 응답자 수	전체 가구	다문화 가구	저소득 가구
서울	526	23	12
경인	1,043	31	21
충청/강원	372	9	3
경북	410	4	20
경남권	575	19	12
제주/전남	476	11	7
합계	3,402	97	75

주 : 모집된 임부 중, 2021년 출생, 유산, 사망 등으로 50명의 임부는 최종 임부 모집 현황에서 제외되었으며, 출산 결과에 따라 모집 규모는 다소 더 축소될 수 있음.

- 2021년 9월부터 임부 모집을 시작하여 2021년 12월에는 임부 모집을 완료하고자 했으나 세계적인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내에도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임부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음.
 - ◆ 이러한 배경으로 1차적으로 모집 기한을 2022년 2월로 연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권역별 산부인과를 통하여 모집된 임부는 최종적으로 총 3,350명이 모집되었으나 수도권 임부모집과 일반가구에 비해 다문화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모집이 크게 저조하였음.
 - ◆ 이에 해당 지역과 다문화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4월까지 모집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여 추가모집을 진행하였으나 2차 추가모집에서 다문화 가구 8명, 저소득 가구 1명을 포함하여 73명에 그쳤음.
 - ◆ 한편, 실제 출산이 2021년에 이루어졌거나 임신상태에서 유산되거나 출생 후 사망하는 등의 임신결과로 50명의 패널 가구는 추후 표집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 2022년 4월까지 임부 모집 규모는 3,402명이나, 최종적으로 유산 혹은 사망, 쌍생아 출생으로 실제 출생아 규모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의료기관을 통해 모집된 임부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I, II를 수행하였음.
 - ◆ 임부 모집과 기초조사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다음 [그림 1]에서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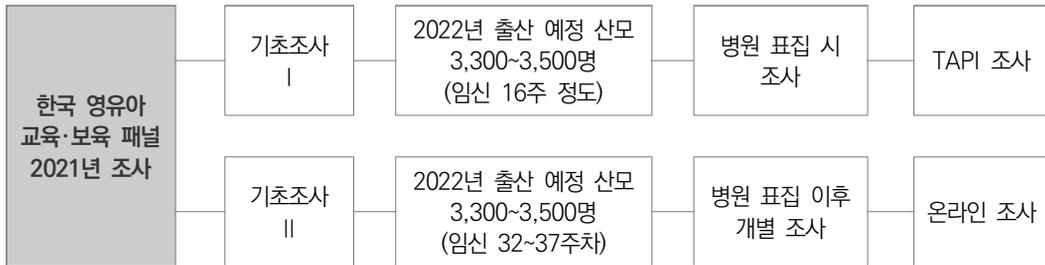
[그림 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연구 임부모집 단계와 기초조사 수행 도식



자료: 이정림·박은정·김자연·송신영·이혜민·이재희·이기재(202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1. 육아정책연구소. p. 126, [그림 III-3-1]

- 병원에서 임부 모집 시에 기초조사 I을 TAPI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임신 후반부인 임신 32~37주차에 기초조사 II를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함.

[그림 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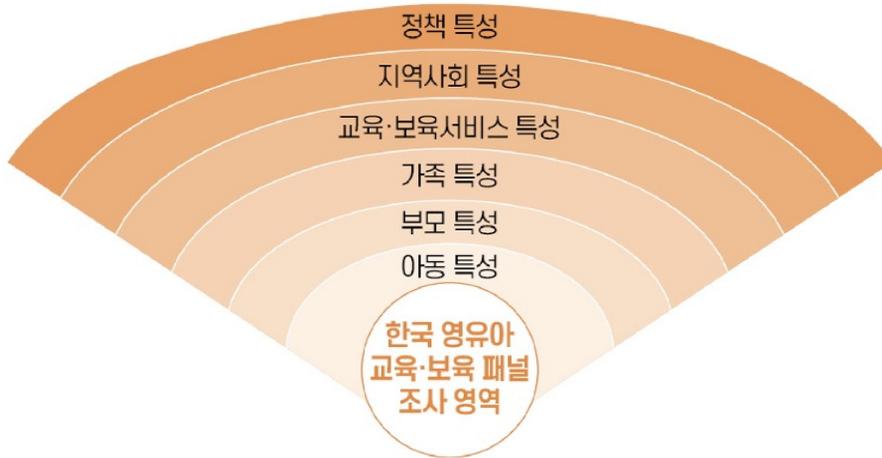
주: 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자료: 이정림·박은정·김자연·송신영·이혜민·이재희·이기재(202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1. 육아정책연구소. p. 39, [그림 1-3-4]

마.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주요 조사영역 구성 및 개발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론과 Elder의 생애 이론을 토대로 아동을 둘러싼 다층적인 환경을 유목화하여 조사영역을 구성하였음.
- 본 패널의 조사영역은 크게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족 특성, 교육·보육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으로 구분됨(그림 3 참조).
 - ◆ 아동을 둘러싼 주요 체계로서 부모, 가족, 지역사회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하고, 중장기적인 교육·보육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패널의 목적에 따라 기존의 한국아동패널보다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와 육아정책의 변화와 특성에 보다 초점을 두었음.

[그림 3]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조사 영역



자료: 이정림·박은정·김자연·송신영·이혜민·이재희·이기재(202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1. 육아정책연구소. p. 140, [그림 IV-2-1]

바. 2021년도 기초조사 영역 및 변인 구성

- 기초조사는 임부를 병원에서 모집할 때 실시하는 대면조사인 기초조사 I과 임신 후반기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는 기초조사 II로 진행됨.
 - ◆ 기초조사 I은 모집당일 면접 TAPI조사로 실시하며 임신특성, 결혼상태 및 시기,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어머니의 정서 특성, 가구 특성 변인들을 조사함.
 - ◆ 기초조사 II는 임신 32~37주차에 온라인 조사로 실시되며, 태아 특성, 임신관련 특성, 출산 및 분만 관련 특성, 어머니의 신체·건강 특성,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혼 관련 특성 변인들을 조사함.

〈표 5〉 2021년 기초조사 문항 내용

구분	변인	
	대분류	소분류
1차 조사 (표집 시 바로 실시)	현재 임신 주수	- 현재 임신 주수, 출산 예정 시기
	계획 임신 여부	- 계획된 임신인지 확인 여부
	결혼 상태	- 결혼 상태, 결혼 시기
	인구사회학적 특성	- 본인 연령, 국적
	임신 시 정서 상태	- 임신 이후 감정, 우울 관련 상태
	가구 특성	- 가구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여부
	연락처 등	- 추후 연락 가능 전화번호
	태아 출생순위	- 태아 출생순위
	임신 관련 특성	- 시험관 시술 경험, 임신 전 예방접종, 산전검사 여부
	출산 및 분만 관련 특성	- 분만예정지, 임신 및 출산 관련 정보 습득처
2차 조사 (표집 이후 온라인 조사)	태내 환경 특성	- 환경 유해 물질 노출 여부, 레토르트 식품 섭취 여부, 핸드폰 사용량
	신체 및 건강 특성	- 본인 키/몸무게, 장애 여부, 과거 병력, 질환, 임신 시 입원 여부, 약물 투약 여부, 흡연 및 음주 여부 등
	심리적 특성	- 자아존중감, 우울 등
		가구 특성
	결혼만족도	- 결혼만족도 정도, 부부갈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 취업 및 학업 상태, 직장 및 학업 복귀 계획
	최종학력	- 본인 및 배우자 최종학력
	근로특성	- 본인 및 배우자 근로특성, 종사상 직위, 근로시간

사.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중장기 조사영역 및 변인 구성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중장기 조사영역 및 조사변인 구성

- ◆ 생후 4개월 이후 실시하는 본 조사에서는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및 가구원 특성, 교육·보육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을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며, 교육·보육서비스 기관(장) 특성 및 교사 특성은 아동이 재원 중인 기관의 기관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함.
- ◆ 아동 특성 영역은 크게 일상생활 특성, 신체발달, 인지 및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아동건강으로 분류됨.
- ◆ 부모 특성 영역은 부모 심리적 특성, 양육실제, 양육 환경, 양육 지원, 부모 건강 영역으로 구분됨.

- ◆ 가구 및 가구원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물리적 환경 특성으로 구분됨.
- ◆ 교육·보육서비스 특성은 크게 부모·아동 관점의 교육·보육서비스 특성, 기관 및 기관장 특성, 교사 특성으로 구분됨.
 - 부모·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특성 영역은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경험, 교육과정/기본보육, 방과후과정·돌봄/연장보육, 부모 참여, 기관 외 사교육, (영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만족도로 구성됨.
 - 기관(장) 특성은 기관 특징과 기관의 운영 및 질 영역으로 구분됨.
 - 교사 특성은 크게 학급특성, 교사특성, 교육과정의 질, 유아 및 부모 대상 교사 인식, 직무환경 영역으로 구분됨.

〈표 6〉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중장기 조사영역

구분	영역	
	대분류	중분류
아동 특성	일상생활 특성	식생활, 미디어, 수면, 실내외활동
	신체발달	신체특성, 운동능력
	인지 및 언어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학습
	사회정서발달	자아발달, 정서, 사회성, 적응, 정신건강(IECM: Infant and Early Childhood Mental Health)
	아동건강	사건, 사고, 질병 및 치료 방법, 출산 후 신생아 건강, 장애, 예방접종
부모 특성	부모 심리적 특성	양육 스트레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양육 효능감, 학습지원 효능감, 그릿
	양육 실제	주양육자, 놀이에 대한 부모태도, 양육유형, 부모-자녀 상호작용 질(과정적 질)
	양육환경	가정 양육환경(IT-HOME)
	양육 지원	양육분담(배우자, 조부모), 부모 지원 자원, 사회적 관계
가구 및 가구원 특성	부모 건강	임신출산, 모건강, 부건강
	인구학적 특성	가구특성, 가구구성원 특성, 다문화가족 특성
	경제적 특성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 빈곤
	물리적 환경 특성	주거환경, 생활환경

구분	영역	
	대분류	중분류
교육·보육 서비스 특성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경험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이용 현황
	교육과정/기본보육	기관 선택권, 만족도
	방과후과정과 돌봄/연장보육	방과후 과정과 돌봄(아침, 저녁)/연장보육 참여,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부모 참여	학급 활동 및 기관 행사 참여, 부모교육 내용, 부모 의사소통, 기관 질 관리 제도 참여
	기관 외 사교육	이용현황, 만족도
	유치원/어린이집 만족도	(영)유아 만족도
	기관(장)	기관 특징
		지역, 기관 기본 현황, 기관장 경력
		학급 특성
		학급구성 특별한 요구를 지닌 유아 및 취약계층 유아 현황
교사	교사 특성	교사 사회인구학적 특성, 기관 적응 노력 전문성 개발활동, 교사의 웰빙, 이직의사
	교육과정의 질	교사-유아 주도 활동, 유아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유아-교사 상호작용
	유아 및 부모 대상 교사 인식	유아-교사 관계에 대한 교사 인식 교사-부모 의사소통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참여
	직무환경	물리적 근무환경
지역특성	일반적 지역 특성	가구 소재지, 거주기간
	양육 관련 지역 환경 특성	지역사회 양육환경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지역사회의 양육적절성
정책 특성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방향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필요성
	육아지원정책별 평가	현금 지원, 현물/바우처 지원 시간 지원,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자료: 이정림·박은정·김자연·송신영·이혜민·이재희·이기재(202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1. 육아정책연구소. pp. 149~151, [그림 IV-3-4]를 토대로 중분류 영역을 합쳐서 재구성함

- 2022년도부터 2030년도 수행될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조사영역 및 조사 변인의 측정시기, 측정 척도, 응답자로 구성된 조사 프로토콜을 특성별로 제시하였고 (이정림 외, 2021: 157~181 <표 IV-3-6> ~ <표 IV-3-11> 참조), 다음에서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였음.

- ◆ 패널 참여 아동연령은 만 0세에서 만 8세까지이며, 1차 조사인 만 0세 조사는 생후 4개월경에 실시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조사 문항을 선정하였음.
- ◆ 측정방법에는 일반적인 설문 문항 이외 척도를 사용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별도 표기하여 제시하였음.
- ◆ 본 패널 조사는 보호자, 어머니, 아버지, 아동, 기관장, 교사 총 6개 응답자 유형 설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변인마다 응답자 유형을 표기하였음.

3

향후 추진 방안

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중장기 추진 방향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중장기 추진 방향

- ◆ 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1~2차에 걸친 기초조사는 2021년도 연구로 간주하여 2021년도 IRB 신청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음.
- ◆ 2022년도에는 태아가 출생 후 1개월 시점에 어머니 우울 문항 조사와 태아가 4개월 때 가구방문을 통한 본격적인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임.
- ◆ 태아가 출생 후 만 1세부터 만 8세가 되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1회의 가구방문으로 출생아와 출생아 부모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와 더불어 출생아가 다니는 육아지원기관 및 초등학교 담임교사 대상 조사가 수행될 것임.

■ 만 3세 유아 코호트 추가 기획 개요

-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출생아가 성장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새로운 만 3세 유아 코호트를 기획하여 운영하고자 함.
 - 만 3세 유아 코호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반으로 표본을 구축하여 한국 영유아가 경험하는 기관 교육·보육의 질을 포함한 기관 특성, 교사 특성과 같은 변인을 살펴보고자 함.
 - 2028년도에 만 3세 유아 코호트를 기획하여 예비조사를 수행하고, 2029년도에는

만 3세 유아 코호트를 구축하여 1차년도 조사를 수행하고 2030년도에는 2차년도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함.

- ◆ 2028년도~2030년도의 경우,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출생아 코호트와 만 3세 유아 코호트의 2개의 코호트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임.

〈표 7〉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도별 추진 계획

구분	태아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2021년	기초 (본연구)									
2022년		기초 1차								
2023년			2차							
2024년				3차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2028년								7차 예비조사		
2029년									8차 1차	
2030년										9차 2차

나. 2022년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향후 추진 방안

- 태아·임부 표본 구축 및 유지 관리
 - ◆ 2022년도에는 표본 구축을 완료하고, 구축된 패널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함.
- 1차년도(2022년) 조사 준비 및 실시
 - ◆ 태아가 출생한 후 1개월 때 어머니 대상의 우울 문항 관련 1차 온라인 설문조사 준비 및 조사를 수행함.

- ◆ 태아가 출생한 후 4개월 즈음 본격적인 가구방문을 통한 광범위한 조사 진행 1~2주 전에 어머니 및 아버지 대상 2차 온라인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수행함.
- ◆ 태아가 출생한 후 4개월 때 출생아 가구의 방문을 통한 1차년도 가구방문 TAPI 조사를 준비하고 및 수행함.
- ◆ 1차년도 조사수행을 위한 전국 조사원 교육을 실시함.
- ◆ 영아 대상 발달 검사(K-DST) 준비하고 실시함.
- ◆ 관찰과 면접을 통한 영아용 가정환경검사(K-IT-HOME) 준비 및 실시
- 기초조사 및 1차년도 데이터 구축 및 관리
 - ◆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걸쳐 수행되었던 기초조사 I, II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에디팅을 실시함.
 - ◆ 2022년도에 태아가 출생한 후 1개월, 4개월 시점에 수집될 1차년도 데이터를 구축하고 에디팅 작업 등을 실시함.
- 기초조사 분석
 - ◆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걸쳐 수행되었던 기초조사 I, II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 분석을 수행함.
- 가중치 산출
 - ◆ 기초조사 자료 분석에 활용할 가중치를 산출함.
- 패널 홍보
 - ◆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탑재 및 업데이트하고 육아 관련 정보 및 패널 관련 주요 보도자료 내용 등을 소개함.
 - ◆ 패널 자료 활용을 위해 유관학회 등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홍보를 진행함.

4 정책적 기대 효과

-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정책 및 일-가정양립정책 등으로 인한 육아 환경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다음 세대 아동의 성장·발달, 학교적응, 부모의 양육 인식 등에서의 차이점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향후 아동 발달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정책을 비롯한 각종 수당(영아수당, 양육수당) 등에 관한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한 저출생 정책 방향 재정립에 기여함.
- 생애 초기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발달 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아동의 대표적인 성장 및 발달 지표를 생성함.
- 2008년 출생아 기반으로 수집된 한국아동패널 자료와 2022년 출생아 기반으로 수집되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 및 변화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 기반의 국가 자료를 제공함.
- 취약계층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성장 및 발달, 양육 환경 및 요구 등에 관한 파악을 통하여 사회적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기여함.
- 임신 및 출산 관련 환경, 태아 특성 및 조산아 등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을 통한 성장 및 발달 궤적을 파악함으로써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건강한 모자보건 정책 마련에 기여함.

| 참고 문헌 |

- 이정림·김지현·이규림·조혜주·임종한·Gustavo Carlo(2017). 한국 어린이 성장 발달 코호트 모형 구축 및 타당화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박은정·김자연·송신영·이혜민·이재희·이기재(2021).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Korean ECEC Panel Study).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정영혜(2011).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이슈페이퍼 2022-11 |

육아정책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과 연구자료 활용성 확대를 위한 제고 방안

김자연

1. 배경
 2. 국내·외 데이터 정책 동향 및 유관기관 데이터 관리 체계
 3.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 실증적 분석과 경향
 4.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 데이터 관리
 5.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방향성
- 참고문헌

육아정책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과 연구자료 활용성 확대를 위한 제고 방안

김자연 부연구위원

◆◆ 요약 ◆◆

- 데이터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은 데이터의 생산·수집의 목적, 방법, 대상 등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 전반을 의미하며, 연구계획 단계에서 연구 결과물인 데이터 관리계획도 포함되어야 함.
- OECD의 공공데이터 방향성과 함께 정부데이터의 공공데이터 개방화를 통해 공공의료,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임.
- 연구회에 소속된 유관기관의 경우 대부분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통계자료 생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하부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 기관도 육아정책분야의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하여 대중에 공개해 오고 있음.
- 최근 3년(2019~2021년)에 걸쳐 수행한 109개 연구과제 목록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에 기술된 연구방법의 빈도와 비중을 살펴보니 설문조사는 기본과제와 일반과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으로 확인됨.
- 연구 자료의 공공데이터화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의 과정을 통해 유관 기관과의 자료 공유 및 연계를 통해 1차 자료 확보를 확보하여 자원 축소 및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자료 공유 및 연계를 바탕으로 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그 기능이 유연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축적된 양적 자료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연구자의 요구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와 전담인력이 필수적임.

1

배경

■ 데이터 관리 계획과 필요성

- ◆ 데이터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 중 생성하는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방안을 계획하는 문서로, 데이터의 생산·수집의

목적, 방법, 대상 등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시기자 외, 2021).

- ◆ 육아정책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우리기관의 경우, 정책 방향성 설정과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를 수행해 왔음. 이 과정을 통해 육아에 참여 혹은 연관되어 있는 대상자들로부터 다양한 양적·질적 자료를 축적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체계적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여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연구를 계획함에 있어 연구자는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어떻게 연구를 수행할 것인지와 함께 연구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세울 필요가 있음(최명석·이상환, 2020).

■ 공공데이터 개방 흐름

- ◆ Ubaldi(2013)은 OECD의 공공데이터 관련 실증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요소로 정부데이터(Government Data)와 공개데이터(Open Data)를 언급함. 정부 데이터(Government Data)는 정부에서 생성되거나 권한이 있는 데이터 및 정보로서의 의미를 말하며 공개데이터(Open Data)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무료 제공을 통해 분배되고 재사용됨을 의미함.

■ 연구 기관 데이터 관리의 구체적 적용

- ◆ 육아정책연구소는 다년간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주제의 다양성이 크게 확장되고 있고 연구의 깊이도 세분화되고 있음.
- ◆ 이에 파생된 연구결과보고서와 누적된 자료의 양적 방대함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됨. 이를 위해 개별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화 방법론을 탐색하고 벤치마킹하여 연구결과물의 활용가치를 높이며 중복을 최소화하여 오랜 기간 축적된 자료를 유목화하고 연구 활용 접근성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국내·외 데이터 정책 동향 및 유관기관 데이터 관리 체계

가. 국내·외 데이터 정책 동향

-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G8 국가 정상회의(G8 Summit)의 원칙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¹⁾
 - ◆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2013년 G8 국가 정상회의에서 개방형 데이터 현장을 마련하면서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다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1)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정부 데이터 공개 (Open Data by Default)
 - 2)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을 개선하여 시기적절하게 포괄적이며 정확한 데이터 공개 (Quality and Quantity Data)
 - 3)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광범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Usable by All)
 - 4) 기술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전 세계 다른 국가와 공유하여 모든 사람이 개방형 데이터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함(Releasing Data for Improved Governance).
 - 5) 개방형 데이터 활용 능력을 높이고 개방형 데이터 촉진 분야에서 일하는 시민 사회 단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같은 사람들이 개방형 데이터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장려(Collective Action)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관련 OECD 공공데이터 전문가 그룹 의견
 - ◆ 정기적으로 매년 6월 OECD 파리 본부에서 'OECD 공공데이터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 OECD 회원 및 파트너 국가의 공공데이터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각국 정부의 공동데이터 정책 및 관행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 왔음.
 - ◆ 2021년 6월에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7차 OECD 공공데이터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는

1) 영국정부 홈페이지, 정책보고서, G8 Open Data Charter and Technical Annex (Published 18 June 201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pen-data-charter/g8-open-data-charter-and-technical-annex#technical-annex>. (인출일 : 2022. 9. 19.).

코로나19 관련된 오픈데이터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도구로 오픈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함.

- ◆ OECD 에서는 정기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에 대한 보고서²⁾를 통해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의료,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데 몇 가지 정책과제³⁾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1) 첫째, 정부기관이 데이터 거버넌스(governance) 투자를 통해 데이터 활용 요구에 대응하도록 역량, 인프라, 절차 및 도구를 갖추어 데이터 생명주기 전체에 걸쳐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2) 데이터 사용자의 수요에 맞는 데이터 수집과 개방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사용자의 요구충족을 위한 지속적 노력
- 3) 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걸쳐 협업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주도적 영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영역을 탐색하고 데이터 관리 표준지침 설정과 개방에 따른 중재의 역할수행

■ 국내 공공데이터 운영 방안 및 활용

- ◆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음(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22).
- ◆ 실제적으로 2013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구축하여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음. 제공 방식은 파일데이터,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⁴⁾)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행 중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22).

2) OECD, GovLab. Open data in action: initiatives during the initial stage of the COVID-19 pandemic.

3) 오지은(2021). 코로나19 공공데이터 활용 교훈과 대처: 제7차 OECD 공공데이터 전문가 그룹 회의 주요내용, 제27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은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일련의 부(Sub) 프로그램, 프로토콜 등을 정의하여 상호 작용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사양을 말한다.

- ◆ 이외에도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기업지원 정책 정보, 개발자 네트워크 게시판, 문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데이터포털에 서는 개방된 9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행정 안전부 홈페이지, 2022).

나. 유관기관의 데이터 관리 체계 및 현황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설립목적으로 하며, 육아정책 연구소를 포함하여 26개 관련 연구기관이 이에 속함.
- ◆ 26개 관련 연구기관 중, ‘데이터’를 포함하는 센터(부서) 혹은 팀은 모두 13개⁵⁾ 기관에 해당하며, ‘통계’를 포함하는 센터(부서) 혹은 팀은 모두 7개⁶⁾ 기관에 이르며, 이중 ‘데이터’와 ‘통계’를 포함하는 센터(부서) 혹은 팀을 하부 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은 2개⁷⁾에 해당함.
- ◆ 연구회에 소속된 유관기관의 경우 대부분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통계자료 생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하부조직을 두고 있으며 연구회 산하 개별 연구기관의 조직도에 기초한 데이터 업무관련 부서의 특성은,
 - 1) 기획조정본부 산하로 조직의 연구기획과 관련된 업무 수행
 - 2) 타 연구부(실)와 동일 혹은 유사한 수준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연구사업의 특성 상 자료수집, 분석, 통계처리 등의 과업 수행
 - 3) 기관 고유의 패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데이터’ 연구실이나 센터에서 관련하여 자료생산(생성), 관리, 활용에 대한 역할 수행

5) 센터(부서) 혹은 팀명에 ‘데이터’를 포함하는 기관은 모두 13개로,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에 해당함.

6) 센터(부서) 혹은 팀명에 ‘통계’를 포함하는 기관은 모두 7개로,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해당함.

7) 센터(부서) 혹은 팀명에 ‘통계’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기관은 모두 2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 해당함.

〈표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기관의 데이터 관련 업무부서
(개별 기관의 홈페이지 조직도 정보 활용, 2022.7.13 기준)

기관	데이터 업무 관련부서	조직 규모	주요업무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2]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 국토데이터랩(팀)	팀장 (1) 팀원 (3)	•Unknown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4]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동향분석실	동향·통계분석본부 (본부장1, 부서원13) 동향분석실 (실장1, 실원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연구 • 산업·기업·통상관련 통계DB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산업분석 • 산업경기 조사 및 모니터링, 경제·산업분야 관련 이슈 발굴 • 산업·기업·통상관련 통계DB의 구축과 운영, 산업구조 분석과 전망, 계량모형의 개발·운영 및 정책적 효과분석
[5]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 에너지수급통계연구팀 • 에너지조사통계연구팀	센터장 (1) 센터원 (1) • 에너지수급통계연구팀 (팀장1, 팀원4) • 에너지조사통계연구팀 (팀장1, 팀원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에너지수급 관련 통계를 수집·관리하고 수급통계를 작성·공표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을 구축·서비스 • 국가 에너지조사통계를 수집·관리 • 통계조사 시행 및 작성·공표 • 국가 에너지조사통계 분석 및 개선 연구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 연구본부 > • ICT통계정보연구실 • 데이터분석예측센터	본부장 (1) • ICT통계정보연구실 (실장1, 실원11) • 데이터분석예측센터 (센터장1, 센터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정보 생산 및 생산체계 구축 • ICT 통계맵 구축, ICT 통계 분류체계 개선, ICT통계 품질 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 • 통계 생산 방법론과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개발 • 국가통계 및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연구
[7] 통일연구원	-	-	-
[8] 한국개발연구원	-	-	-
[9]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본부 > 데이터전략실 교육데이터 연구본부 > 교육통계센터	실장 (1) 실원 (3) 소장 (1) 센터원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데이터 구축전략 수립 및 추진 • 교육통계 관련 기획 업무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획조정본부 > 교육데이터센터	센터장 (1) 센터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데이터 축적 및 공유체계 구축관리 • 외부공개, 통계분석요청대응 • 공공데이터 관리업무

기관	데이터 업무 관련부서	조직 규모	주요업무
[11]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 연구본부 > • 국가교통DB센터 • AI·빅데이터 플랫폼 연구팀 • 모빌리티·빅데이터 분석팀	본부장 (1) 부서원 (30) • 국가교통DB센터 (센터장1, 센터원4) • AI·빅데이터 플랫폼 연구팀(팀장1, 팀원1) • 모빌리티·빅데이터 분석팀(팀장1, 팀원2)	• Unknown
[12] 한국노동연구원	패널데이터연구실	실장 (1) 노동패널팀 (팀장1, 팀원3) 사업체패널팀 (팀장1, 팀원2)	• 한국노동패널자료 생산, 관리, 활용연구 • 사업체단위 패널조사 자료 생산, 관리, 활용연구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4] 한국법제연구원	-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센터장 (1) 센터원 (1)	• 데이터 통합 연계방안 연구 및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빅데이터 관리, 활용 정책 연구 • 보건복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 • 보건복지와 정보기술의 융합 연구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 지식혁신본부 > 성인지데이터센터 (타 연구부와 동일수준)	센터장 (1) 센터원 (6)	• Unknown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1) 부소장 (1) 센터원 (3) 초빙연구위원 (2)	• Unknown
[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사회정책연구본부 > 동향·데이터분석센터	센터장 (1) 센터원 (7)	• 일자리 등 동향분석 및 자료발간 • 패널자료 생성·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 고급인재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 아동·청소년·청년 통계센터	센터장 (1) 센터원 (2)	• 아동·청소년·청년 통계센터 업무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수급DB연구그룹	그룹장 (1*) *전문연구원 그룹원 (2)	• Unknown
[21]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 (1) 소원 (5)	• 국정현안 등 조사사업 • 실태조사 및 통합지표관리 연구 • 통계자료 생산, 관리, 활용 업무 • 학술 및 교육행사, 행정DB 운영관리
[22]	정보·통계연구센터	센터장 (1)	• 형사분야 통계제공 및 범죄동향

기관	데이터 업무 관련부서	조직 규모	주요업무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센터원 (5)	분석자료 서비스
[23]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데이터 전략센터 (타 연구부와 동일수준)	센터장 (1) 센터원 (13)	• 관련 자료수집, 모니터링 및 분석, 모델링 등
[24] 건축공간연구원	빅데이터연구단	단장 (1) 단원 (10)	• (건축, 공간 관련)빅데이터연구 구축 및 분석
[25] KDI국제정책 대학원	중앙정보시스템부 (Division of Central Information Systems) > Data Unit2	부장 (1) 부원 (3)	• 일반행정, PC/Network 전담, 학교 시스템 전담, 보안 및 IT 관련 업무
[26]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 구실 > 데이터연구센터	센터장 (1) 센터원 (6*) *휴직 및 연가(3) 포함	• Unknown

자료 : 기관별 홈페이지의 조직도 정보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자료이며, 개별 홈페이지 주소는 각주로 링크와 인출일 정보를 기술함.⁸⁾

- 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stepi.re.kr/site/stepiko/ex/bbs/List.do?cblidx=1318>. (인출일 : 2022. 7. 13.).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rihs.re.kr/menu.es?mid=a10303010100>. (인출일 : 2022. 7.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ep.go.kr/organization/index.es?mid=a10406000000>. (인출일 : 2022. 7. 13.).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ep.go.kr/organization/index.es?mid=a10406000000>. (인출일 : 2022. 7. 13.).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eei.re.kr/main.nsf/index.html>. (인출일 : 2022. 7.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sdi.re.kr/dept/list.do?key=m2101113071581>. (인출일 : 2022. 7. 13.).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org/view/kor/menu/426?idx=201>. (인출일 : 2022. 7. 13.).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di.re.kr/introduce/org>. (인출일 : 2022. 7. 13.).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1), <https://www.kedi.re.kr/khome/main/intro/staffDetailForm.do>. (인출일 : 2022. 7. 13.).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2), <https://www.kedi.re.kr/khome/main/intro/staffDetailForm.do>. (인출일 : 2022. 7. 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s://www.kice.re.kr/kiceDept/view.do?childID=0212>. (인출일 : 2022. 7. 13.).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oti.re.kr/user/intrch/BD_selectOrgchtList.do. (인출일 : 2022. 7. 13.).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li.re.kr/kli/selectDeptList.do?key=324&view=on>. (인출일 : 2022. 7.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rei.re.kr/krei/employee.do?key=118>. (인출일 : 2022. 7. 13.).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lri.re.kr/kor/organization/list.do>. (인출일 : 2022. 7.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hasa.re.kr/institute/organization>. (인출일 : 2022. 7.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wdi.re.kr/about/organizationList.do?cg1=P1404> (인출일 : 2022. 7. 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kor/About_Organization.do. (인출일 : 2022. 7.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rivet.re.kr/ku/ga/kuEDALs.jsp>. (인출일 : 2022. 7. 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nypi.re.kr/modedg/depttreeView.do?menu_nix=14Lb435. (인출일 : 2022. 7.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mi.re.kr/web/contents/contentsView.do?rbsldx=181>. (인출일 : 2022. 7. 13.).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a.re.kr/site/kipa/ex/emp/Ora_List.do. (인출일 : 2022. 7. 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cj.re.kr/menu.es?mid=a10503010000>. (인출일 : 2022. 7. 13.).
 한국환경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ei.re.kr/organization.es?mid=a104020600000&lan=KOR&org_cd=201902194. (인출일 : 2022. 7. 13.).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auri.re.kr/organization/index.es?mid=a10103000000>. (인출일 : 2022. 7. 13.).
 KDI국제정책대학원 홈페이지, <http://www.kdischool.ac.kr/menu.es?mid=a10106000000>. (인출일 : 2022. 7. 13.).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https://kicce.re.kr/main/module/dept/index.do?menu_idx=16. (인출일 : 2022. 7. 13.).

3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 실증적 분석과 경향

가. 연구과제 수행과 데이터 수집

■ 연구과제 특성과 수행 내용

- ◆ 본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보고서의 대부분⁹⁾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으며, 누구나 원하는 보고서를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 ◆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는 크게 연구 특성에 따라 기본연구보고서, 수시연구보고서, 일반연구보고서, 수탁연구보고서, 협동연구보고서로 모두 다섯 개의 연구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음.

〈표 2〉 육아정책연구소(KICCE) 연구보고서 종류 및 설명

보고서 구분	설명
기본연구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설립목적과 기능, 원내·외 연구수요에 부합하는 과제로 선정, 수행되는 연구보고서
수시연구보고서	정부부처의 요청이나 자체발굴을 통해 정책 현안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고자 수행되는 연구보고서
일반연구보고서	정부 등 일반연구 의뢰처의 요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보고서
수탁연구보고서	정부 등 수탁연구 의뢰처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보고서
협동연구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원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보고서

■ 연차별 연구과제와 연구자료 수집 방법

- ◆ 다음은 최근 3년(2019~2021년)에 걸쳐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과 연구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수집 방법, 수집형태, 참여대상자, 수집기간 등에 대해 정리한 표임.
- ◆ 연도별로 수행된 연구과제 특성에 따른 분류의 결과에 따르면 매년 30개 이내로 기본, 일반, 수시과제가 수행되고 있으며 수탁과 협동과제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공개된 연구과제만 포함하였기에 실제 수행규모 비해 다소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음. 특히 수탁과제의 경우 과제수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기에 주의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9) 일부 수탁과제의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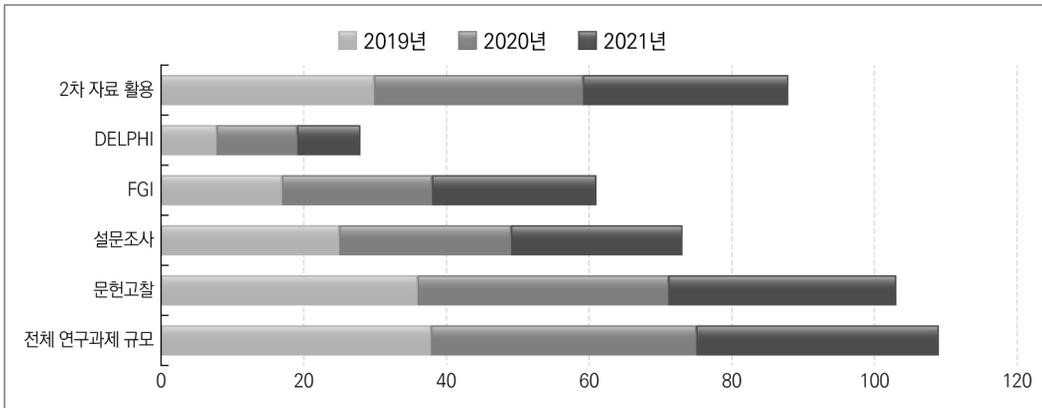
〈표 3〉 연구과제 특성과 연구방법 활용 개수에 따른 요약통계량(2019-2021년)¹⁰⁾

구분		연도			합계	
		2019	2020	2021	과제 수	%
연구과제 특성 분류	합계	38	37	34	109	100.0
	기본	13	10	11	34	31.2
	일반	12	9	9	30	27.5
	수시	6	9	9	24	22.0
	수탁	4	5	4	13	11.9
	협동	3	4	1	8	7.3
연구방법 활용 분류	문헌고찰	36	35	32	103	94.5
	설문조사	25	24	24	73	67.0
	FGI	17	21	23	61	56.0
	DELPHI	8	11	9	28	25.7
	2차 자료 활용	30	29	29	88	80.7
연구방법 분류 활용 개수	0개	1	1	0	2	1.8
	1개	2	2	1	5	4.6
	2개	8	5	5	18	16.5
	3개	13	10	11	34	31.2
	4개	11	17	12	40	36.7
	5개	3	2	5	10	9.2

- ◆ 다음은 〈표 3〉을 연구방법 활용에 따라 도식화시킨 것으로 우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문헌고찰과 2차 자료 활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음. 이에 반해 다수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인 델파이(DELPHI)방법은 활용빈도가 여타 연구방법에 비해 저조함.

10) 분석에 활용된 연구과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9~2021년에 수행된 기본, 일반, 수시, 수탁, 협동과제 109개 해당함.

[그림 1] 연구방법에 따른 활용 빈도(2019~2021)¹¹⁾



- ◆ 최근 3년(2019~2021년)에 걸쳐 수행한 109개 연구과제 목록과 연구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개별 연구과제가 활용한 방법(문헌고찰, 설문조사, FGI, DELPHI, 2차 자료 활용)을 중복 허용하여 빈도와 비중을 산출하였음.
- ◆ 문헌고찰의 경우 기본, 일반, 수시, 협동과제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과제에서는 다소 낮은 활용 빈도가 관찰되었음.
- ◆ 설문조사는 기본과제와 일반과제에서 활용빈도가 높은 반면 연구기간이 비교적 짧고 연구비의 규모가 작은 수시과제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용빈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음.
- ◆ 2차 자료의 활용은 수탁과제에서 활용이 매우 저조한데, 해당 기간에 수행된 전체 수탁과제를 분석에 활용하지 않아 주요 경향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번 분석에 활용된 수탁과제의 특성이 ‘실태조사’와 같이 최신의 통계자료를 생성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연구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더불어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일부 수탁과제의 연구보고서는 비공개로 해당 분석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었음.

11) 분석에 활용된 연구과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9~2021년에 수행된 기본, 일반, 수시, 수탁, 협동과제 109개 해당함.

〈표 4〉 연구과제 특성별 연구방법(연구 데이터 수집) 활용 비중(2019-2021년)

구분	합계											
	합계		기본		일반		수시		수탁		협동	
	사업 수	비중 (%)										
문헌고찰	103	94.5	34	100.0	29	96.7	23	95.8	9	69.2	8	100.0
설문조사	73	67.0	28	82.4	26	86.7	8	33.3	7	53.8	4	50.0
FGI	61	56.0	22	64.7	16	53.3	13	54.2	7	53.8	3	37.5
DELPHI	28	25.7	18	52.9	2	6.7	5	20.8	3	23.1	0	0.0
2차 자료	88	80.7	32	94.1	28	93.3	19	79.2	2	15.4	7	87.5
합계	109	100.0	34	100.0	30	100.0	24	100.0	13	100.0	8	100.0

■ 논리적 모형에 근거한 연구보고서의 주제어 분류

- ◆ 연구보고서의 연구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보고서 제목에 쓰인 단어를 분절하여 논리적 모형에 근거한 ‘투입’, ‘활동’, ‘산출’로 개별 단어를 분류함. 이때 활용된 논리적 모형의 기본 구조는 보건사업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모형은 다섯 단계¹²⁾로 구분되나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의로 세 단계로 축소하여 활용함.
- ◆ 축소된 세 단계는 ‘대상’, ‘활동’, ‘산출’로 구분하였으며, ‘대상’ 230회, ‘활동’ 137회, ‘산출’ 126회로 요약됨.
- ◆ 구체적으로 대상의 경우 가장 다빈도 용어는 ‘영유아’(23회, 10.0%), ‘육아정책’(10회, 4.3%), ‘어린이집’(8회, 3.5%)로 관찰되었음. 활동의 경우 ‘분석’(12회, 8.8%), ‘지원’ 11회, 8.0%), ‘돌봄, 육아, 적용, 전환, 컨설팅’이 각각(5회, 3.6%)를 차지함. 산출의 경우 ‘성과’(7회, 5.6%), ‘조정, 개정, 누리과정’(6회, 4.8%), ‘개선’(5회, 4.0%)을 차지함.

〈표 5〉 논리적 모형에 따른 연구주제어 분류 및 빈도³⁾

논리적 모형 ¹⁾	주제어	빈도 (회)	비중 (%)
대상 ²⁾	전체 빈도	230	100.0
	영유아	23	10.0

12) 보건사업의 논리적 모형은 보건사업의 논리적 근거, 즉 사업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모형으로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결과(outcome), 파급효과(impact)로 구성된다. (출처: 배상수(2015), 보건사업기획, 제3판, 계축문화사)

논리적 모형 ¹⁾	주제어	빈도 (회)	비중 (%)
	육아정책	10	4.3
	어린이집	8	3.5
	산후조리원, 수요, 실태, 아동, 유아	6	2.6
	유아, 초저출산, 코로나19, 한국	4	1.7
	사회, 성장발달, 육아서비스, 육아지원	3	1.3
	전체 빈도	137	100.0
활동	분석	12	8.8
	지원	11	8.0
	돌봄, 육아, 적용, 전환, 컨설팅	5	3.6
	교육보육, 질제고, 평가	4	2.9
	모니터링, 보육, 소비실태조사, 시범, 양육, 양육지원, 여론, 운영	3	2.2
	전체 빈도	126	100.0
산출	성과	7	5.6
	조성, 개정, 누리과정	6	4.8
	개선	5	4.0
	극복, 육아친화	4	3.2
	대응, 물가, 육아문화, 육아존중문화, 종단, 지수, 진단, 패러다임, 해소, 행복	6	4.8

- 1) 논리적 모형은 W.K. Kellogg Foundation(2001). 을 기반으로 자원/투입, 활동, 산출, 단기-중기-장기결과 중, 자원/투입, 활동, 산출의 부분으로 구분함.
- 2) 자원/투입의 경우 대상, 예산, 장비, 지원으로 소분류 항목에서 '대상' 으로 분류함.
- 3) 주제어 분류의 빈도는 최소 3회 이상의 주제어만 대상으로 함.

◆ <표 5>를 통해 제시한 논리적 모형에 따른 주제어 분포를 ‘인간’, ‘기관’, ‘현상’, ‘사회’, ‘정책’으로 유목화를 거쳐 빈도를 세분화시킴. 정책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듯, ‘사회’(114회, 23.1%), ‘정책’(243회, 49.3%)의 결과로 요약되었음.

<표 6> 논리적 모형과 유목화에 따른 주제어 분포³⁾

유목화	논리적 모형 ¹⁾			합계	
	대상 ²⁾	활동	산출	빈도 (회)	%
인간	60	0	0	60	12.2
기관	22	0	0	22	4.5
현상	0	54	0	54	11.0
사회	89	0	25	114	23.1
정책	59	83	101	243	49.3
합계	230	137	126	493	100.0

4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 데이터 관리

■ 데이터 수집과 관리

-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소 DB 구축을 위하여 기본·일반·수시 과제에서 파생된 원자료 및 가공자료를 취합하고 관리하며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¹³⁾
- 이에 과제책임자는 기본·일반·수시 과제 종료 후 익년 상반기까지 보고서, 설문지(면담질문지 포함), 코딩북, 원자료 파일을 자료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자료관리 담당부서는 과제책임자가 제출한 원자료 및 관련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음. 다만, 연구소 패널데이터는 담당 연구진에서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음.¹⁴⁾
-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자료 양의 방대함과 누적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체제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2021년부터 '데이터연구센터'로 별도의 하부 조직을 두어 연구소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제에 대한 양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음.

■ 기관 고유의 생성데이터 공유

- 육아정책연구소는 오랜 기간 육아정책분야의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하여 연구에 활용해 왔으며¹⁵⁾, 원시자료를 대중에 공개해 오고 있음.
- 대표적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료로는 「한국아동패널」이 있으며, 해당 자료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플랫폼을 마련하여 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음. 더불어 신규 설계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자료도 향후 1~2년 이내에 공개 될 예정이다.

13)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 관리 세칙, 제3장 11조 1항과 2항.

14)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 관리 세칙, 제3장 12조 1항과 2항.

15)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도 5개의 연구사업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5개 연구사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01-아동권리와 생애주기에 기반한 연구 영역 확장, 02-미래변화를 대비한 교육/보육/돌봄 운영체계 구축 및 선제적 대응, 03-육아친화적 고용환경 및 사회환경 구축, 04-육아정책분야 데이터 통합을 통한 국내외 의제 대응, 05-공생·존중의 육아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수요자 소통 역량 강화.

■ 기관 데이터 관리와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 ◆ 육아정책연구소는 꾸준한 국제교류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2~3개 국가를 선별하여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음. 이 자료집은 해외의 인구학적 특성과 영유아 교육·보육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음.
- ◆ 이를 토대로 우리 기관은 국내외 육아정책연구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5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방향성

■ 기관 내 연구사업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체계적 기반 확립

- ◆ 육아정책연구소의 고유 데이터 생산성과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여건은 마련되어 있기에 실제적으로 기관 내 자료 공유 및 활용을 통해 기관 내 연구 사업에서 생성된 2차 자료의 활용빈도를 높여 중복성을 줄이고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 ◆ 연구의 결과물인 연구보고서와 관련하여 연구의 주제나 대상, 연구 기간, 활동 내용 및 산출된 결과물의 특성 등 다양한 차원을 고려한 주제어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유관 기관 간 자료 공유를 시작으로 한 연구 자료의 활용가치 극대화 전략

- ◆ 연구 자료의 공공데이터화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의 과정을 통해 유관 기관과의 자료 공유 및 연계를 통해 1차 자료 확보에 투입되는 재원을 축소하여 재원 투입이 필요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선행과정이 필요함.
- ◆ 이와 더불어,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 시설, 인력, 자원 등의 확보와 구체적 실천 전략에 대한 기획과 논의가 확대되어야 함.

■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

- ◆ 축적된 양적 자료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관리하고 연구자의 요구에 맞추어 재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준비와 이에 따른 사전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1) 자료축적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
- 2) 원시자료 수집과 구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자료 구축
- 3)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예: 학술대회 개최, 자체 통계지표 생성 등)

■ 데이터 수집과 관리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직구성

- ◆ 현 시점에 축적된 양적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연구자의 요구에 맞추어 재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전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나 자료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의 인력규모에서는 업무 과중화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타당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함.
- ◆ 수집된 자료를 개별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이해도와 자료 자체가 가진 목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데이터 관리 계획 하에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별도의 인력구성이 요구됨.

I 참고문헌 I

시기자, 이은경, 이인태, 조기희, 최인봉, 김솔아, 박지윤(2021). KICE 교육데이터 생산·보유 현황 조사 및 축적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ORM 2021-40-1.

최명석, 이상환(2020). 데이터 관리 계획의 국내 현황 및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220-229.

오지은(2021). 코로나19 공공데이터 활용 교훈과 대처: 제7차 OECD 공공데이터 전문가 그룹 회의 주요내용, 제27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형준(2017).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을 통해서 본 OECD의 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에 대한 비판적 논의: Open Data Barometer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보화 정책 제24권 제2호, 2017년 여름호, pp.43~67.

Ubaldi, B. (2013). Open government data: Towards empirical analysis of open government data initiative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22.

〈웹페이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https://kicce.re.kr/main/html.do?menu_idx=41. (인출일: 2022. 7. 4).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

<https://www.mois.go.kr/frt/sub/a06/b02/openData/screen.do>. (인출일: 2022. 11. 2).

Government Data Initiative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22, OECD

Harvard University. Data Management Plans, <https://researchdatamanagement.harvard.edu/data-management-plans> (인출일: 2022. 9. 21).

California Digital Library. Data management general guidance,

https://dmpool.org/general_guidance (인출일: 2022. 9. 21).

2022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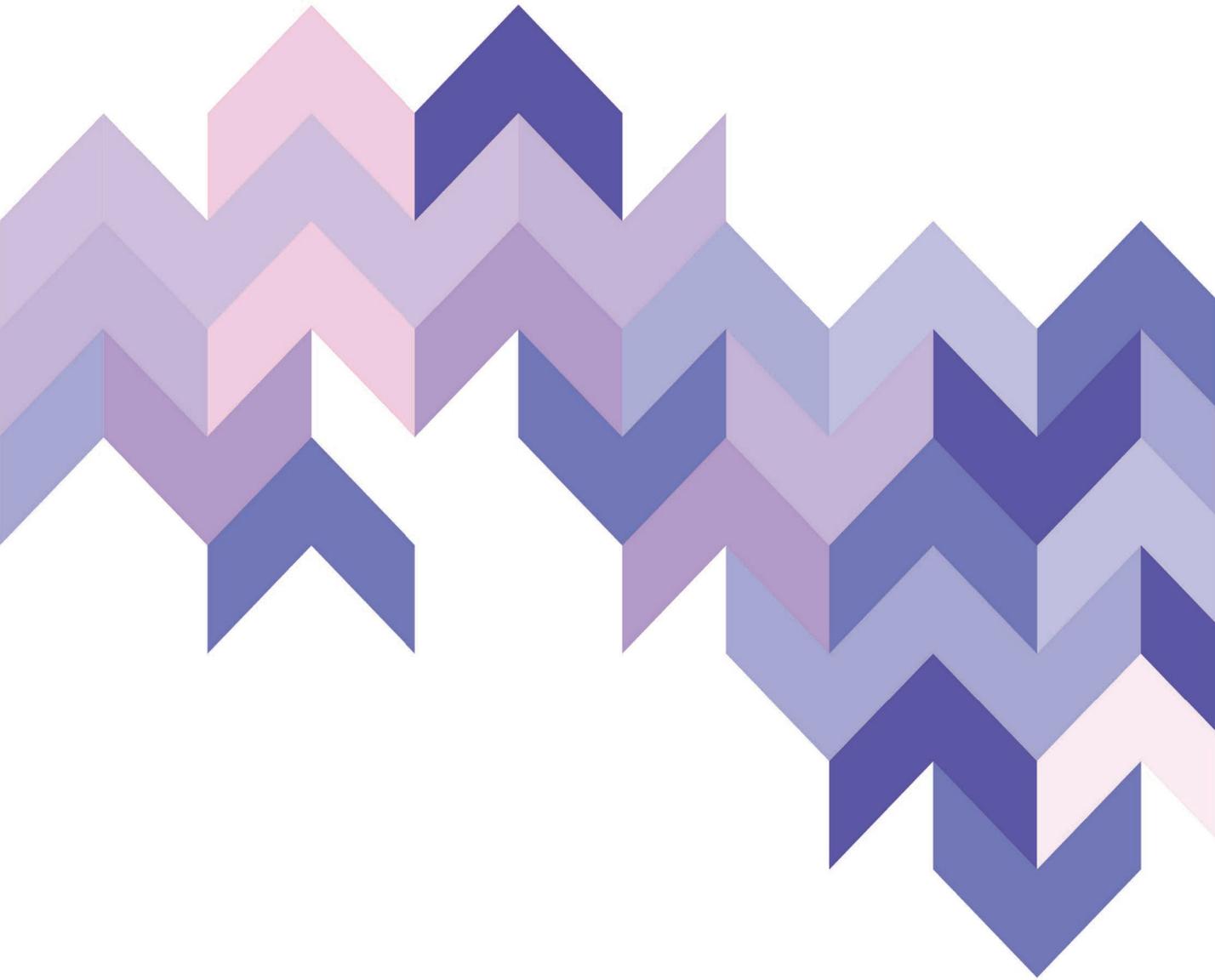
2022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인 | 박상희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 (02) 398-7700
팩스 | (02) 398-7798
홈페이지 | <http://www.kicce.re.kr>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 786-2999

※ 이 책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2022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 TEL 02)398-7700 | FAX 02)398-7798 | <http://www.kicce.re.kr>